



칼럼 '지속 가능한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론 설계인력의 과잉공급도 문제이다  
한국 건축, 좀 더 재미있어지면 안될까요?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95  
<http://www.kira.or.kr>  
201007

# ‘지속 가능한 건축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How to become sustainable architects

한국의 건축사제도가 시행된 지도 어언 반세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간 한국의 건축사는 전문자격자로서 법제도의 보호 아래 개발도상국가의 특징인 많은 건축불량과 함께 고도성장 속의 안주를 누려왔다. 그러나 IMF 이후 근년에 발생한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하락과 함께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한국 경제로 인한 일거리의 감소, 그리고 이와 반비례로 양산되는 건축사로 인한 3중고로 인해 불행으로 ‘핸드폰 건축사’를 양산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는 환경과 에너지가 최대의 이슈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축계는 ‘그린’과 ‘제로 하우스’ 등 ‘지속 가능한 건축물’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는 오로지 자기계발과 이를 위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외부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문제는 자신의 변화된 마음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인 것이다.

건축사 자격은 처음 년히로 시작되어 아무런 재교육 없이 현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1980년대에 기술자교육의 일환으로 건축사도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 주간씩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위의 교육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획일적인 것에 대하여 합숙까지 해야 하는 등 불편 내지 불합리한 것들이 존재하였으나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나았다. 재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 이후, 건축사들은 스스로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는 2009년도 건축문화신문의 대한민국 평균건축사의 설문조사에서, 응답회원의 40%가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작년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또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지역을 고려하여 상시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교육의 보편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자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이해할 수 있으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각 시 도회는 나름대로 자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건축사회는 본부와 함께 있음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VE 교육과 부동산 개발과정 등을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반응도 뜨거운 편이다. 또한 BIM과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도 수시로 행하여 회원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진화하는 현대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사’가 되려면 우리도 한시바삐 미국건축사협회와 같은 열린 교육제도를 갖춰야 한다. 자기 형편에 맞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대학 및 학회 등과 연계해야 한다. 정부는 한 시라도 빨리 건축사법에 의한 유일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건축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 및 장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료해야 한다.



김영수 / Kim Young-soc, KRA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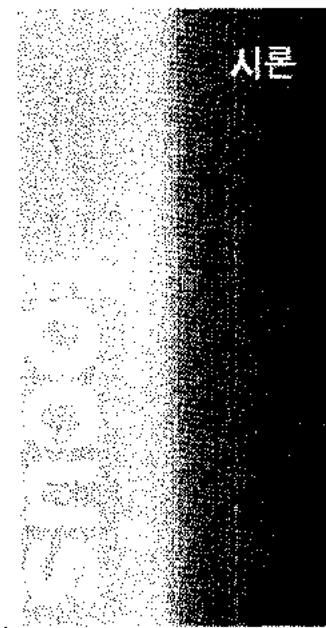
지금 세계는 IT산업의 혁명적 발전과 함께 전문자격자들의 수난시대가 되고 있다. 개업의들은 눈 뜨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자기분야의 새로운 치료법이나 신약이 나온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면 무능한 의사로 물을 닦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사란 직업이 없어진다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전기, 설비, 구조 등 건축의 기술적인 것들은 이미 분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계획하고, 그 계획도를 가지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건축설계를 해주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서울산업대, 연세대, 영지대  
(공학박사)
- 중앙대 대학원, 광운대 법무  
대학원 강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 서울시, 인천시 건축위원
- 대한상사총재원 중재인  
기술사, C.V.S, C.M.P

오늘 날, 건축사들을 향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계속 불리해지고, 먹을 파이는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병원설계로 성공한 건축사들, 최근 건축문화신문의 지방건축사 시리즈는 ‘하면 뛰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즉 현실을 타파하는 길은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전문기술을 습득하며 경영기법도 배워야 한다. 또한 사회의 리더로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문학, 사회, 철학을 통해 교양을 함양하고, 사회공동체에 봉사를 통한 책무를 다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지속 가능한 건축사’의 길이다. ■

# 설계인력의 과잉공급도 문제이다

Oversupply of architects also creates problems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분야는 심각한 침체의늪에 빠져있다. 대부분의 중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몇몇 아틀리에 형태의 소형 건축사사무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다. 매달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무소가 있는가하면, 그나마 직원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곳도 여럿이라 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주택시장을 비롯한 건설시장 전반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세계경제불황의 탓으로만 볼릴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설계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흔히 건축사 1인당 국민숫자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건축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이와 같은 주장은 당 위성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건축사는 약 17,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미국은 약 96,000명의 등록건축사가 있다. 단순비교로는 우리나라보다 약 5.6배 많은 숫자이지만, 미국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약 6배가 많고 국가 총생산이 13배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건축사는 미국보다 2배이상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설경기가 호황일때는 이와 같은 숫자가 큰 문제가 안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분야가 GDP의 15%~20%를 차지하는 시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기껏해야 5~7%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현재 건축설계분야는 확실히 공급과잉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경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건축설계인력 과잉생산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0개의 건축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약 75개의 대학에서 5년제 건축설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4년제의 건축교육프로그램과 4년제의 설계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경우 건축설계분야로 배출되는 인력은 전문대학을 제외하고도 매년 적어도 6,00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120여개의 건축설계프로그램에서 매년 약 9,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인구만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설계인력을 미국보다 약 4배이상 배출하고 있고, 경제규모까지 고려한다면 약 8배 이상이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즉,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000명 미만의 설계인력만 배출되면 족하고, 그렇다면 5년제 프로그램으로는 2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건축설계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고민이나 논의를 해본 기억이 없다.

기존의 4년제 건축교육제도는 나름대로 건축시장의 변화에 대해 적응력을 갖는 합리적인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이나 취업 가능성, 미래의 비전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설계' 와 '건축공학' 이 이 분화된 교육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다. 5년의 건축설계교육은 건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이론상 다른 선택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대학의 5년제 건축설계프로그램이 이며 75개에 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다.

대학들도 무분별한 건축설계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자로서 취업도 안되고 장래의 희망도 별로 없는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또한 '5년제 프로그램' 이 마치 '5년이상의 교육' 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UIA나 Canberra협정 등의 국제기준에서도 교육의 동등한 질을 말하는 것이지, 방법과 형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선도할 만한 국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유복 건축교육에서만은 변모 구속력도 없고 참가국가도 몇 안되는 국제기준에 얹매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현재 혼돈상태에 있는 건축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건축여건과 시장특성에 적합한 경쟁력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사실 지금 건축설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중반에 남들보다 1년을 더 학교에 다니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은 커녕 당장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쥐꼬리만 한 봉급으로는 결혼준비할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니 말이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건축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한낮 환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계 모두의 사신없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이언구 / Rhee, Eon-Hu  
대한건축학회 회장

#### 약력

- 현, 충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서울대, 일리노이공대(ITA), 미시간대 졸
- 대우건설/시카고 SOM 근무
- 캘브리지대/미시간대 연구교수

# FOCUS

## 한국 건축, 좀 더 재미있어지면 안될까요?

Could it be more interesting, Korean architecture?

우리 현대건축의 명소라는 헤이리에 갔을 때 제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헤이리의 여러 집들이 모두 한 건축사가 설계한 것 아니냐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건축사도 모두 다르고, 집들의 형태도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맨살콘트리트와 유리, 나무로 덧댄 외피 처리 같은 부분이 엇비슷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유사점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건물을 볼 때입니다. 각 구청들은 저마다 자기 건물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로선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건물 윗부분은 모두 통유리이고 한쪽 벽은 비스듬하게 누이고, 아래 입구부분은 철기둥 또는 돌 기단부 처리하는 공식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건축을 취재하는 기자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건축주와 건축사의 서로 다른 시각 차이의 문제입니다. 건축사들은 건축사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져와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건축주들의 수준을 놀비판합니다. 발전한 한국 현대건축의 가능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뻔한 스타일의 건물만 고른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한국 건축사들보다 이름만 앞세운 외국 건축사들을 선호하면서도 정작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건축주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건축사들은 정말 건축주를 사로잡는 구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들만의 건축관을 내세운다, 말은 그렇듯한데 와 닿지는 않는다는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양쪽 말이 모두 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양쪽이 만들어낸 건물을 보는 저로서는 그런 저당한 이야기들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똑같아 보이니까요.

건축사들이 건축주들의 무리하고 몰이해한 요구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나 최대한 마음껏 했다는 헤이리인데도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구청들이 각 구의 철학과 대민봉사 정신을 담고 구현해지었다는 구청 건물들은 무슨 공식을 따라 지은 듯 닮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건축에서 가장 결핍된 부분이 개성과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와 건축주 모두 정말 재미 있고 풀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주 여러분, 무엇을 형상화했다는 식의 의미를 건축사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한국인의 춤사위를 지붕에 얹고, 광주민주화운동이 5월18일이니 광주시청사를 18층으로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스스로에게 와 닿고 재미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님들, 정제된 언어로 미니멀을 추구하면서도 스키에 변화를 줬다, 보이드와 솔리드가 어떻다, 형태 이전에 기능을 생각했더니 절로 디자인이 나오고, 외부와 내부를 이어 한 공간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는데 정작 건물들은 왜 그리 비슷한가요.

거리를 오가며 건물을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 건물이 심심한 뜻 보여도 자꾸 보니 볼 구석이 많아 새롭게 느껴지면 좋겠고, 비슷비슷한 건물들 사이에 조금 뛰어도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건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건축은 정말 접점이 많습니다. 건축은 역사와 예술, 디자인과 도시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건축 아닌가요? 거창한 단어들이 나와도 결국 건물에 재미가, 매력이 담기고, 그래서 건물에서 이야기가 피어나면 좋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건축이 재미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물들, 좌송합니다만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



구본준 / Goo, Bon-joon  
한겨레 대중문화팀장

- 한겨레 기획취재팀장
- 한겨레 기동취재팀장 역임
- 『한국의 금강이』, 『열난 기자 본  
본 우리 건축에 빡 빼자』 저술

# SK 청솔노인복지관

## SK Chungsol Welfare Center

조월웅 / 정희원, (주)다이아몬드 건축사사무소 + 이한온 / 정희원, 라이브 건축사사무소

채 나눔과 공간\_거대한 덩어리(Mass) 건축이 아닌 아기자기한 삶의 흔적과 정서가 놓아지며 필요와 기능을 고려해 적절히 나눈(Devided-Mass)로써 친환경적 건축물을 계획하고자 하였고,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사랑채, 안채, 행랑채 등 기능에 따른 채 나눔의 개념을 도입하여 형태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는 노인들을 신체적 특성과 현재 활동역량을 고려하여 용도 및 기능별 독립성 확보 및 동선의 분리를 통한 효율적 이용 및 운동을 고려한 것으로써 교육 및 커뮤니티 기능과 관리 및 사무공간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밝고 명랑한 디자인\_또한 노인의 특성상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의 발현으로 인해 밝고 명랑한 느낌의 디자인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였고, 이는 실질적 이용자와 충만한 기쁨이 되고 있다.

팔 벌려 안아주다\_본채와 별채는 회랑(Bridge)을 통해 연계되며 두 채의 사이에는 열린 공간을 갖게 된다. 이 공간은 빈 듯하나 추후 노인들의 회로애락을 담는 소중한 추억의 마당이 될 것이며 이 중앙의 공간은 전면 도로와 후면 민석공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열려 있기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적극적 공간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이 먼저 팔 벌려 안아주는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는 이 건물의 주 사용자인 노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세대를 초월하여 젊은이들과 친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친환경 건축\_또한 건물의 사용거리를 늘림으로 전시 및 시각적, 신체적 체험동선이 길어짐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채 나눔을 통해 건축물의 남향면을 최대로 확보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친환경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채 나눔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바람길은 공원과의 환경적 유대감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건축 계획의 중요 요소로 인지되고 있다. 또한 삼각형 대지의 장점과 단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입면 디자인으로 건축물이 시어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는 자투리 공간이 아닌 계획적 외부 공간으로 확보하여 대지 활용률을 극대화하였다.

**Devided-Mass and Space**\_The building is comprised with two 'devided mass' - as i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o accommodate effective use and operation with senior citizen's accessibility, functional zoning, and circulation separation. This is a green house which is melted emotion and reflect the life of seniors. The structure is designed to separate zones according to the physical needs and by use : education, community, maintenance, and office zone. The architectural element is the distincional design for two masses with different sizes. They are either separated spaces or connected with two separate single spaces.

**Bright and Cheerful Design**\_Bright and cheerful design giv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atisfaction to senior citizens. Psychologically, this design gives a fulfilled happiness and emotional satisfaction to them.

**Open Arms & Give Comfort**\_Two masses are connected with a bridge and 'open space' is placed in between two masses. Although this open space seems to be empty, it will be a Madang-Korean Courtyard which is filled with precious memory of elders. Furthermore, the Madang will be opened to the main street and the Mansuk park therefore, it will be allowed to community to enjoy the space. This building shape – as if grand parents with open arms to children – is metaphor for giving a open mind friendship beyond generations.

**Sustainable Architecture**\_The plan is visual and physically designed to have a long circulation which motivate users to walk more for their health. The 'devided mass' method let the most parts of masses have southern exposure, which is able to save energy. 'Wind road', which is placed by putting the devided mass along the alley, is giving a sense of environmental emotional bond with neighbor parks, and it becomes an important sustainable architectural element. This triangular shape site is thoughtfully planed with facade and site plan, then the open space has thoroughly used without dead space. ■

Architects Cho, Won-yong, KIRA +Lee, han-eun, KIRA

Project Team Kim, In-hae

Client Suwon City Hall

Location Gyeonggi-do Suwon-si Jangan-gu Jeongja-dong 286

Site Area 4,971.00m<sup>2</sup>

Building Area 1,233.65m<sup>2</sup>

Gross Floor Area 3,583.84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24.82%

Floor Area Ratio 68.53%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Lee, Kang-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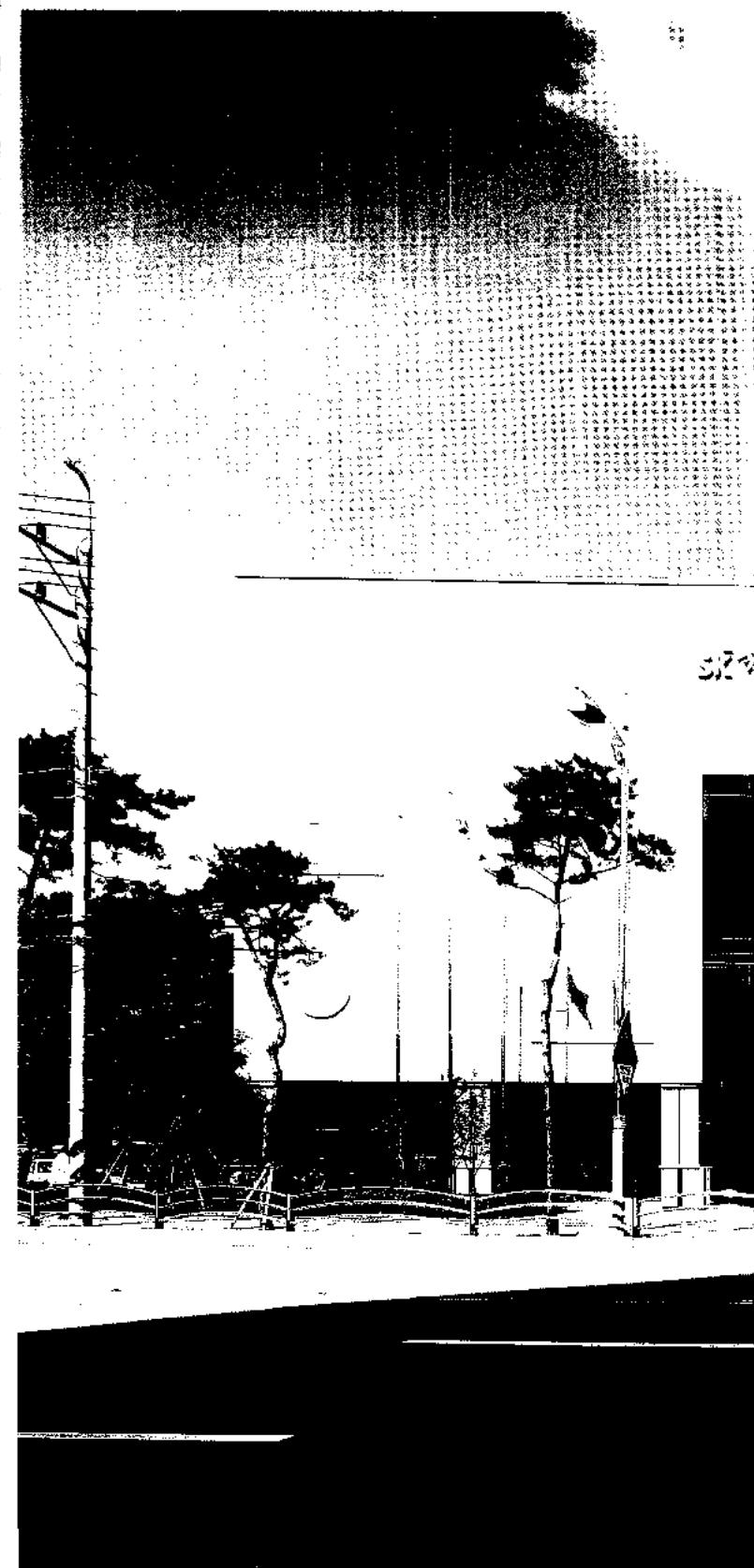
HVAC · Electrical Engineer Hong, Seung-k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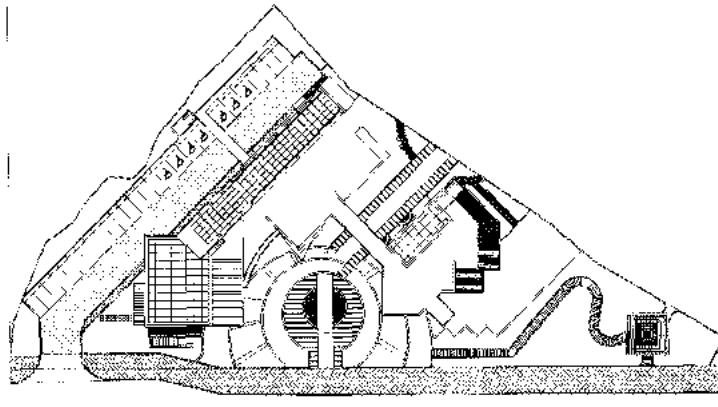
General Contractor SHINHA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Building Scope B1, 3F

Finishing Materials Exposed Concrete, NT Panel, Zinc Panel, Double Glazing

Photographs Lee, Jong-hun Cost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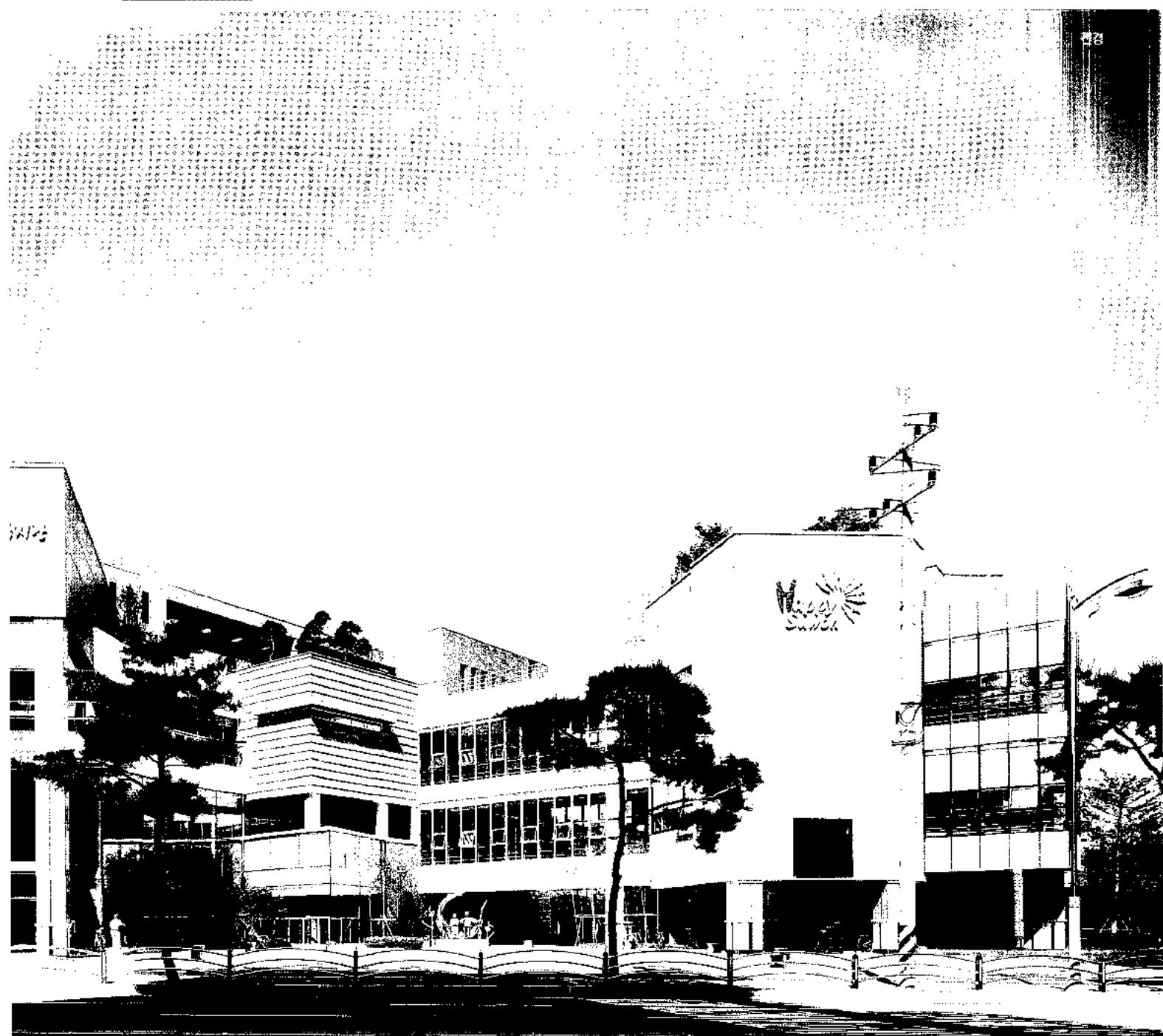


0 1 5 10m

배치도



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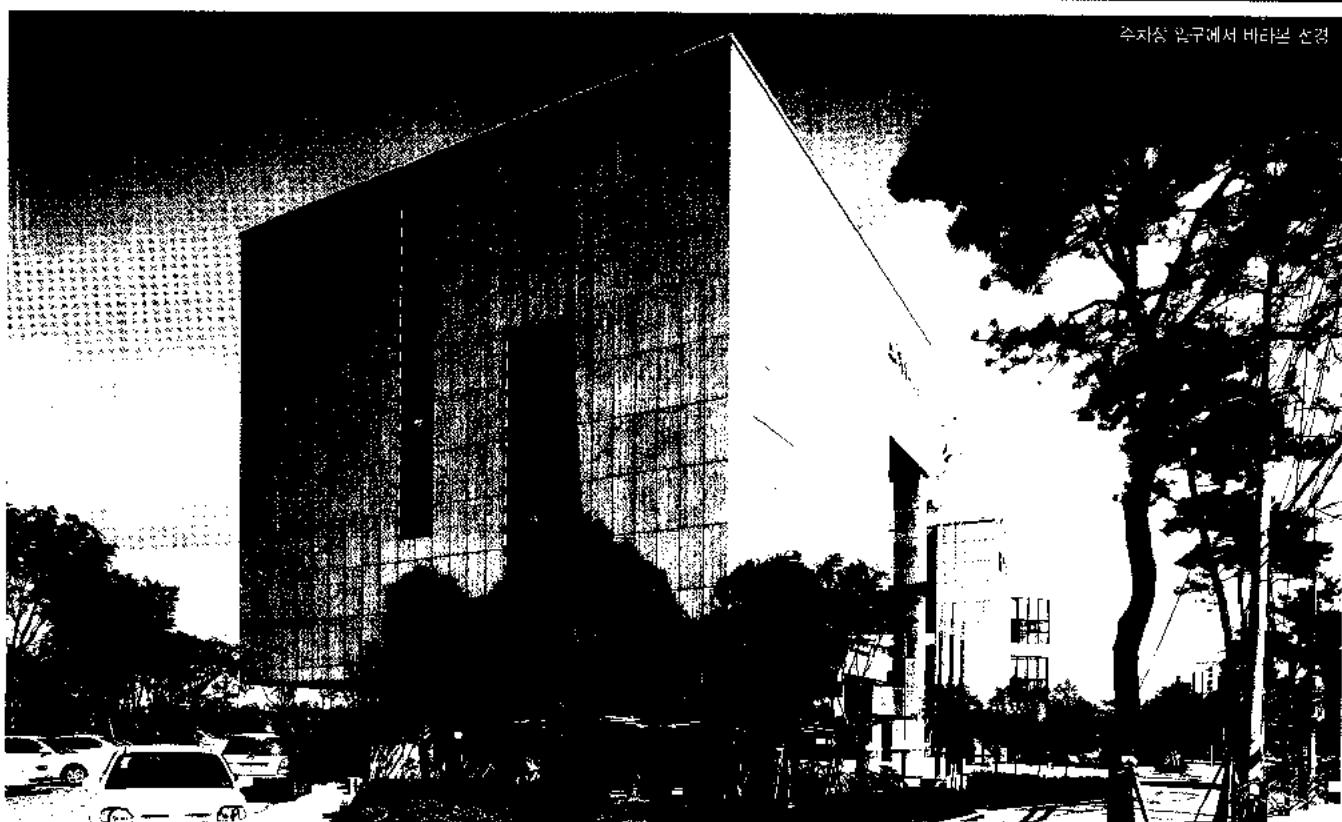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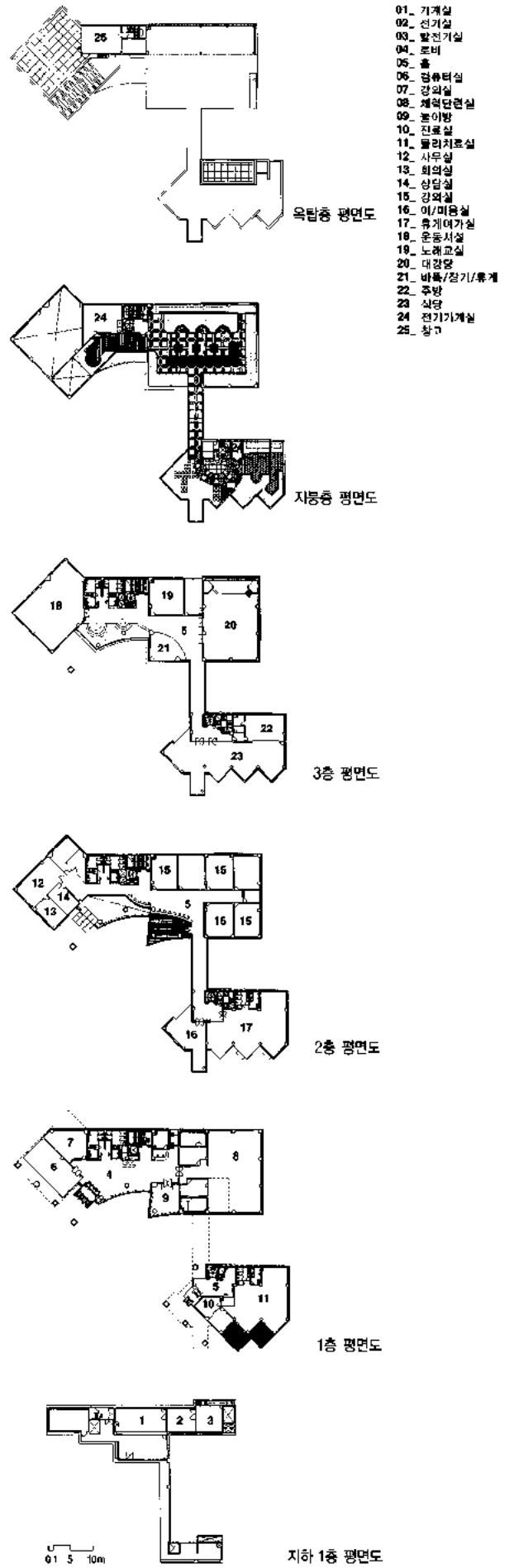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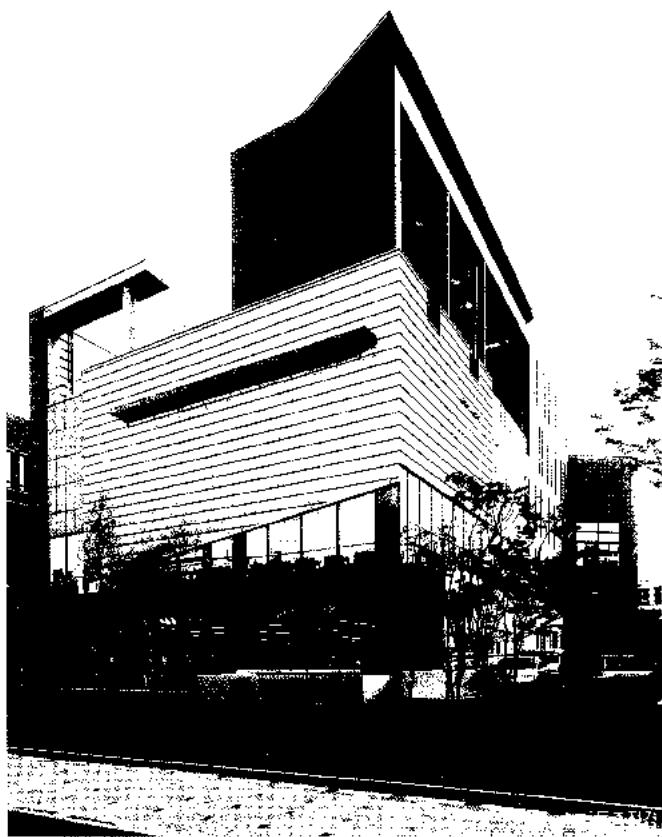
엘린광장에서 바라본 야경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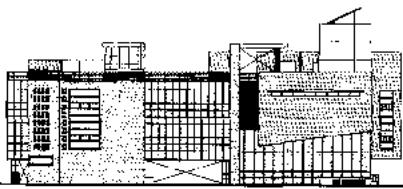
주차장 입구에서 바라본 전경





0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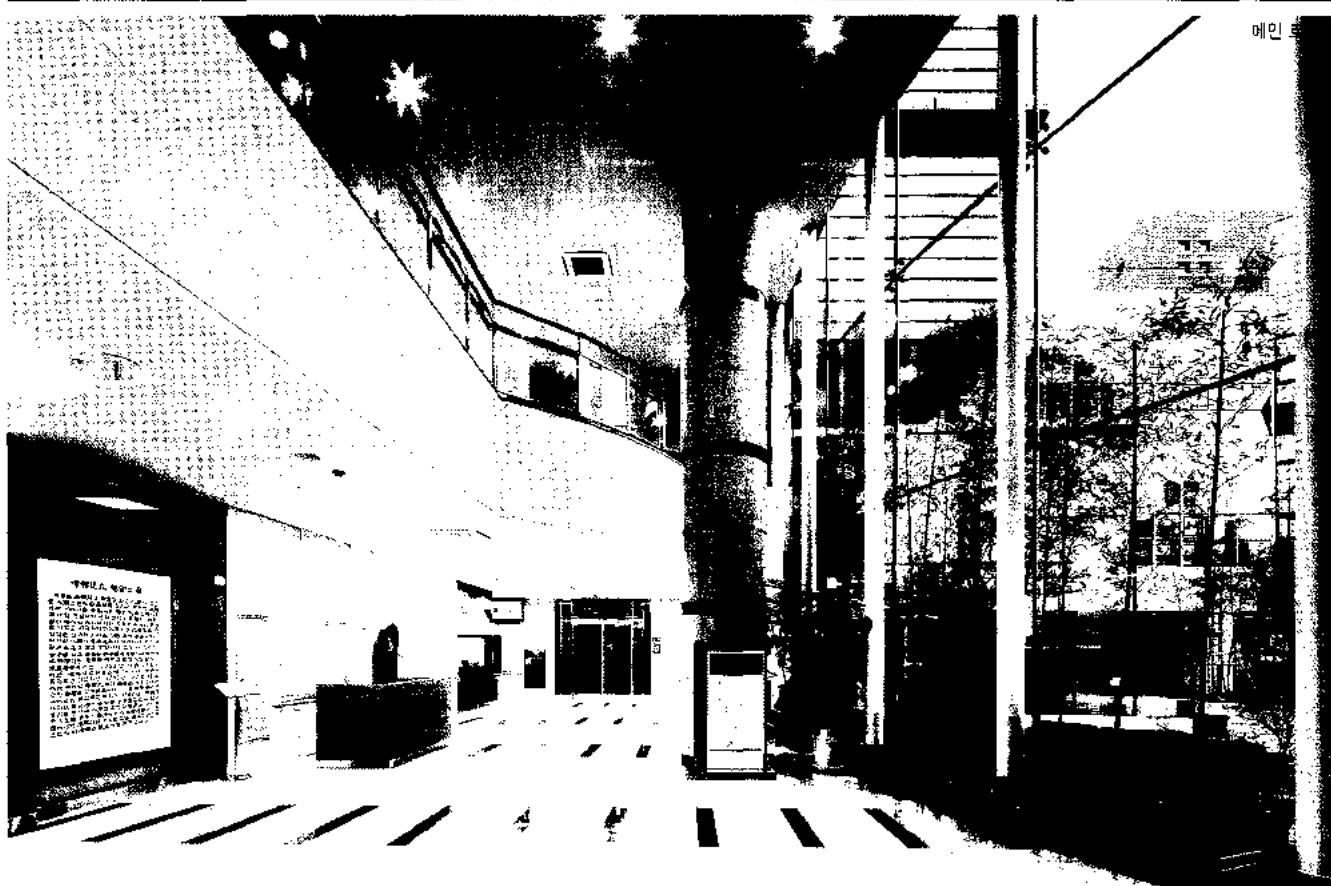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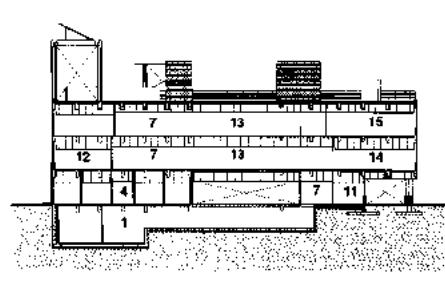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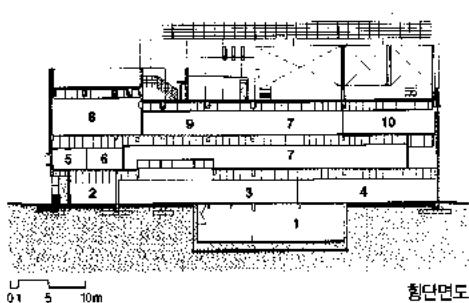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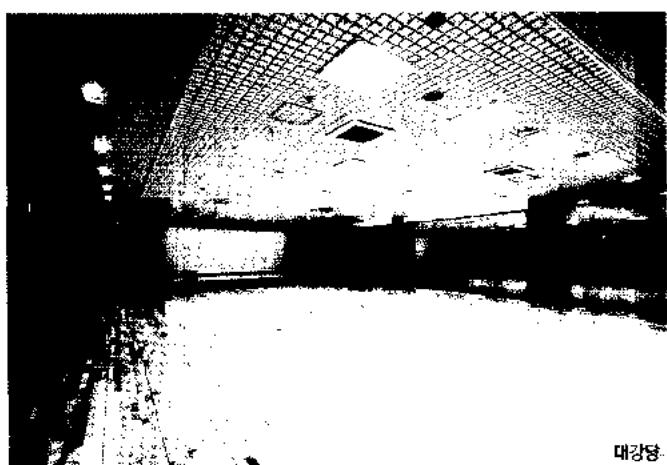
우측면도



017-1 고양시 차장



메인 빌드



- 01\_ 물탱크
- 02\_ 컴퓨터실
- 03\_ 로비
- 04\_ 재활민원실
- 05\_ 회의실
- 06\_ 상담실
- 07\_ 풀
- 08\_ 운동시설
- 09\_ 휴게라운지
- 10\_ 대전방
- 11\_ 진료실
- 12\_ 치의실
- 13\_ 연강홀도
- 14\_ 0./미용실
- 15\_ 식당

## 상하이 엑스포 2010:한국관

Shanghai Expo 2010 : Korea Pavilion

박기수 / 정희원 · 조민석, (주)건축사사무소 매스터디스

**배경:**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이라는 테마 아래,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상하이 엑스포. 엑스포 2010은 전세계 약 192개국, 50개 국제기구, 18개 기업관이 참여, 약 7천만명(외국인 5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소 한국관은 상하이 엑스포 부지 중 아시아 국가 지역인 A 지역에 속해있다. 일본관, 사우디 아라비아관과 이웃하고, 관련객 대다수가 필수적으로 방문하게 될 주최국의 중국관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대시면적은 약 6,000m<sup>2</sup>이며 엑스포 단지 내의 가장 큰 부지 중 하나에 속한다. 북서쪽으로는 흥포강을 면하고 있어 멀리 상하이의 스카이라인과 강변으로의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

개요\_상반된 대륙적 문화와 해양적 문화를 함께 보유하여 융합적이고 풍부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한국 문화의 특성을 한국관을 통해 부각시키고자 한다. 융합이라는 큰 테마 아래 한국관은 「기호(문자)」와 「공간」

의 응합 즉 기호가 공간이 되는 동시에 공간이 기호가 되도록 디자인 되었다.  
공간화된 기호 한글은 한글로 '기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축물로써의 한국관은 응합 기호인 한글이 조합되어 새로운 주상으로써 건축물이 되는 공간화된 기호'이다. 이를 통해 응합 기호인 한글을 공간으로써 리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한국관은 한글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순수 기하학적인 한글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조합 (**ㄱㄴㄷㄹㅁㅂㅁㅋㅍㅌㅍㅏ ㅓ ㅏㄴㄴㄱㅓ**), 사선(스즈), 그리고 원형(으)의 획들을 이 건축 공간에서 필요한 수평/수직의 움직임으로써 구성하고 동시에 이 풍선의 형태들이 건물을 지지하는 득특한 구조 요소가 되는 건축물이다. 외관을 구성하는 한글의 형태는 단순히 한글 시모를 나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글을 이루는 기본 기하학적 요소들로 해체하고 재구성 하였다. 이를 통해 바라보는 위치와 획의 조합 방식에 따라 무수히 많은 한글 문자의 기호들이 연상될 수 있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또한 주상성 때문에 바라보는 이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기호로 읽힐 수도 있는 '열려있는 문장' 과도 같다. 한글의 획의 조합은 어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동선, 또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사선 동선을 보여주는 입면요소가 되기도 하고, 전시장 안에서 원형 또는 사선의 동선을 만들어 내면서 한글의 획들을 움직임을 통해 경험하도록 하였다.

전체 건물의 입면은 '한글'과 '아트 퍼셀'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한글 퍼셀은 4가지 크기의 한글 지모(字母)로 이루어진 흰색 패널로, 외관의 대부분은 이 패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트 퍼셀은 한국의 설치미술가 강의원작에 제작된 45x45cm의 알루미늄 패널로, 아들이 만들었던 이미지는 융합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악 4개단의 아트 퍼셀들은 한글관의 입면을 다양한 색, 희망, 화합을 통합적인 동시에 조화롭게 구성한다. 또 한국관은 빛과 그림자에 의해 표면에 변화가 생겨 낮과 밤에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야간에는 한글 퍼셀 뒤에 설치된 연속 조명에 의해 외부 입면에 새겨진 문자가 강조되어 한국관을 하나의 기호, 마치 거대한 크기의 문자 메시지와 같이 생동감 있게 만든다.

**Context** The World Expo 2010, held in Shanghai, China, is expected to be the largest world expo to date. The theme of the exposition will be 'Better City, Better Life,' and the event is to take place from May 1 until October 31, 2010, with more than 192 participating countries to accommodate the 70 million expected vis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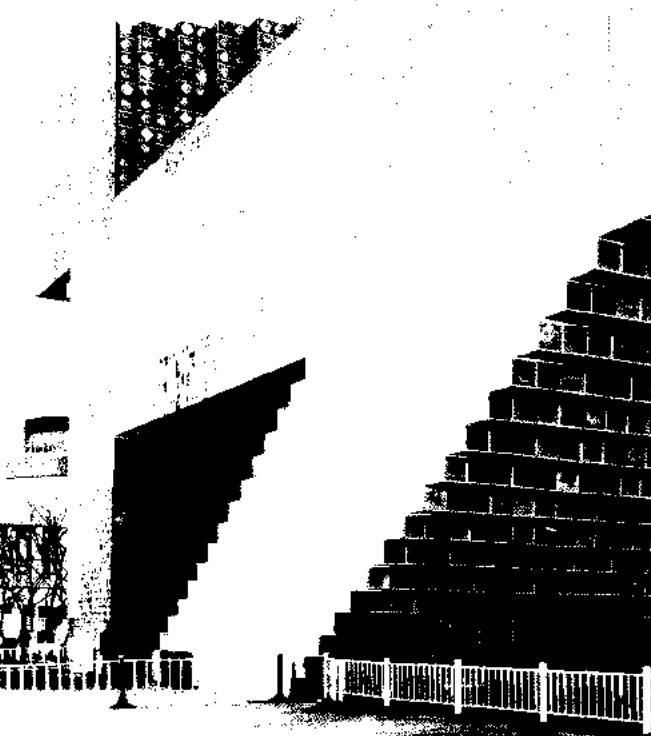
**Site** The Korea Pavilion is situated in Zone A, directly neighboring the Japan Pavilion and the Saudi Arabia Pavilion, and in close proximity to the China Pavilion. The site is around 6,000m<sup>2</sup>, and it is one of the largest lots within the Expo compound. Located on the perimeter of the zone, the site takes advantage of the views out towards the Huangpu River and the Shanghai skyline in the d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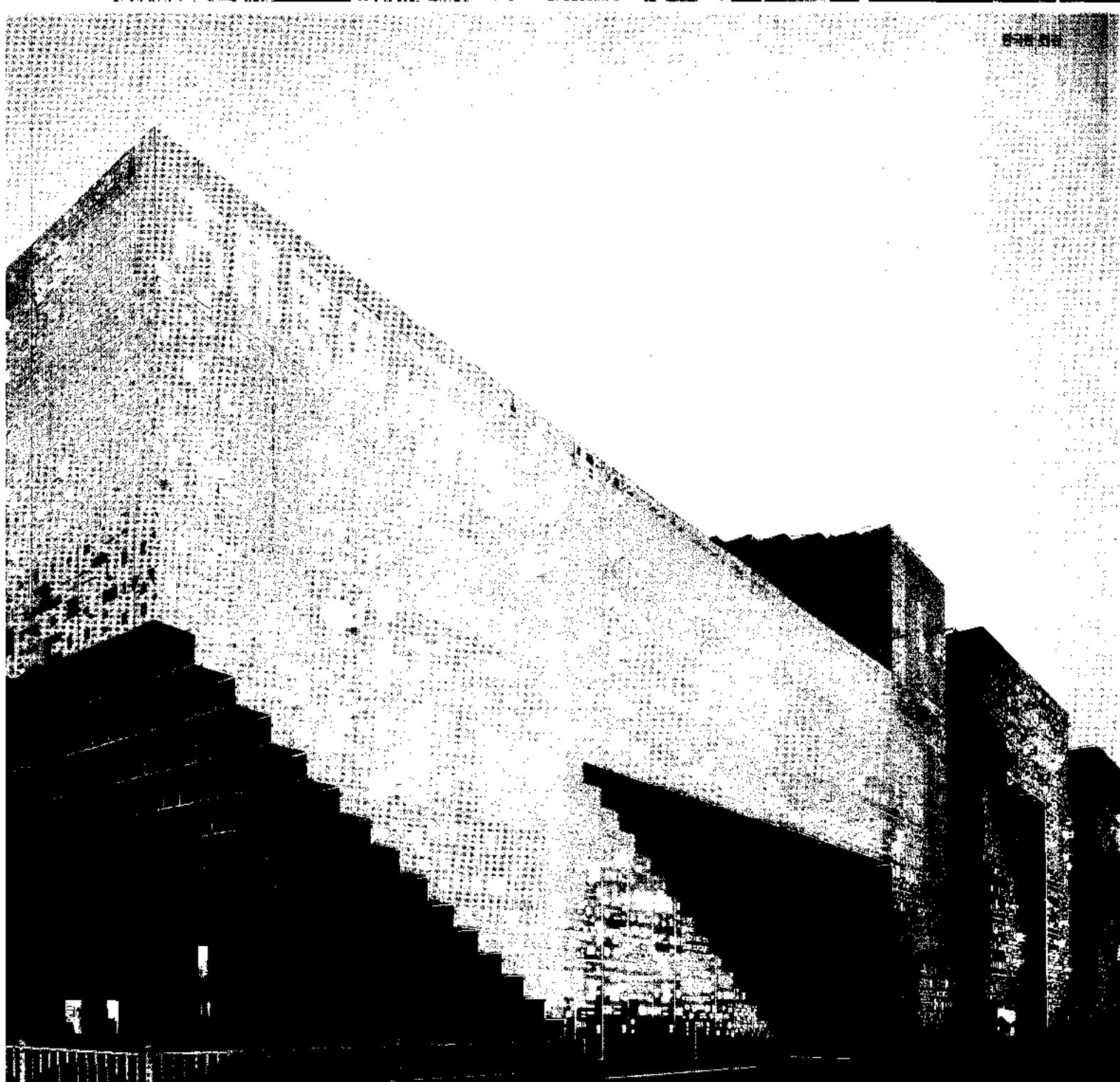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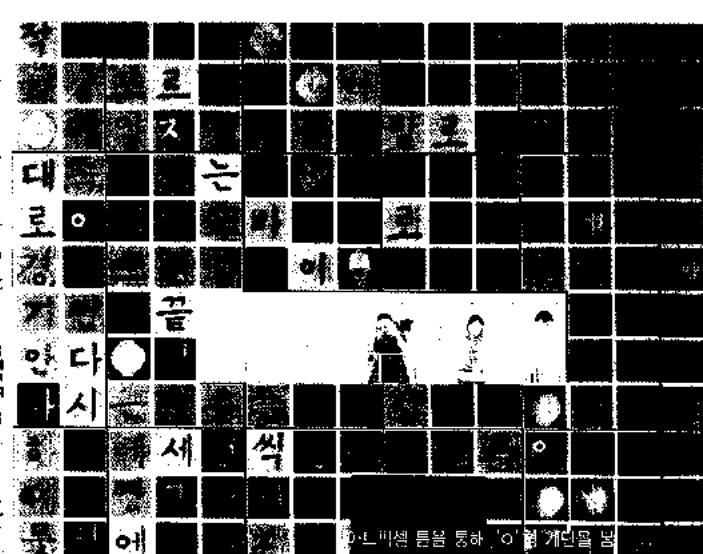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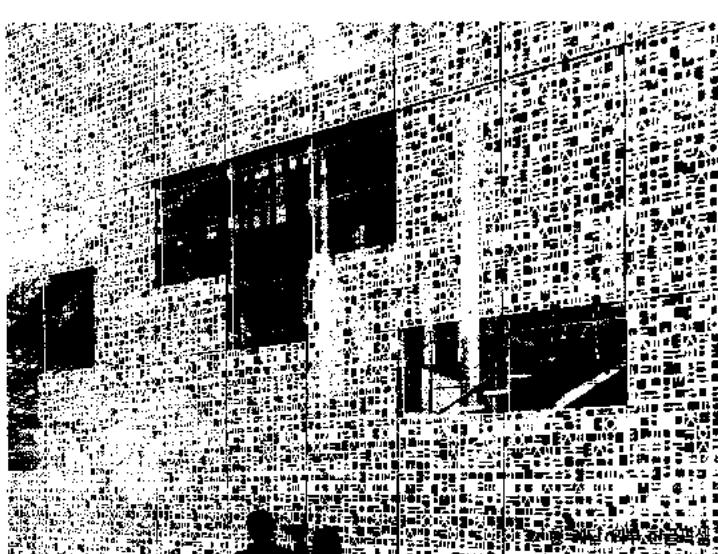
**Concept** With land culture (China) and sea culture (Japan) surrounding the peninsula, Korea has been permeable to imported cultures and global influences, whose progressive mix defines contemporary Korean society. Using 'convergence' as the main theme, the Korea Pavilion is an amalgamation of 'sign' (symbol) and 'space': Signs become spaces, and simultaneously, spaces become sig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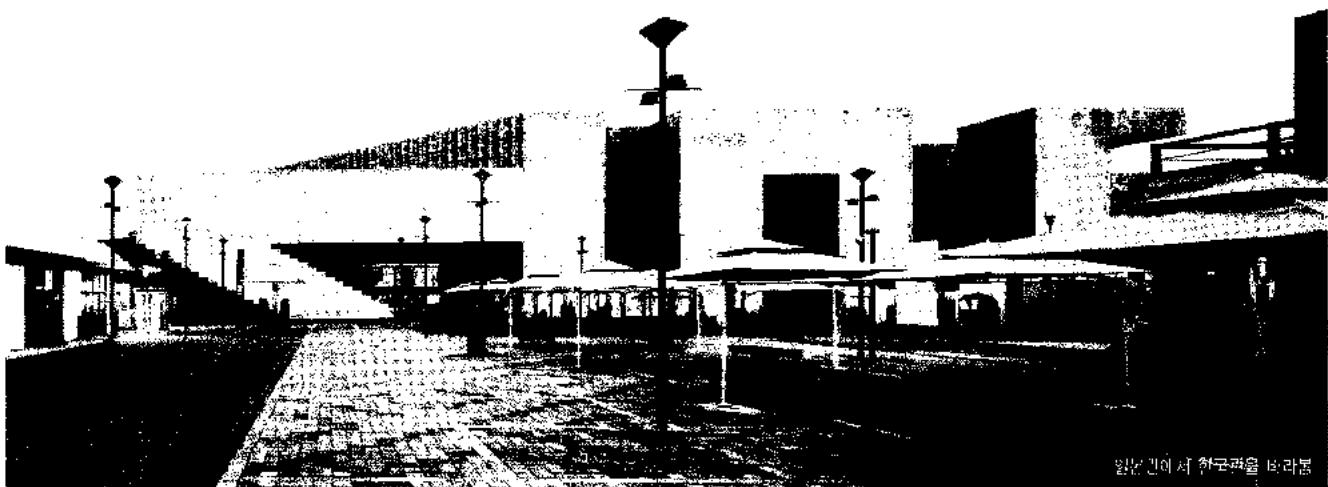
**Sign as Space\_Han-gul**, the Korean alphabet, is the prime element of 'signs' within the pavilion. The overall volume, lifted 7.2m above ground level, is created by converging these Han-gul letters, allowing signs to create the exhibition space, and so that the visitors can experience their geometry through horizontal, vertical and diagonal movements. The primary geometries that compose Han-gul letters are universal to other cultures, thus acting as a sort of 'open' set of signs that is engaging to everyone.

The exterior surfaces of the Korea Pavilion are clad in 2 types of pixels: Han-gueul Pixels and Art Pixels. Han-gueul Pixels are white panels with a relief of letters in four different sizes whose combination forms the majority of the exterior, mainly the peripheral surfaces. Most of the non-peripheral surfaces are composed of Art Pixels, which are 45cm x 45cm aluminum panels created by a Korean artist, Ik-Joong Kang, who is renowned for creating massive art walls out of small hand-painted tiles, either self-produced or by gathering from around the world (thus being another type of convergence). About 40,000 of these panels will texture the facade, contributing a bright palette of colors, hope, and unity throughout the Korea Pavilion. The art pixels, individually autographed by the artist, will be sold at the end of the Expo. All sales proceeds will be donated to an international charity organization. Not only will it raise funds for a cause, but through this social and artistic process, the recycling of facade material units, as works of art, will als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 pavilion in a unique way, by directly and critically addressing the sustainability of this temporary structure that is only 6-months in use. The surfaces will project different atmospheres during the day and night, with light and shadows creating different textures. Sequential lighting is installed behind the Hangeul Pixels to highlight the individual letters on the exterior facade at night, further animating the pavilion as a sign (like a text message) on a larger sca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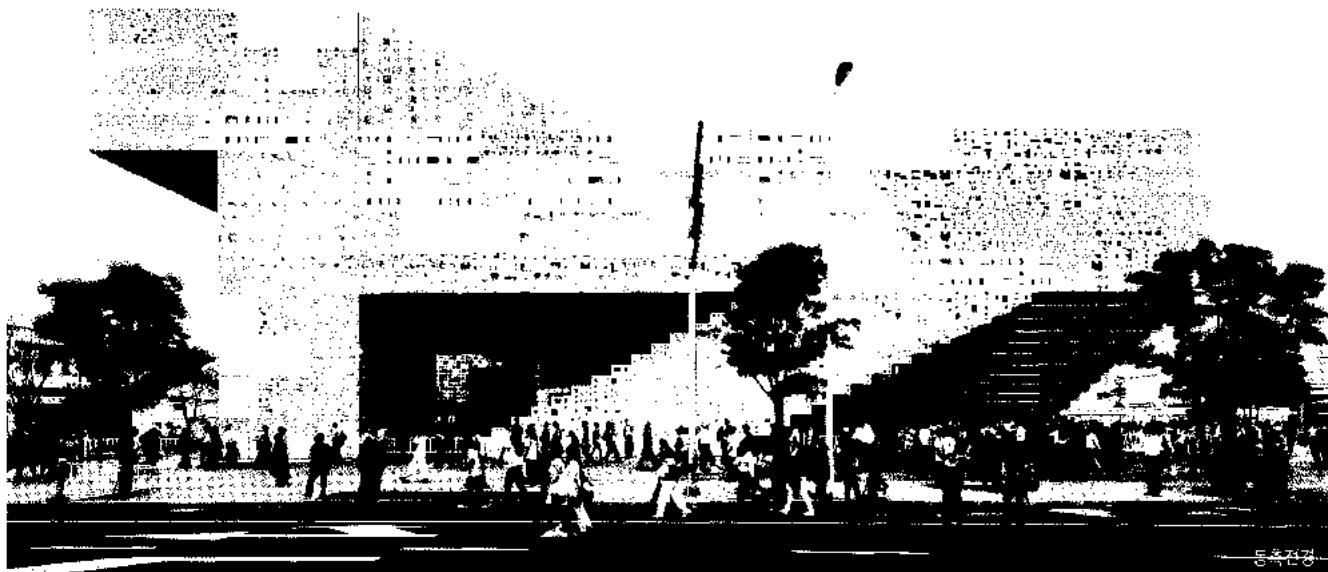
Architects Park, Ki-su, KIRA - Cho, Min-suk  
 Project Team Lee, Joungh-won · Hwang, Tae-hoon · Jung, hyun-  
 seek · Lee, Joch-hee · Kim, Hyun-jung · Chun, Bum-hyun · Kim, Ji-  
 soo · Han, Moon-hee · Won, Sung-gil · Kwon, Kyung-min · Yoon, Dong-  
 Won · Kim, Bo-ra · Kwak, Kye-nyong · Lee, Jung-wook · An, Eoo-hyun  
 Client Korea Trade-Investment Pramotion Agency  
 Location China Shanghai Site Area 6,000'  
 Gross Floor Area 7,683.5m<sup>2</sup> Structure S.C  
 Structural Engineer Ove Arup&Partners(SD), NIKKO(CD)/Construction  
 Drawings\_NIKKO/MEP Engineer\_NIKKO/Facade Consultant\_Axis  
 Facades/Interior(Exhibition)\_Cheil Worldwide/Multimedia  
 \_SigongTech General Contractor SUNGDO ENC  
 HVAC-Electrical Engineer NIKKO Building Scope 3F  
 Finishing Materials Composite Aluminum Panels EPDM Blocks  
 Photographs Iwan Baan Cost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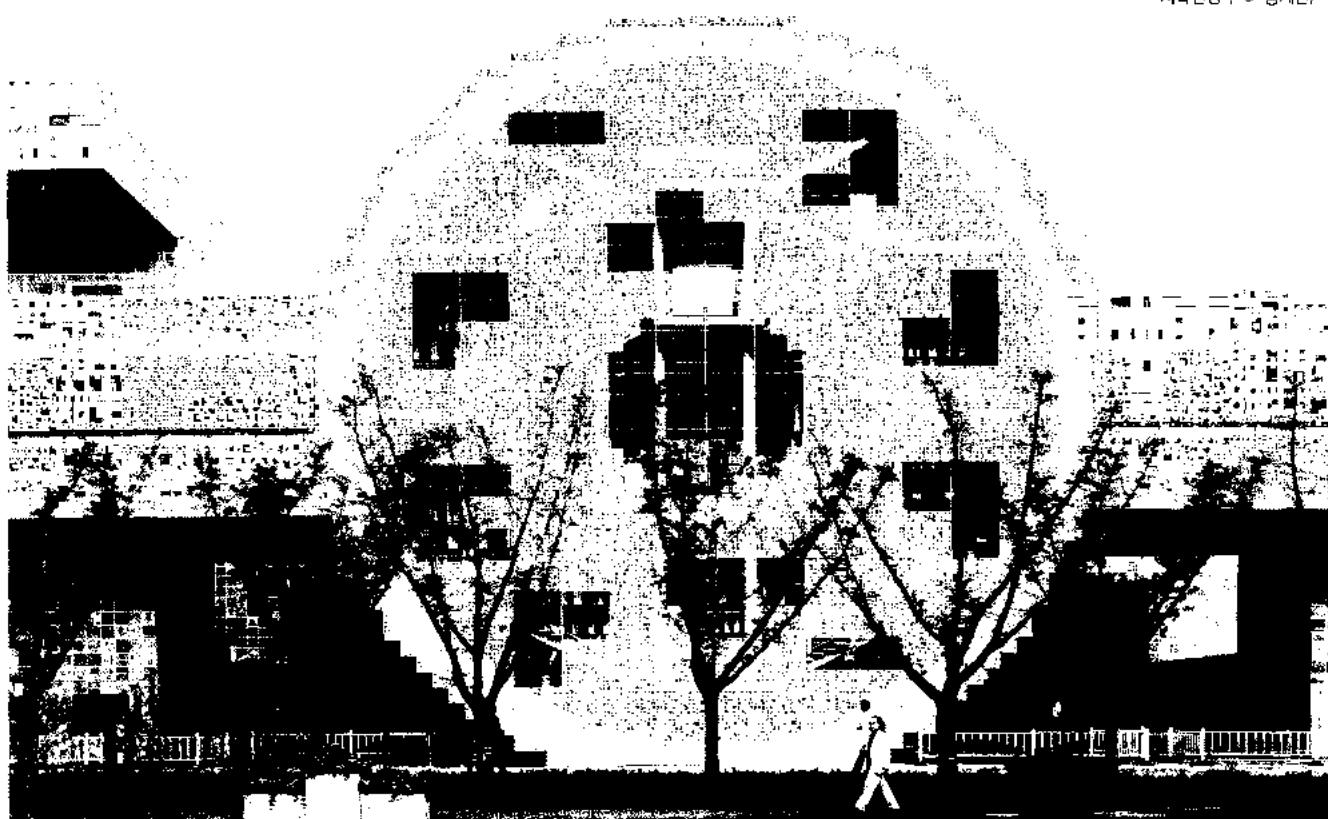


일본 전에서 한국화를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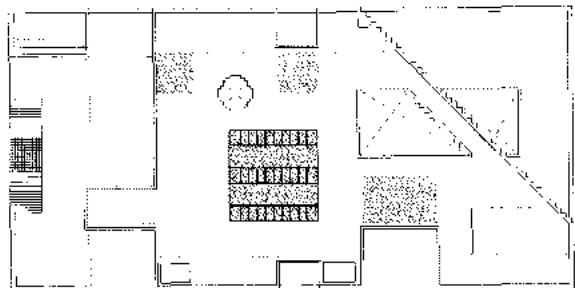


동쪽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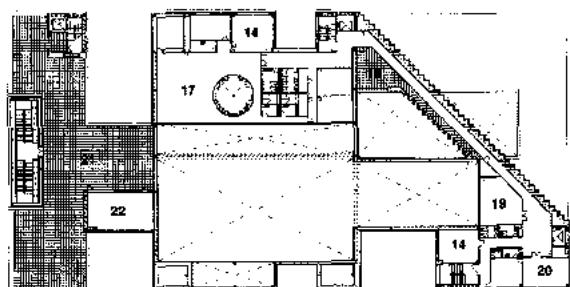
서쪽전경 ('O'형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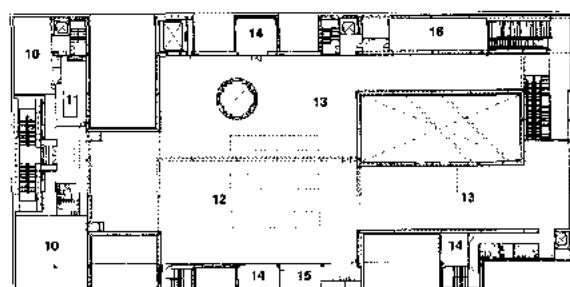
01_ 주입구	07_ 한식문화 흥보관	13_ 전시실	19_ 브리스톨
02_ 관광객 대기연	08_ 공연자 대기실	14_ 공수실	20_ VIP승강실
03_ 이외 공연장	09_ 수출 /	15_ 영상 제작실	21_ 옥상 테리스
04_ 이외 적색	10_ 시연	16_ 전시 제작실	22_ 스낵코...
05_ 기념품 매장	11_ 수방	17_ 사무실	
06_ 전기실	12_ 영상실	18_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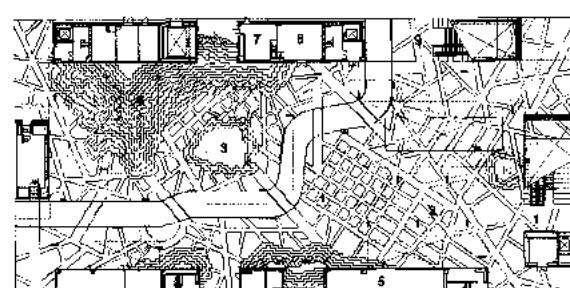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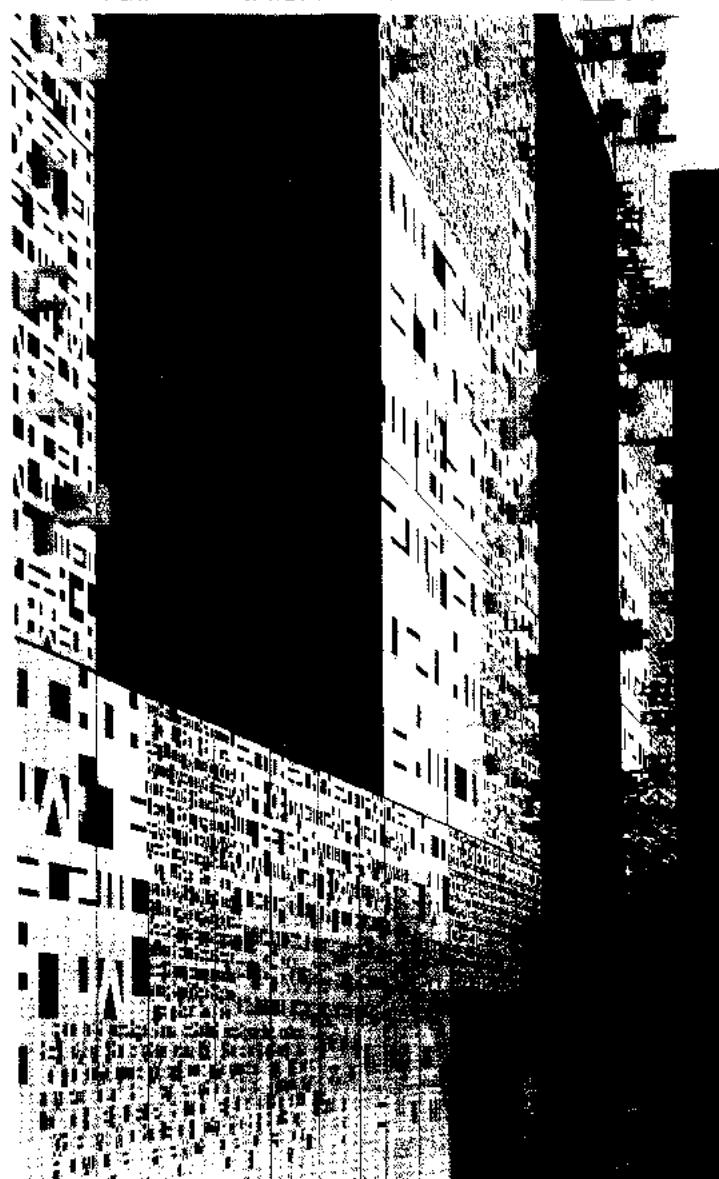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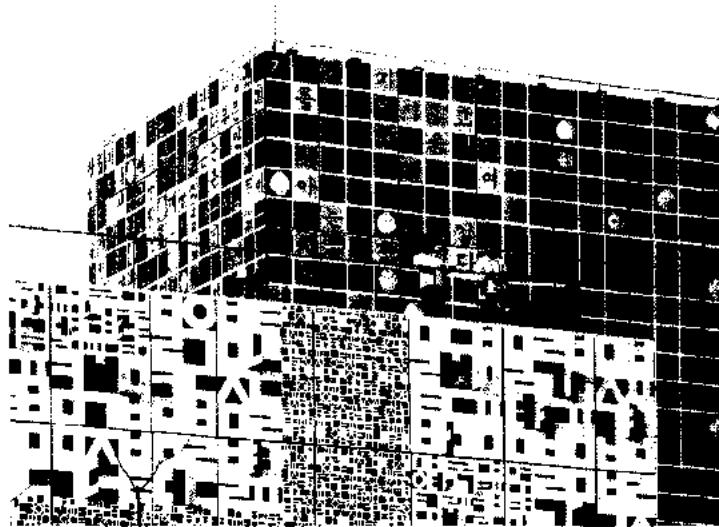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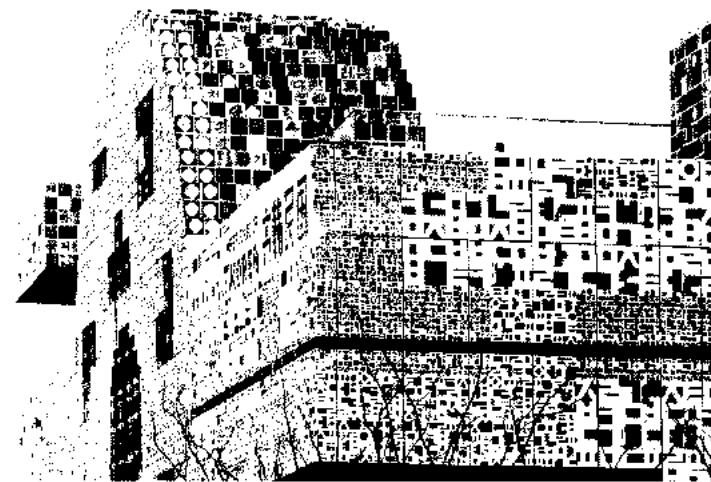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5 10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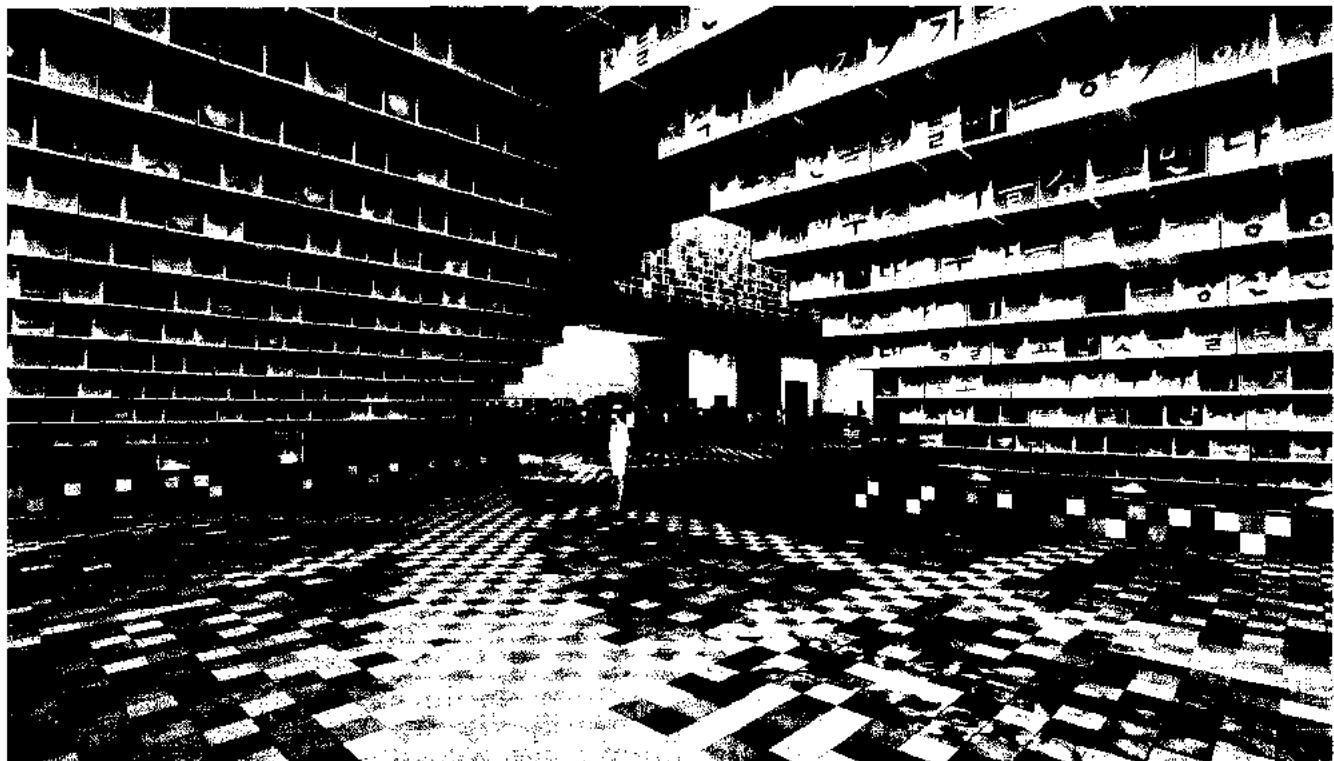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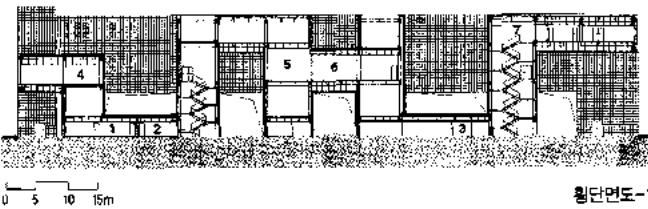
0 5 10 15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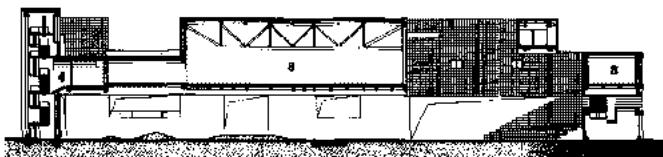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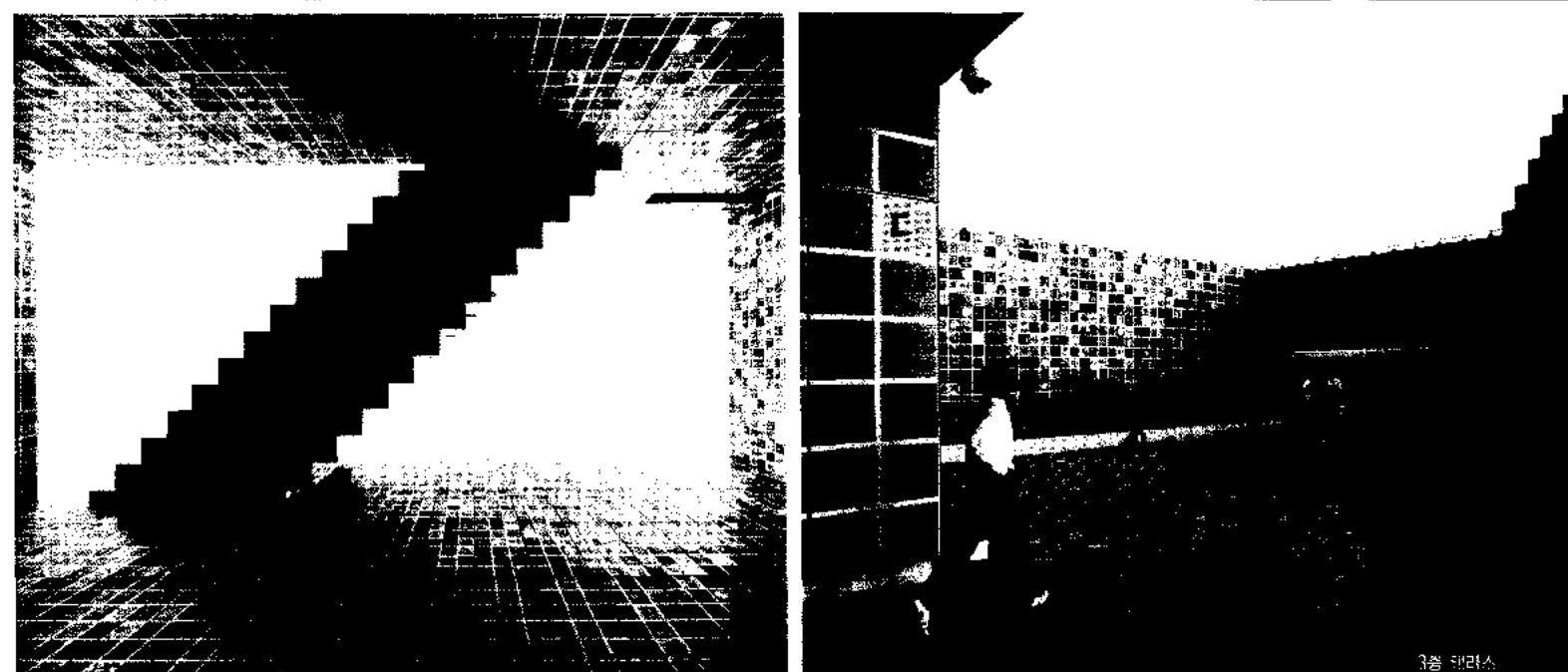


횡단면도-1



횡단면도-2

- 01. 전기실
- 02. 보안실
- 03. 기념품 판매점
- 04. 식당
- 05. 공조실
- 06. 영상 제어실
- 07. VIP 회의실
- 08. 전시실



3층 멀리스

# 포천시립 소흘도서관

## Pocheon City Soheul Library

윤상국 / 정희원, (주)관 건축사사무소

### 도시와 자연의 연결로서의 공공도서관

**기본개념** 포천시립도서관은 도시와 자연이 접하는 송우택지개발지구의 경계부를 따라 자리하고 있다. 도서관으로서 도시와 자연의 연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과 맥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일상적 삶의 여유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휴식과 체험 그리고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공공시설로 제작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식, 경험등이 상호 하이퍼링크 되어지길 기대하며 제작한다.

- 도시와 자연의 맥락적 수용\_ 도시와 자연의 흐름을 수용하고 각각의 특성을 투영한 조화된 이미지 형성
- 공존과 체험적 공간 계획\_ 다양한 이용자의 수용을 고려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체험적 공간 계획
- 서술 구조의 환유적 외부공간 계획\_ 책의 서술적 나레이션을 외부공간 구성에 환유적인 방법으로 도입하여 행위와 선택에 의해 변화되는 외부공간 계획

**내지계획** 북서쪽의 경사진 진입 도로에서 자연스러운 접근 동선을 확보하고 그 동선에 따른 다이나믹한 씨퀀스를 형성시켜 난계적이며 친밀감을 유도한 배치를 계획하였다. 도서관은 도시쪽과 자연쪽으로 각각 놓인 관리동과 열람동으로 나뉘고, 이 서로 다른 특징을 시킨 2개의 배스는 주변 환경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와 자연의 흐름을 수용하고 각각의 특성을 투영한 조화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2개의 배스 사이 공간은 도서관의 입구이자 자연으로의 통로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공간은 코어가 될 것이며, 지형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중심이 된다.

Pocheon City Soheul Library / Public library as a connection with urban and nature

**Basic Concepts** Pocheon city library is located along the boundary of Songu housing development districts, on the border between city and nature. So an exploration of connection with urban and nature motivated the design response to program and context.

Free of the daily lives of the rich taking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experience of relaxation and community offers a mixture of public facilities and a library focusing on knowledge, experience and hope to have this interaction and offers a hyperlink.

- Contextual nature of urban and acceptance / City and nature to accommodate the flow of Projected onto the attributes of each image formation mix
- Co-existence and the experiential space planning / Consider acceptance of a variety of users and Experiential space planning through various channels
- Metonymy in narrative structure, external space planning / Descriptive narration of the book comprehensively exterior space way in the introduction to the activity and selectivityChanges planned by the outer space

**SITE Plan** Cannot enter the northwest side of the road approaching the copper wire to secure the natural circulation due to the formation of dynamic ssikwonseureul induced by phased deployment was planned and intimacy.

This library is divided generally urban and eco-axis into management and library zones and these two masses, each with a unique exposure, allow connection to the environment. And which is accept the urban flow and the landscape, and form a symmetrical image by each reflected characters.

The space between two massing elements form a gateway of library and a passage to the nature. And this space will be the ore that is the geographic and programmatic center of library. ■

Architects Yoon, Sang-guk, KIRA

Project Team Kim, Hyun-duk · Kim, Hag-yeong · An, Jeong-su

Kim, Tae-ho · Kim, Hyo-jeong · Park, Min-Hyeong

Client Pocheon City

Location Gyeonggi-do Pocheon-si

Sohol-eup Songu-ri 728-7

Site Area 3,992.00m<sup>2</sup>

Building Area 622.91m<sup>2</sup>

Gross Floor Area 1,985.01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15.60%

Floor Area Ratio 41.29%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Song, Sung-young

HVAC Engineer Jeong, Woong-mo

Electrical Engineer Yoo, Jea-hwan

General Contractor Lee, Gyu-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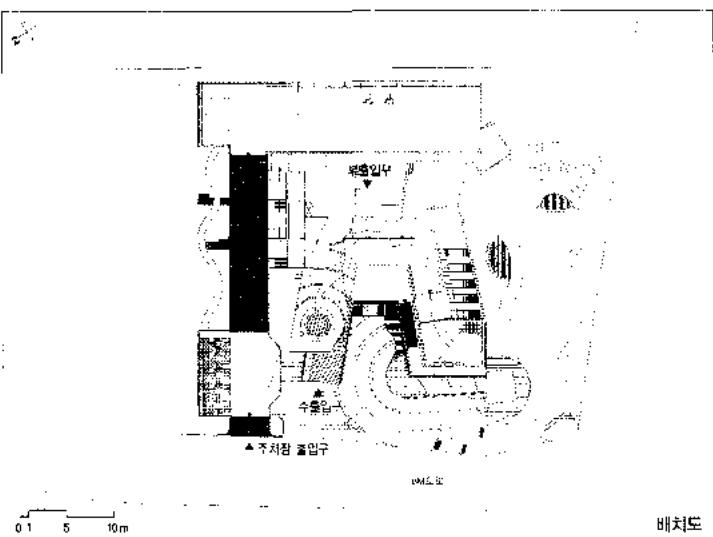
Building Scope B1, 3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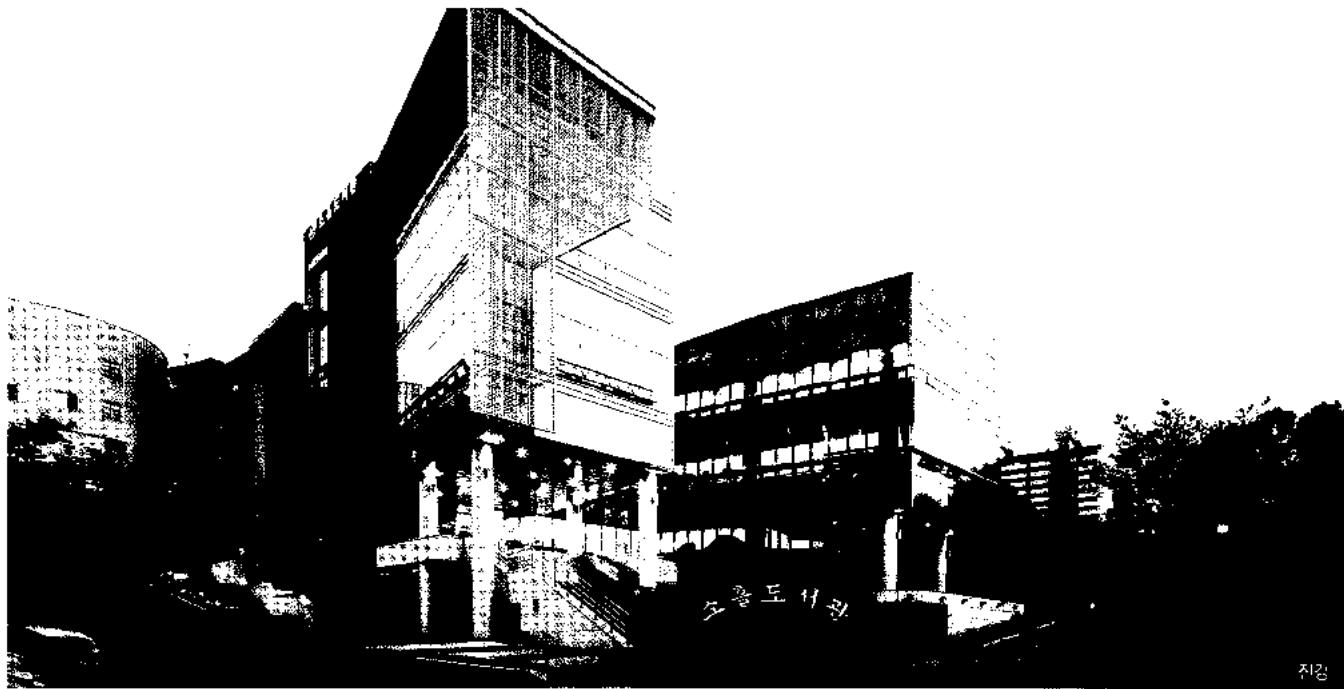
Finishing Materials DECO TILE, M.D.F & WATER PAINT, VINYL PAINT

Photographs not disclosed

Cost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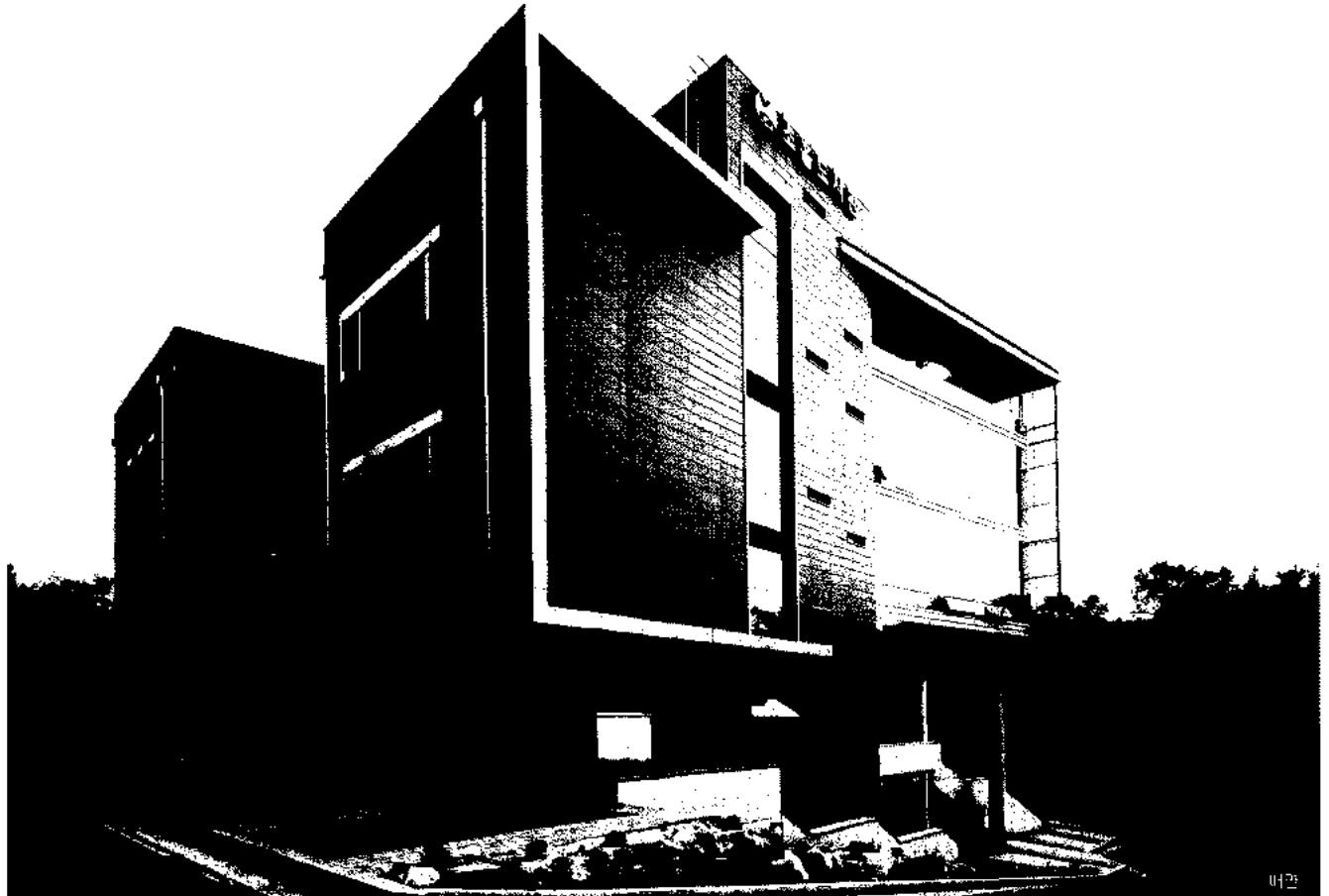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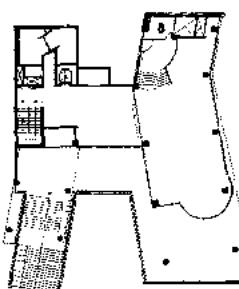
전경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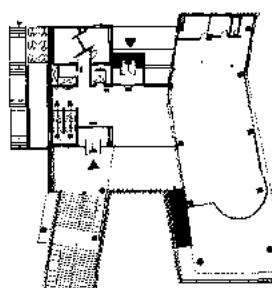


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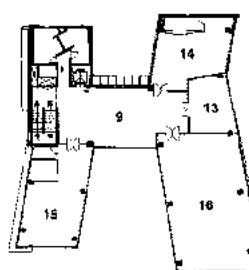


1층 상부 이야기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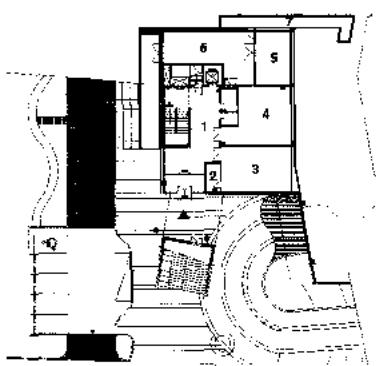
- 01\_홀
- 02\_조경실
- 03\_세미나실
- 04\_문서고
- 05\_전기실
- 06\_기계실
- 07\_PIT
- 08\_PLAY RM
- 09\_로비
- 10\_통합자료실
- 11\_디지털자료실
- 12\_시버실
- 13\_회의 및 트贫困
- 14\_평생학습원
- 15\_사무실
- 16\_자유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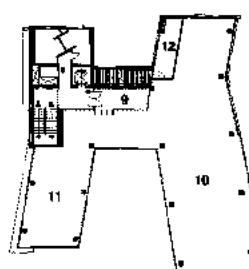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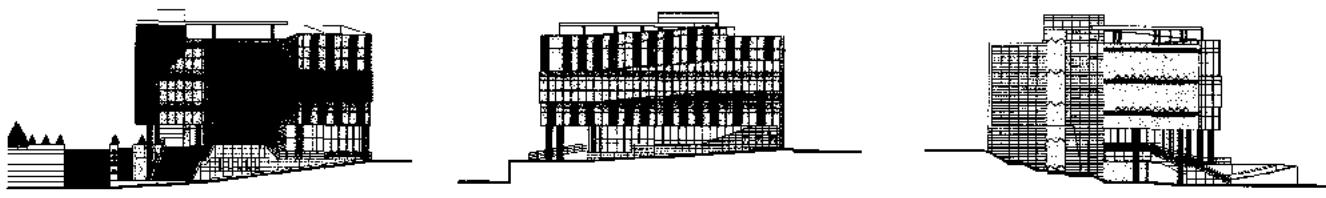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 4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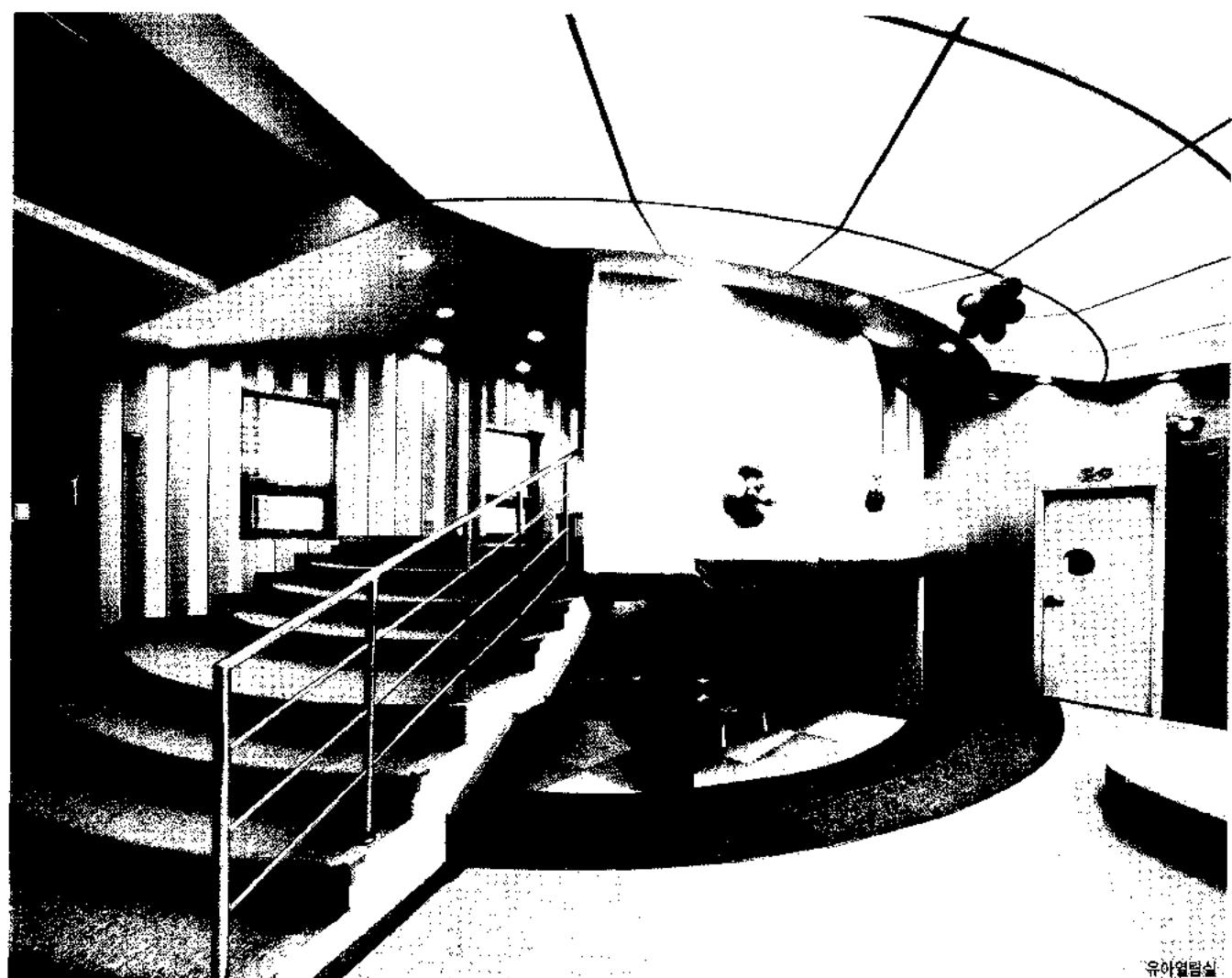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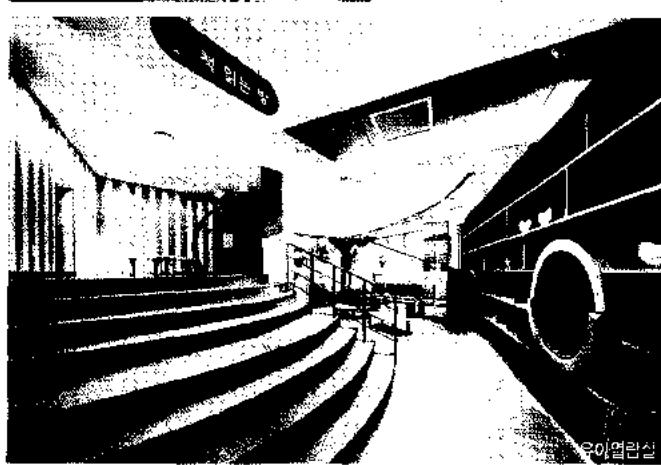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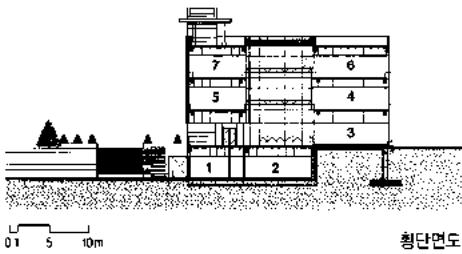
유아체육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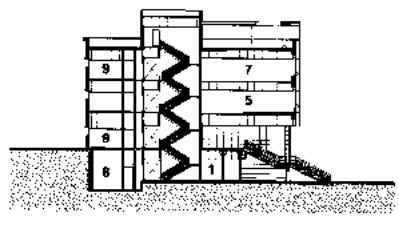
유아체육실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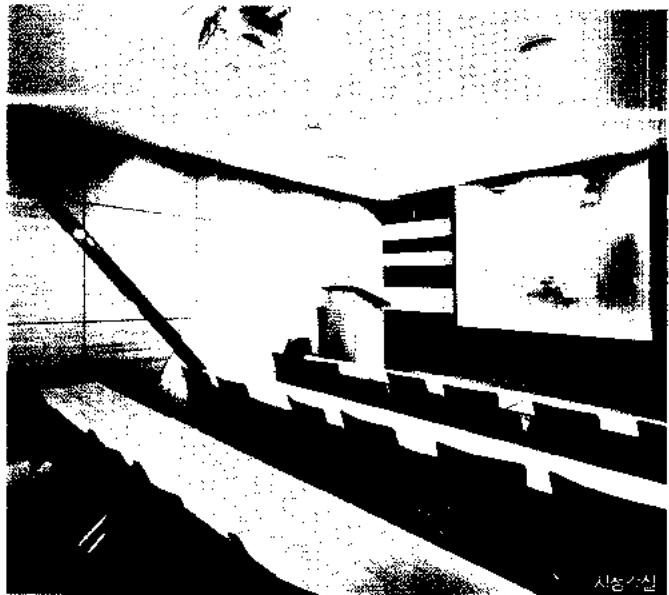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 01\_출
- 02\_서 미나실
- 03\_가족열방실
- 04\_종합자료실
- 05\_디자ઇ너로실
- 06\_자유영량실
- 07\_사무실
- 08\_기계실
- 09\_하장실



시승간실



#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Songdo New Campus University of Inchoen

이필훈 / 정희원, (주)점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천대학교의 송도 신캠퍼스 건립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전환의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학의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캠퍼스의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이다.

교육기관 특히 대학의 연구활동 패턴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각 연구 분야의 독립된 공간에서의 연구활동을 하는 형태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을 창조하고 있다. 따라서 송도 신캠퍼스는 이러한 요구에 의한 캠퍼스 배치계획과 공간계획에 집중하였다.

캠퍼스는 중앙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 및 프로나드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장소로 이용 가능하게 하였고 연구실, 실험실, 강의실은 공용공간을 통하여 각 과별, 각 단과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앞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캠퍼스라 할 수 있다.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ampus of Inchon University at Songdo establishes two great values. One is that Inchon University is facing a new era through its status change to a national university, and the other is that it suggests a new vision for a new campus through the change in the university's research environment.

Educational institutions, especially universities are now confronting many changes in research patterns. Researchers in the former independent space of each research area are now conducting integrated researches of different academic areas, developing to new studies and technologies. And therefore, suiting these needs of changes was focused in the zoning and space planning of the new Songdo campus.

The campus is planned to serve as a communal place through the Meeting Plaza and the promenade at the center. Also student exchange activities are encouraged through the communal spaces near laboratories and lecture rooms, removing barriers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The new Songdo campus of Inchon University is a progressive campus corresponding flexibly to the diverse research activities. ■

Architects Lee, Pil-hoon, KIRA

Project Team Kyung, Min-ho · Chae, Sung-kyu · Kim, Jong-ho · Lee, Won-ho · Lee, Myung-jin · Yun, Hee-jun · Kim, Jin-goog · Choi, Ha-ean · Chang, Seung-ju  
Client Incheon Univ.

Location Incheon-si Yeonsu-gu Songdo-dong 12-1

Site Area 458,504.80m<sup>2</sup> Building Area 57,944.57m<sup>2</sup>

Gross Floor Area 216,087.86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12.64%

Floor Area Ratio 35.54% Structure R.C, S.C

Structural Engineer 1st structure solution HVAC Engineer Jungdo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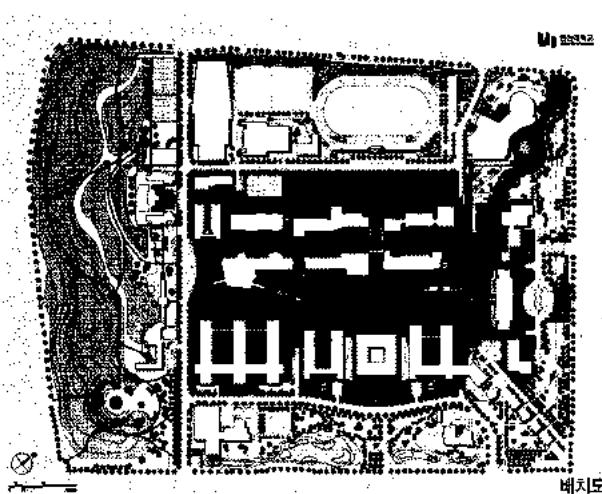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NARA Technology corps + JUNG 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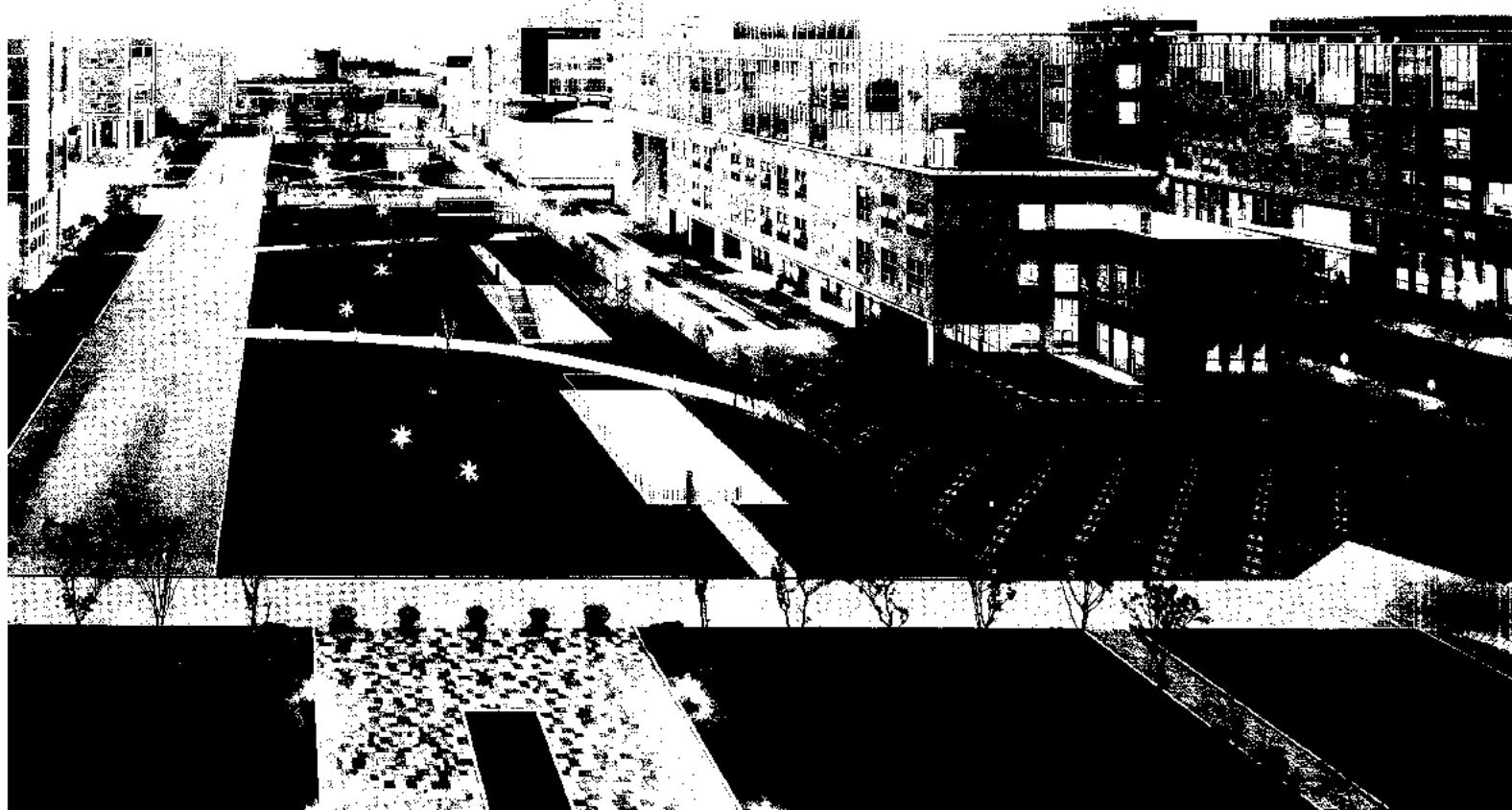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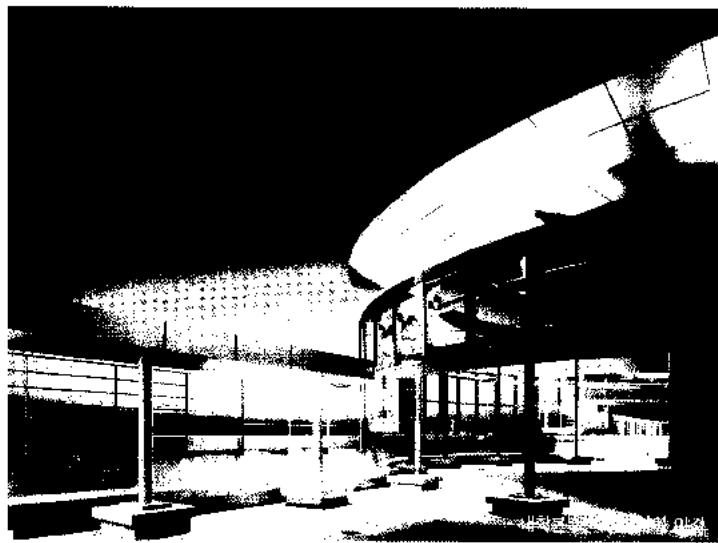
General Contractor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Building Scope 5stories above ground and 1 under ground level(Dormitory : 13 stories above ground). 26wings.

Finishing Materials Sandstone, granitestone, pair-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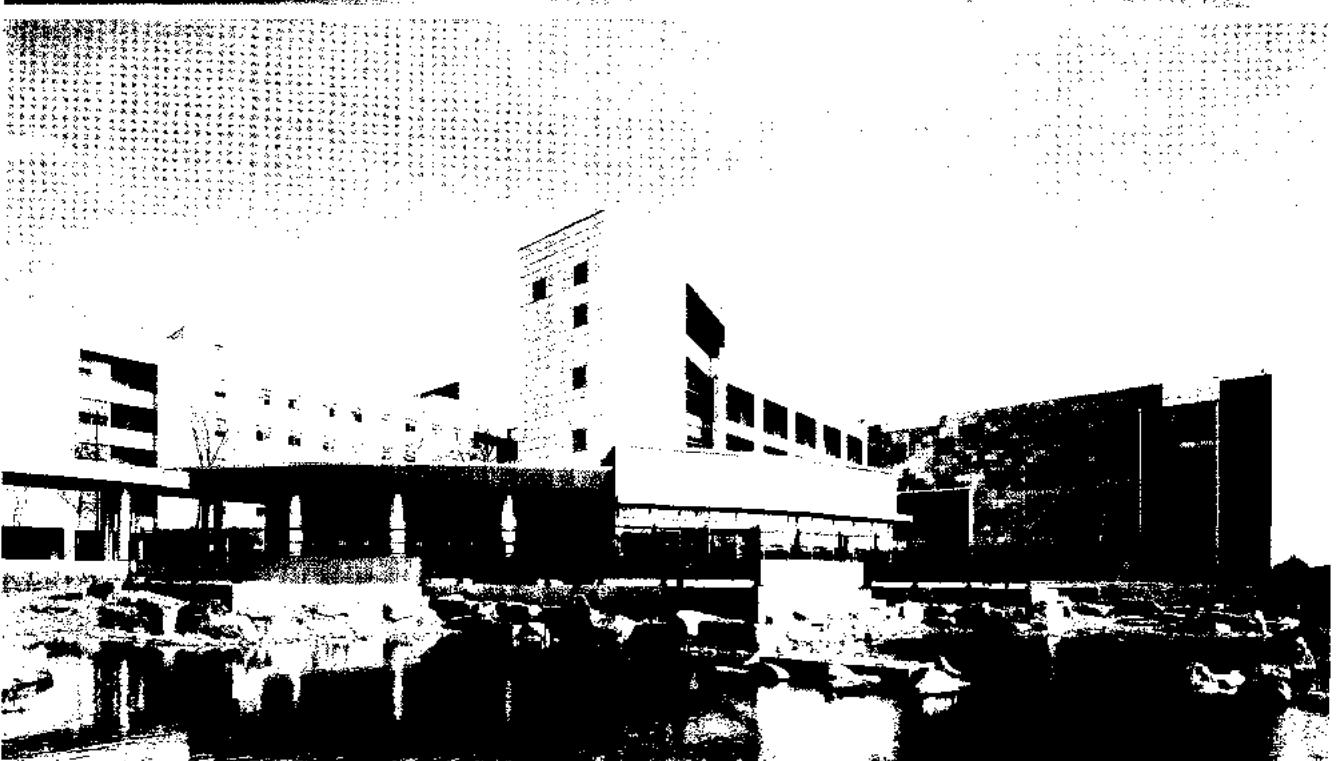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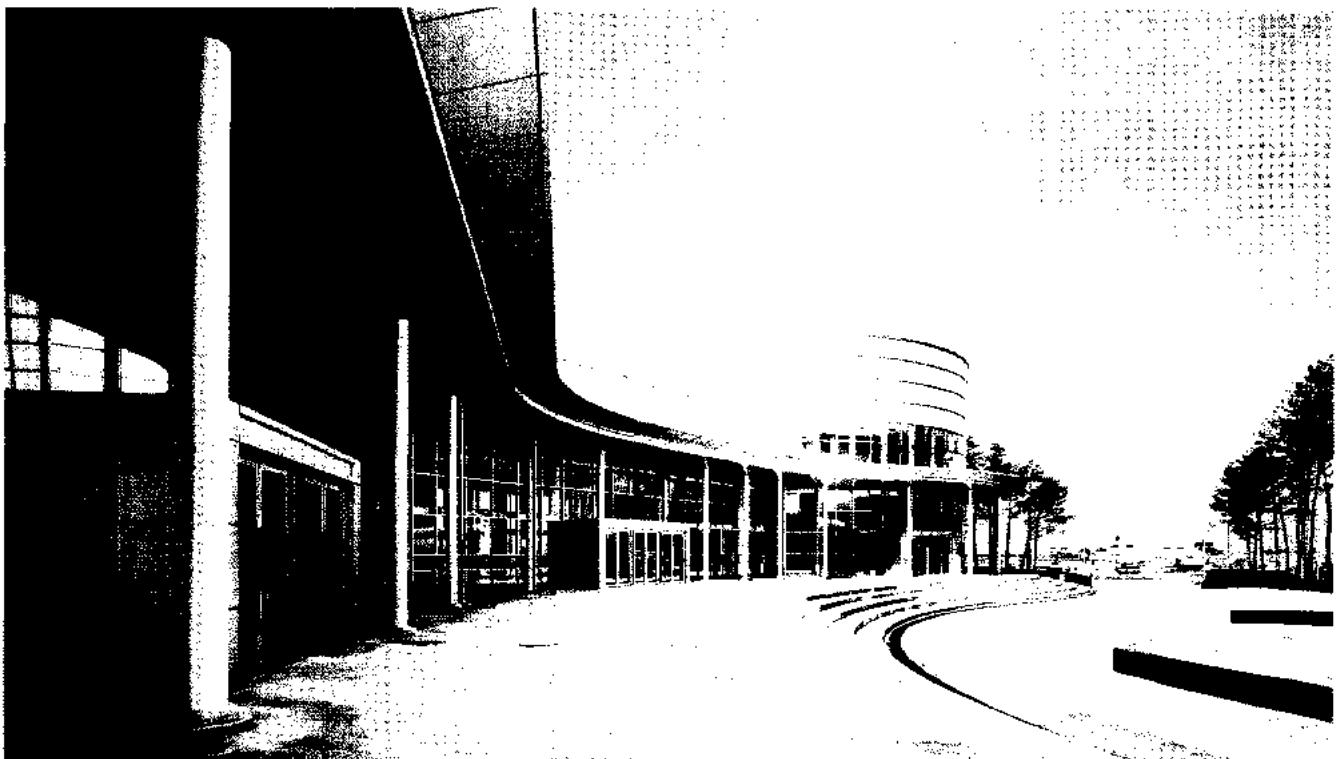
Photographs not disclosed Cost 450 bn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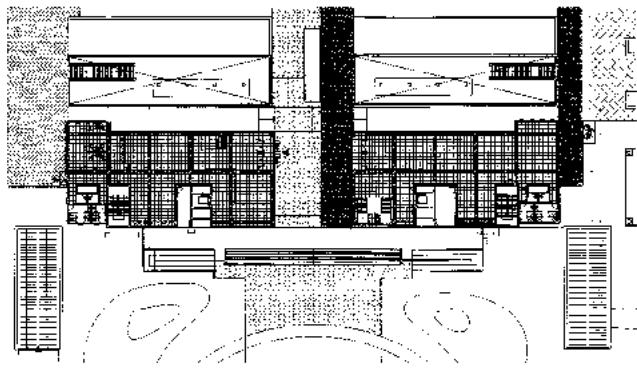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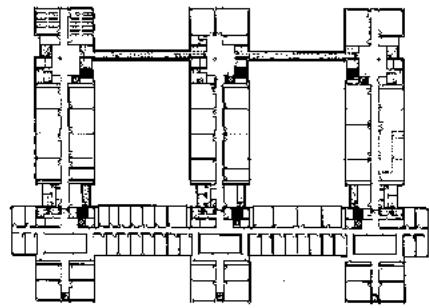


대학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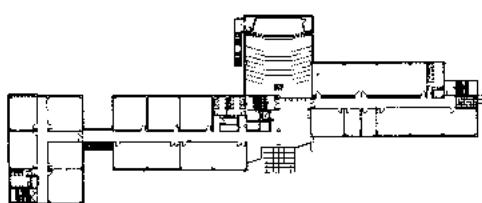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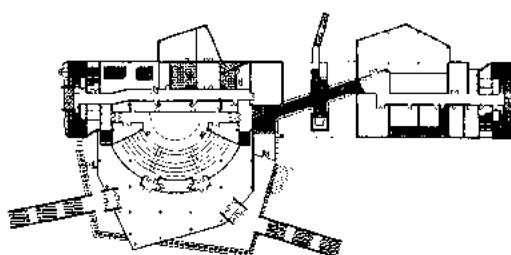
대학본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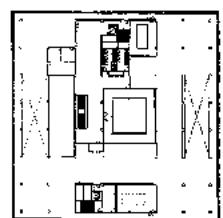
공과대학 2층 평면도



인문대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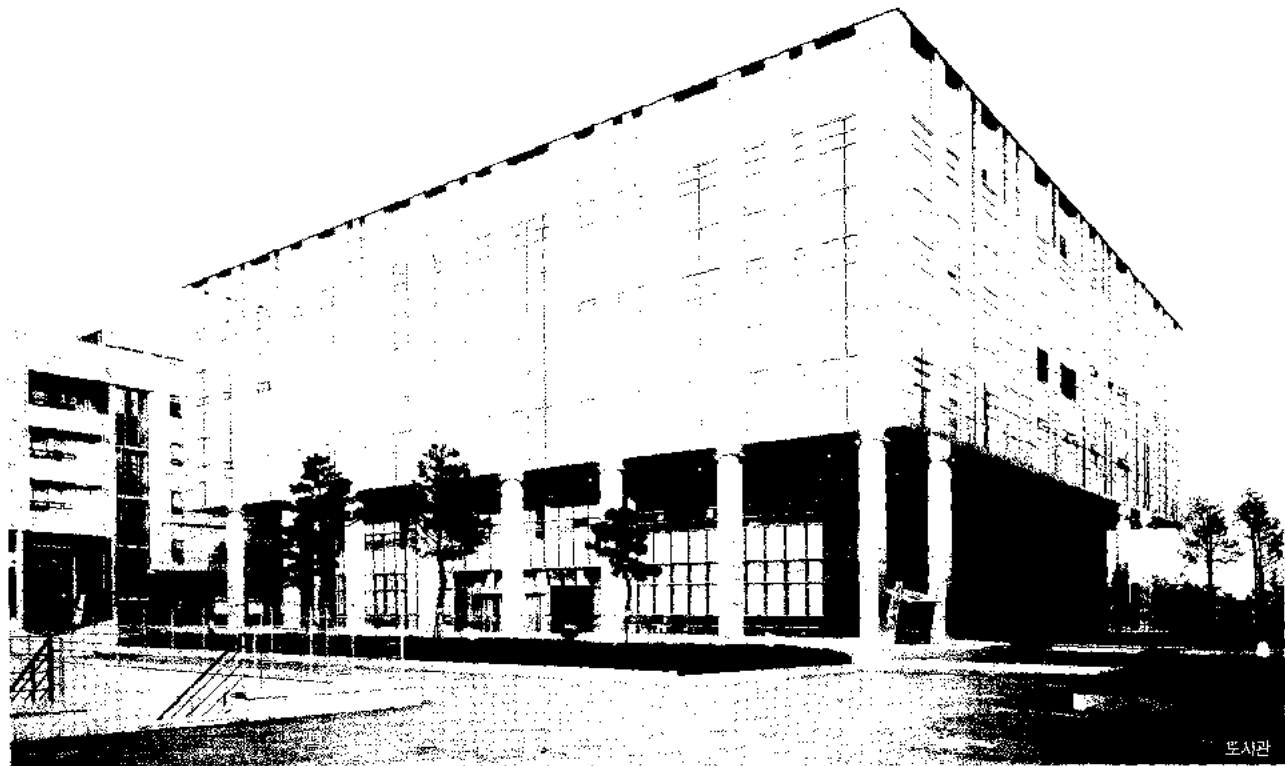


도서관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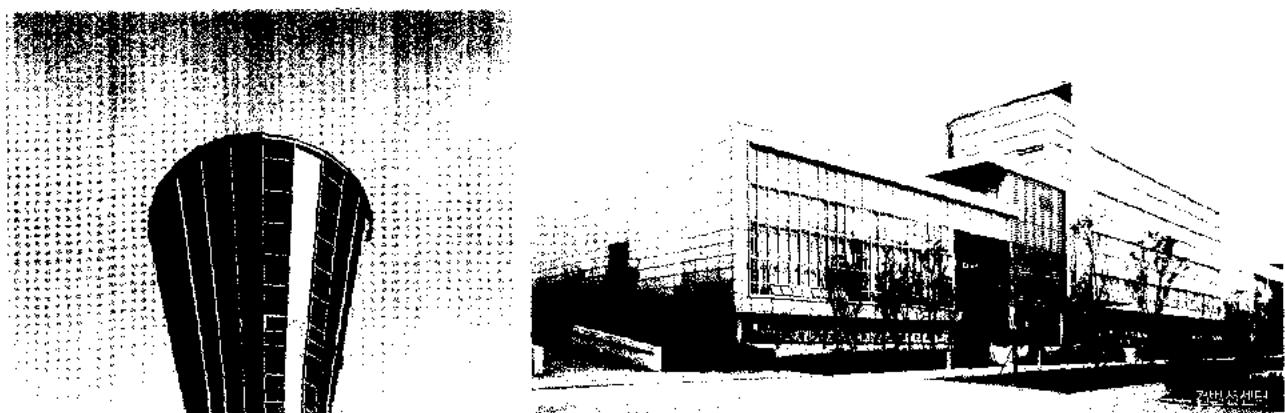


복지회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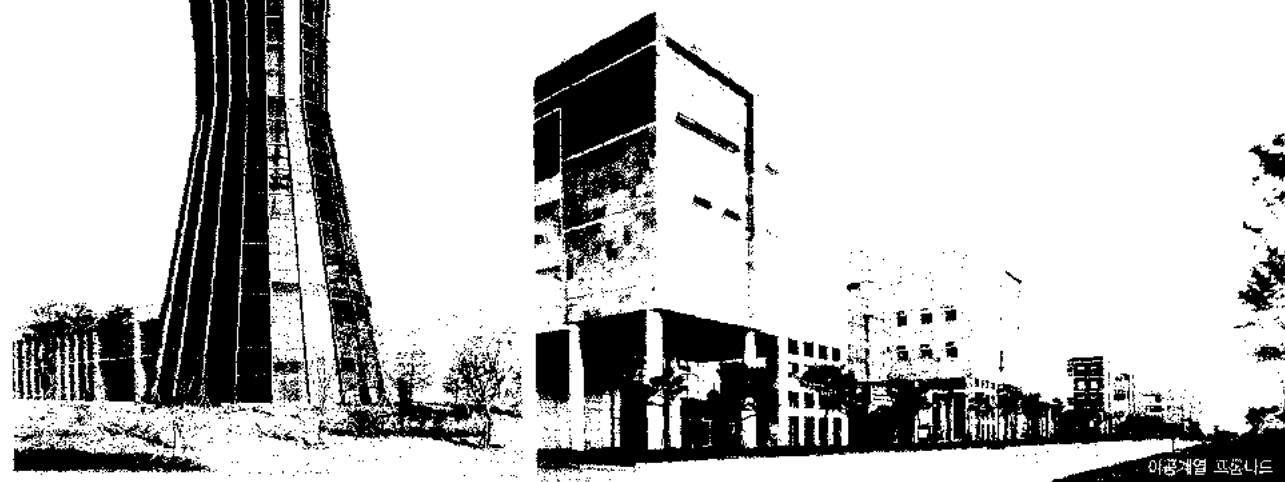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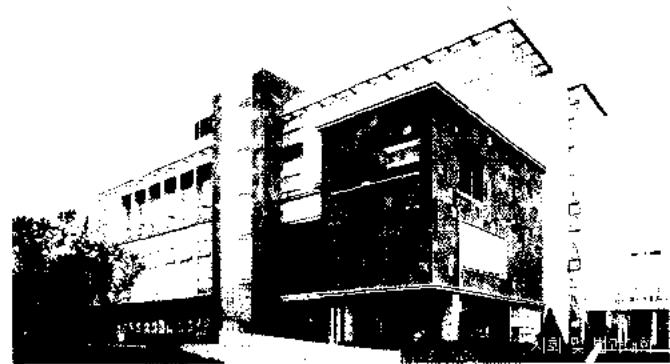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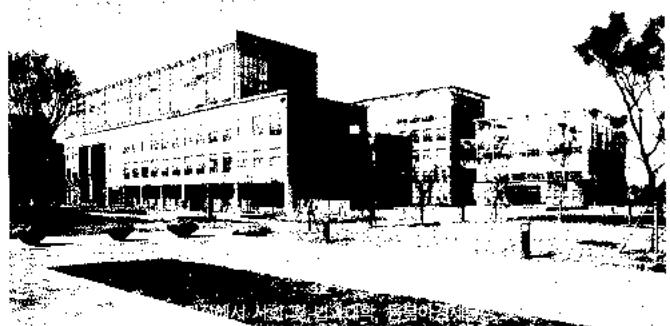
포사관



김민정센터



아동체육 프로나드



# 인천도시계획관

## Compact Smart City

조주환 / 정희원 · 정근수, (주)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이 작품은 (주)시아플랜건축의 턴키 현상 당선작으로 '2009 인천세계도시 축전'의 행사에 맞추어 2009년 7월에 개관된 전시시설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였고 '2009 인천광역시 건축상'을 수상 하였다. 건축면적 2,708m<sup>2</sup>, 연면적 8,444m<sup>2</sup>,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률 높이가 28m에 달하는 단일 Mass형 건물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하여 70m 주도로 1개소와 센트럴파크를 접하고 있다.

주도로축에 의한 도시의 Context를 해석하고 이에 순응 하고자 공원의 인접부분과의 연속성, 융합을 위한 조경공간의 계획과 시설물들의 배치 및 계획에 많은 고민을 하였다.

Urban Axis와 Green Flow의 순응을 위한 전면부의 평면적 2단 setback, 건물과 외부공간이 접하는 부분의 수공간 설치로 자연적인 요소의 원활한 유입, Glass 소재와 solid한 Metal Panel의 다양한 각도와 과감한 나누기, 자붕재의 변화된 입면 연출로 구성이 된 외관은 human scale의 부담감을 오히려 가볍고 부드럽게 순화시켜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유인 할 수 있는 입면으로 디자인을 하였다. 전시시설의 천정고는 6m로 계획 되었으며 전시공간 zoning은 관람자와 전시물의 특성, 전시 하고자 하는 Concept을 반영하여 자주하지 않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계획 하였다. 1층에는 20m의 천정고로 계획된 Main Lobby, 상설전시장, 기획 전시장 그리고 5D 영상실이 설치되었고, 2층에는 30m×32m의 인천시 모형관, 체험전시실, 기획 전시실, 3층에는 IFEZ 모형관, 120석 규모의 360도 원형공간으로 계획된 4D 영상실, 세미나실, 사무실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집열판(BIPV)을 지붕에 설치하였다. 관람객을 위해 iPOD 안내 시스템 설비를 도입하여 관람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담긴 '인천도시계획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발전적인 인천의 모습에 환호하고 응원 할 수 있도록 아울러 기원 하는 바이다.

This is a Turn key winning project by SIAPLAN which construction completed on July 2009 for its purpose as a exhibition hall for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The project has won 2009 Incheon architecture prize. The 5 stories building which has building area of 2,708m<sup>2</sup>, total floor area of 8,444m<sup>2</sup> and building height of 28meter, is located in Songdo district nearby one main road and the Central park. The project has its focus on the mass layout and landscape programming for the continuity from the Central park and to understand and verify the urban context from the main road.

The front facade was moved back 2 steps for the link with urban axis and green flow. With water ponds, nature friendly spaces was created where the inner and outer spaces meet. Dynamic design approach was made with the roof design with differences in angles and different feelings in materials. The roof design could turn its large scale into human scale by softening the feeling of facade that could welcome visitors into the exhibition hall. It is designed to have 6meter ceiling height and exhibition zoning which would make comfortable experience. The ground floor consist of 20meter high main lobby, regular exhibition, special exhibition and 5D theater. The first floor has 30meter x 32meter Incheon city model room, experience space and special exhibition. On the second floor, there are IFEZ model room, 4D theater, seminar room, and office. BIPV was installed on the roof for energy saving. iPOD guidance system is also adapted for visitor's convenience.

We hope the visitor's will understand and have expectations of bright future of the city of Incheon as they experience the spaces of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f this exhibition hall. ■

Architects Cho, Ju-hwan, KIRA · Cheong, Keun-soo

Project Team PM\_Baek, Won-hwa · Team\_Jang, Hang-jun · Lee, Yun-chang · Huh, Jae-seung · Son, Yong-won · Lee, Min-jeong

Client Incheon Urban Development Corp.

Location Incheon-si Yeonsu-gu Sangdo-dong 24-7

Site Area 7,715m<sup>2</sup>

Building Area 2,708m<sup>2</sup>

Gross Floor Area 8,444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35.10%

Floor Area Ratio 79.33%

Structure S.C, R.C

Structural Engineer Barun Structure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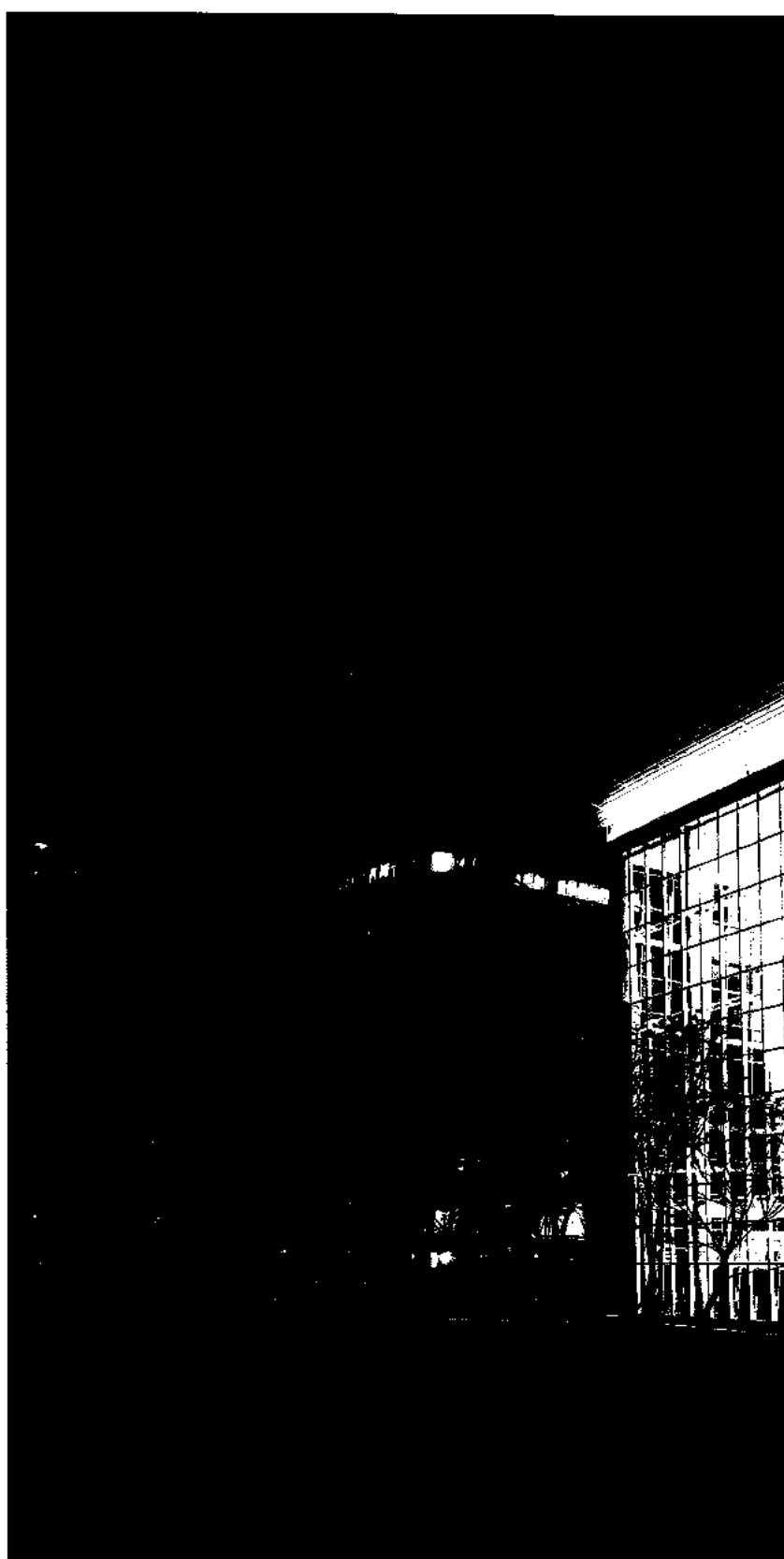
HVAC Engineer Samoo Mechanical Consult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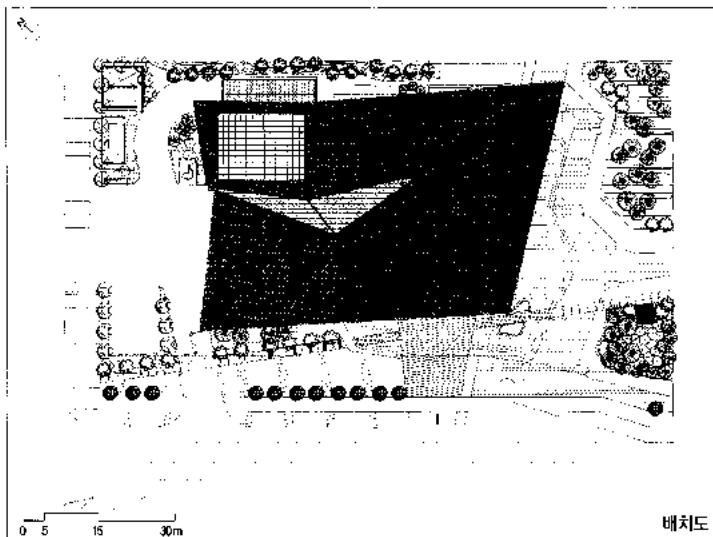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Kodug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Posco E&C, Poochang Building Scope B1, 4F

Finishing Materials Galvanized Steel Sheet, Curtain wall

Cost \$ 2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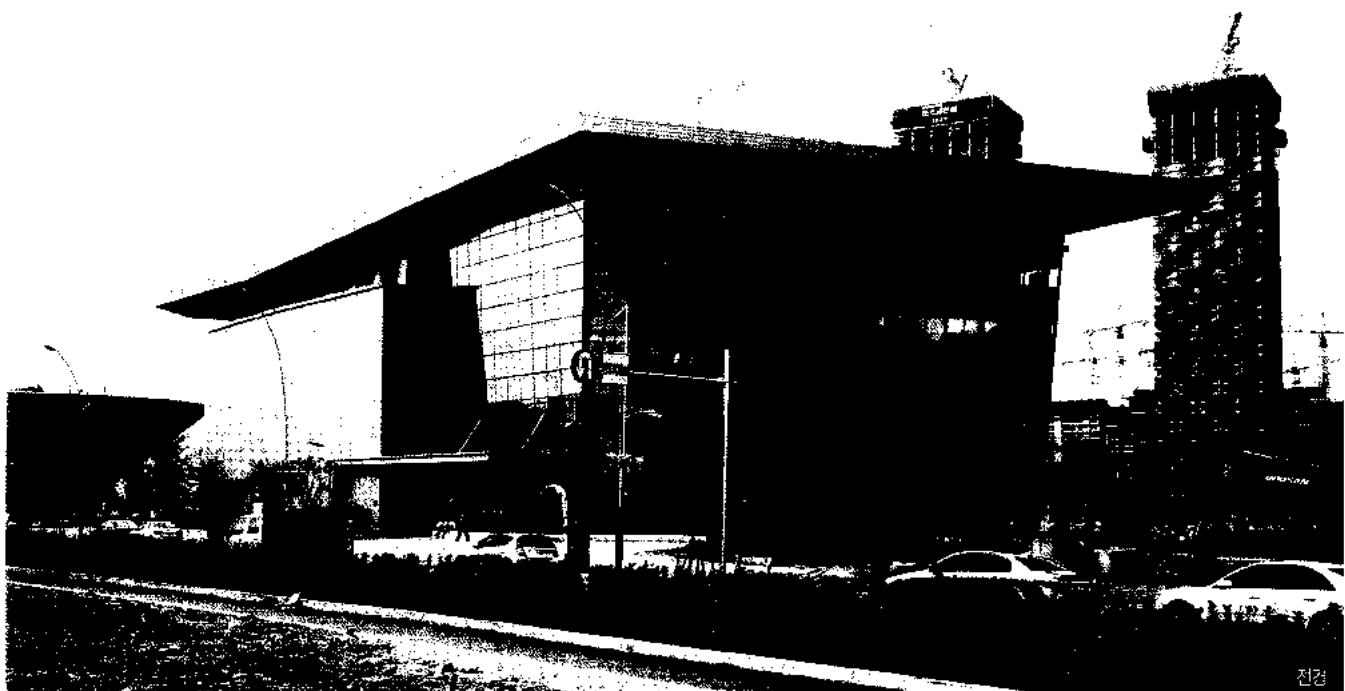




배치도

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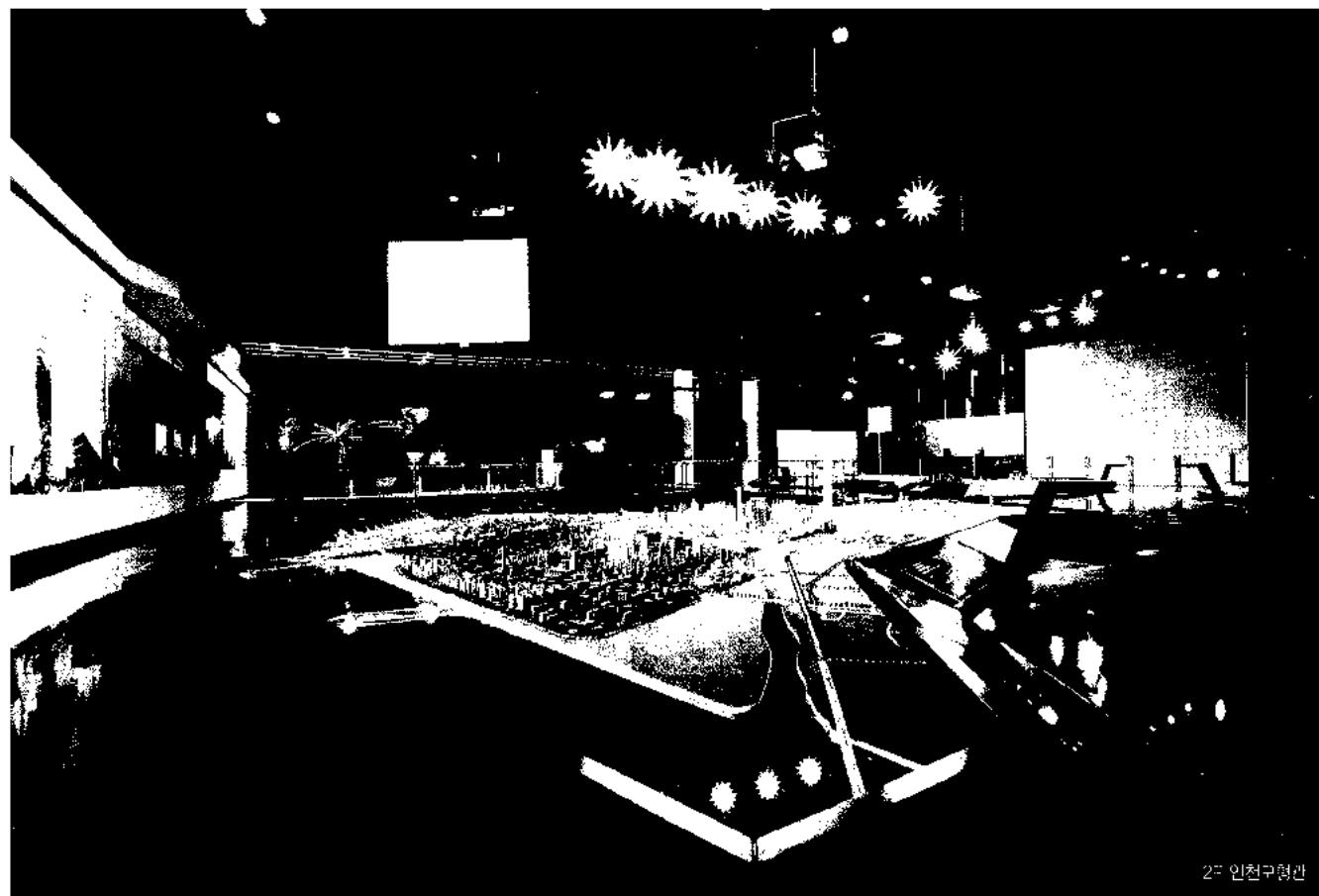
전경



농축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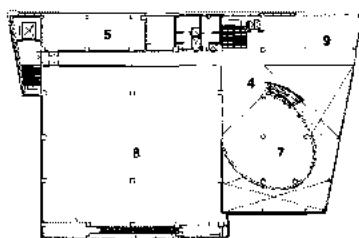


오부 수공간 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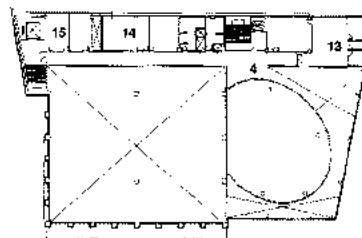


2층 인천구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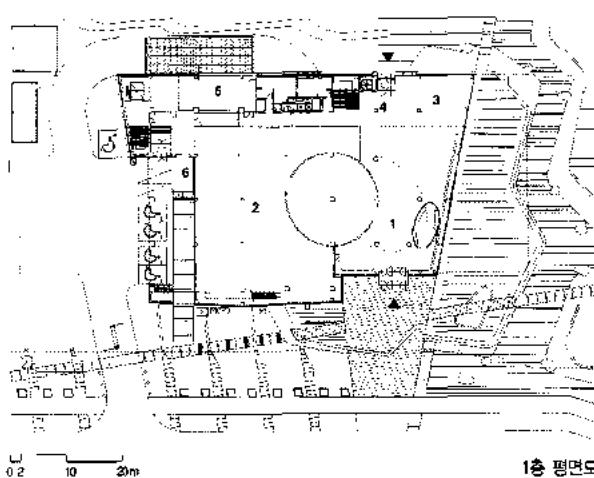
- |           |           |                |           |
|-----------|-----------|----------------|-----------|
| 01_ 브리    | 05_ 공조실   | 09_ 카페테리아/휴게공간 | 13_ 사무실   |
| 02_ 상설전시장 | 06_ 하이브리드 | 10_ 30명상실      | 14_ 학예연구실 |
| 03_ 기획전시실 | 07_ 체험관시설 | 11_ IFE2부정관    | 15_ 자료실   |
| 04_ 흙     | 08_ 만화도형관 | 12_ 회의 및 세미나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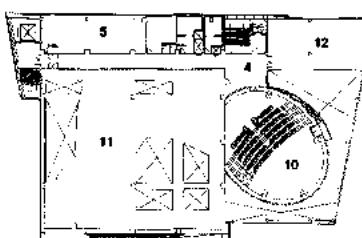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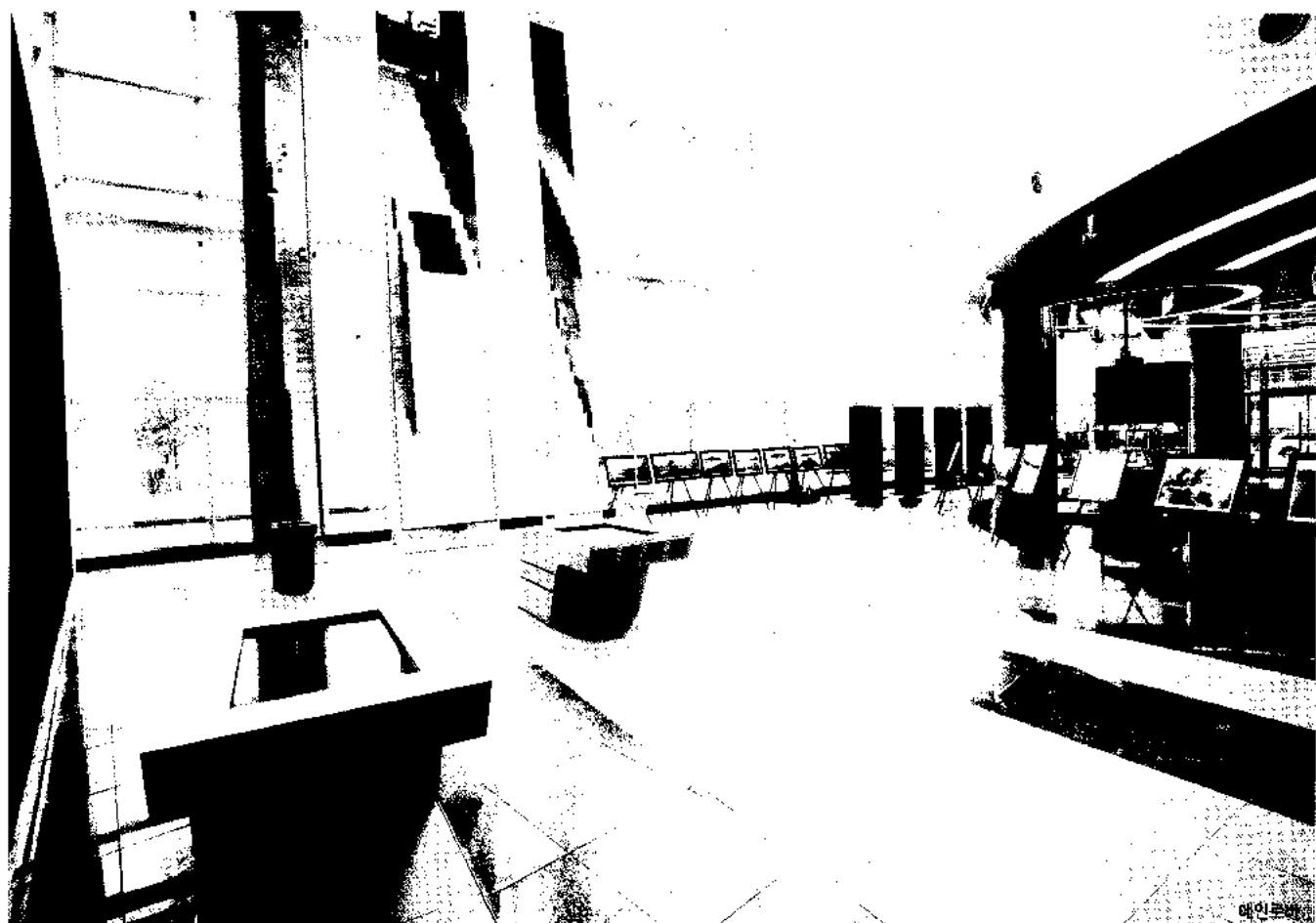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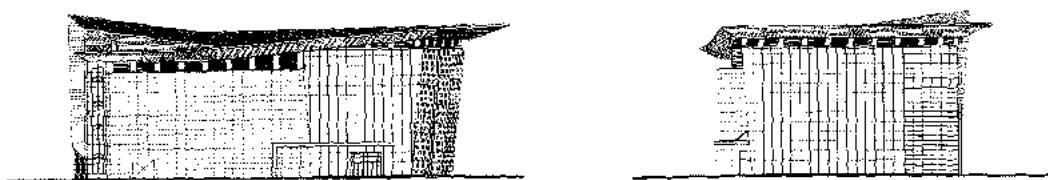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EIN COF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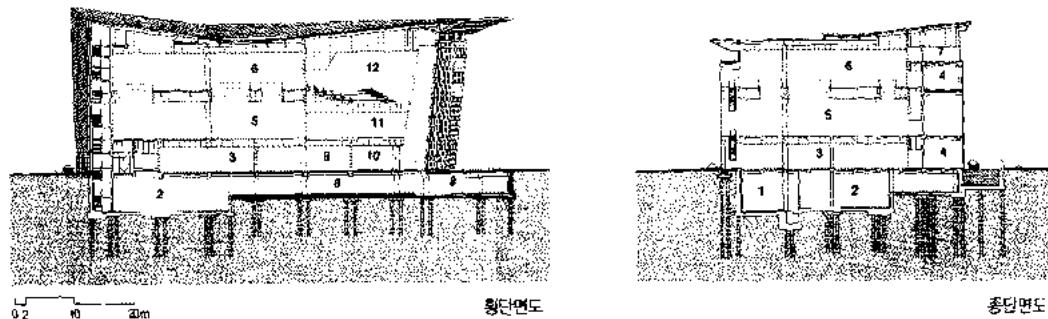


5D영상관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 |           |             |           |
|-----------|-------------|-----------|
| 01. 물탱크실  | 05. 인력도계관   | 09. 40명상상 |
| 02. 기자실   | 06. IFEZ호텔관 | 10. 로비    |
| 03. 상설전시실 | 07. 회의연구실   | 11. 세미나시설 |
| 04. 경소장   | 08. 사무주차장   | 12. 30명강당 |



2F 체현전시실

# 롯데국제교육관

## Lotte International Education Hall

안우성 건축사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안우성 건축사는 착실히 기본기를 다진 건축사로 보여졌다. 그의 수련 과정과 관심분야를 보면 매우 전고한 과정을 거쳤고, 실용적인 설계에 능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안건축사와 온고당은 그런 기반 하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견된다. 지금도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하겠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건축을 많이 하길 기대한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유정훈(이하 유) : 안녕하세요. 이렇게 빨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인수(이하 박) :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인터뷰의 성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건축에 대한 설명보다는, 좋은 건물을 만들어 내는 주체로서의 설계사무실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도입니다. 또 현재 아주 유명해진 분들보다는 곧 유명해질(?) 분들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에 관한 인터뷰나 담론은 종종 있는데 비해 설계사무실에 대한 내용은 별로 다뤄진 바가 없어서 말이죠. 우리와 같은 인터뷰가 아마도 국내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안우성(이하 안) : 참 재미있군요. 건축사사무소가 어떻게 만들 어졌느냐, 또 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유 : 우리네 건축실무에서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뭐 워낙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나? 하는 식의 토로함도 좋겠고, 건축사사무소를 둘러싼 건축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기 위함도 이 인터뷰의 목적이지요.

• 박 : 또한 한 건물을 계약하고, 설계하고, 허가받고, 납품하는 설계 과정 중에서 생긴 문제도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서의 건축사의 역할과 준공의 문제도 다룰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건

축에 대한 내용도 다룰 수 있다면 다루도록 하지요.

- 안 : 건축에 대한 내용이 짧아서 좋네요. (웃음)
- 박 : 네, 건축에 대한 내용이 흥미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간 다른 협회나 언론에서 건축에 대한 내용은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유 : 그러면, 각설하고 시작하실까요? 우선, 사무소 이름이 온고당이네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에서 나왔겠지요? 소개해 주세요.
- 안 : 직고하신 저희 선친께서 동양화를 하셨는데, 50년대에 서울에 오셔서 안국동에 있는 덕성여중 교정 안에 조그만 관사에서 화실을 운영하셨지요. 그 화실의 이름이 온고당이란 한옥이었어요. 당시에 선친은 마흔이셨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시인 고은 선생님 등 예술계의 여러분들이 밤에 방문하셔서 밥 얻어먹고, 술 드시고, 이야기 나누시던 장소였습니다. 학교 교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월담을 하여 들어를 오셨다고 해요. 사랑방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요. 비록 제가 선친이 작고하신 한참 후에야 사무소를 열었지만 옛날의 그러하였던 사랑방의 역할이 좋아서 그 이름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 유 : 선친께서는 온고당에 얼마나 계셨나요?
- 안 : 1950년대 후반에는 덕성학교 선생님을 그만 두시고 성신여대로 옮기셨습니다.

• 박 : 그 온고당 건물이 아직 남아있나요?

• 안 : 지금은 없어졌지요. 덕성여대에서 그 건물을 산 꼭대기에 새로이 지으려고 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 박 : 사무소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 안 : 2001년도입니다.

• 박 :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나요?

• 안 : 사람마다 창업하기 전 과정이 모두 다르겠지요. 저는 1991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한 뒤 유길 선생님하고 6개월 정도 함께 일을 하고, 병원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공간체계연구소라는 곳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곳이 한양대학교 이정만 교수님께서 연구하시고 작업하시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현대아산병원 B동을 세울 때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유Penn(U-Penn)에 2년간 유학을 다녀와서, 승호상 선생님 사무소인 이로재에서 한 5년 반 정도 근무하였지요. 그 때 승 선생님 사무실에는 워낙 일이 많았어요. 실제로 지어지는 건물도 많았어요. 그때에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사무소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로재에 한 3년 근무하고 큰 사무소로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입사를 하니 나올 수가 있어야죠. 한 12명 정도의 사무소였고 늘 야근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철아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생각하니 쉽사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 말에 건축사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1년에 정말 우연치 않게 개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리업무가 처음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일을 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일 후속 일이 안되면 좀 규모가 있는 큰 사무소에 가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길 원했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일이 생기고, 또 세 번째 일이 생기고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연찮게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 : 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좋은 건물을 설계하는 조직으로 시의 건축사사무소는 어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 : 지금 온고당에는 제가 있고 또 소장급 직원이 두 명 있는데, 워낙 건축사사무소 조직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또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사무소 내에서의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배웠던 내용을 그들과 공유하고 그들도 저처럼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정신을 심어서 계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거축 시스템은 어떨까? 또 이런 디테일은 어떨까? 하는식의 내용인데, 구성원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게 좋은 건물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온고당은 실시설계를 직접 하시나요?

• 안 : 네, 100%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 : 실무는 주로 이로재에서 경험하신 것이겠지요? 그러니 그 시스템이란 것이 이로재의 것과 같은 것인가요? 혹은 안 건축사께서 스스로 많은 개선을 하신 거라 할 수 있을까요?

• 안 : 실시설계를 체크하고 검토하는 것은 이로재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많아 개인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 박 : 말씀을 정리하면, 안우성 건축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실무진과 새로운 것을 찾는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 유 : 제가 보기에는 사고는 다양하나 품질은 일정하자는 생각 같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마음은 하나이나 머리는 각각, 손은 하나….

• 안 : 실무진이 그간 저와 함께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제가 하듯이 설계를 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품질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좋은 건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박 : 혹시 그러한 내용을 때문에 온고당이 다른 사무소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나요?

• 안 : 저희가 실시설계 경험들이 많고 특히 토목이나 구조분야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런 분야의 적정설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건축구조는 시스템을 어떻게 정하느냐 또 기둥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또 캔틸레버 등도 제법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의 폭도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 : 우리 건축계의 업무기준을 보면,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설계의 각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추어 설계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요?

• 안 : 크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중간설계와 실시설계는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건축주에게는 매우 구체적으로 중간설계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콘센트 위치, 전등 종류 등을 협의하는 것지요. 이런 중간설계 과정이 끝나면 '당분간 절 찾지 마세요.'라고 건축주에게 말씀드리고 계속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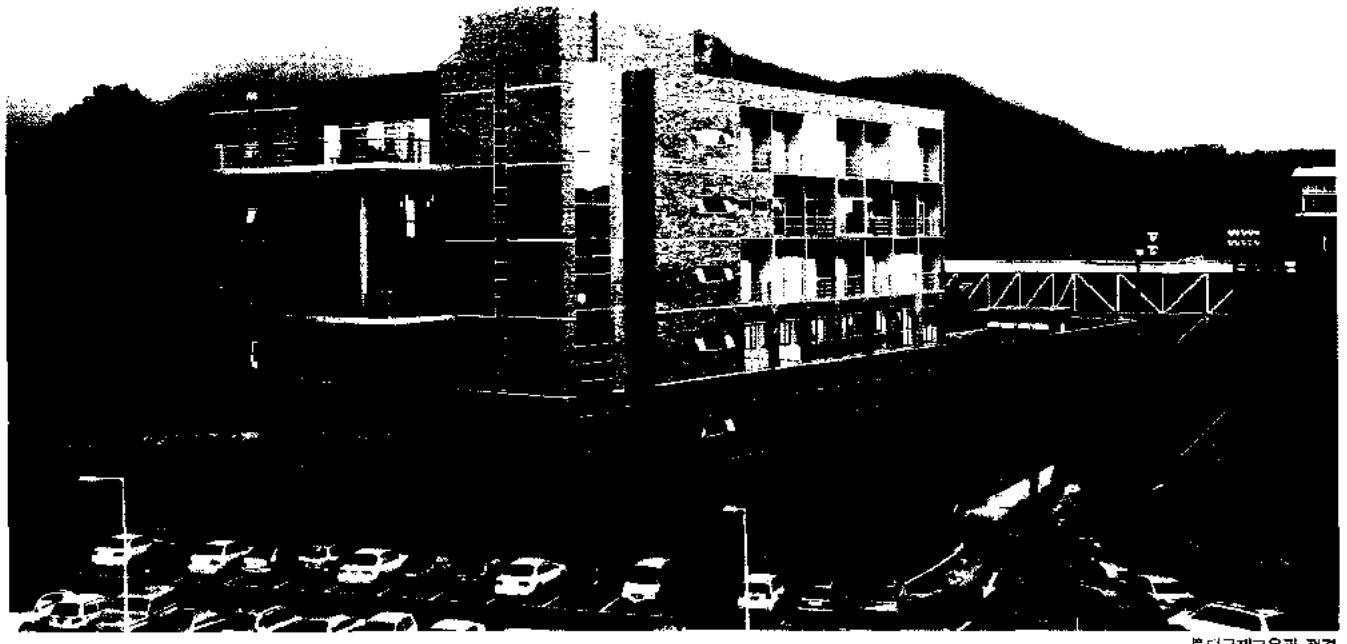
• 박 : 기본설계는 확실히 분리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분리되나요?

• 안 : 가장 기본적인 평면, 입면, 단면과 재료(외부), 법규검토 그리고 향후 과정의 설명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요. 중간설계는 구조 기본도, 기계, 전기, 조명, 내부 전개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실시설계는 나머지 시공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박 : 이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인원이 부족하거나 사무소의 여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

• 안 : 물론 발생할 수 있지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100%하다 보니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 : 그럼 외주를 보내고 싶은 충동은 있겠네요.
- 안 : 사실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일하던 소장이 독립하여 차린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을 주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연속성과 품질은 보장될 수 있었지요.
- 유 : 일을 수주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현상설계에 많은 비중을 두시나요?
- 안 : 저는 수주가 외줄타기라고 생각해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뜻이죠. 시작할 때부터 아름아름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2003~4년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과 그 분들의 아는 분들을 통해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이 넓지는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때까지 현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 하였죠. '참 신기하다' 라고. 그리고서 이렇게 민간에만 의존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외줄타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쉬웠던 것이, 저의 쌓인 경험이 알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유치원 해보았느냐, 학교 해보았느냐, 주택 해보았느냐고 물을 때 자신 있는 대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 완공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여력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사무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람을 조금씩 늘렸나갔고 현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건물이 당선되면서 안정된 금전적 환경을 만들 수 있었지요.
- 박 : 그래요. 그런 와중에 제일 좋았던 것과 또 제일 나빴던 것 하나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안 : 첫 건물 완공해서 오픈식 했을 때,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 건물이 우먼케어여성병원이라는 병원건물이었는데요. 진짜 기뻤습니다. 계속 기뻐야 하는데, 지금은 좀 무뎌진 느낌이 있죠. (웃음) 또 그 전에 첫 계약하고 돌아올 때도 물론 매우 기뻤죠. 제일 기분 나빴을 때는 제가 디자인한 건물이 지어졌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죠.
- 박 :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물이 다음 건물에서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거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 안 : 소중한 경험이죠. 타협할 것을 타협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방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와 건축주가 너무 잘 통해서 저만 모르게 건축이 마구 바뀔 때, 또 시행사가 디자인의 권한을 건축사에게 확실하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건물의 색이 바뀌거나, 분양성을 이유로 이상한 것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진행하는 것 등이 참 문제가 되지요.
- 박 : 다시 사무소 이야기로 돌아가서, 온고당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나요?
- 안 : 사무소 내의 건축디자인이 15명이고 외근, 즉 감리가 7명입니다.
- 박 : 현장이 7개나 되나요?
- 안 : 아닙니다. 4개의 현장이고 책임감리가 한 곳 있습니다.
- 박 : 온고당이 책임감리회사이군요. 감리는 어떻게 수임하셨나요?
- 안 : 현상설계에 당선되었는데, 발주처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 유 : 활용한 발주처입니다.
- 박 : 안우성 건축사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사무소 직원의 상을 말씀해주세요.
- 안 : 매우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보다 나은 직원이면 바람직하겠네요. 그리고 건축은 기본적으로 꼼꼼한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이 좋겠고 건축하는 사람은 워낙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원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 또한 필요합니다.
- 유 : 신입사원은 어떻게 선별하시나요?
- 안 : 처음에는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성적 중에서 설계과목의 성적을 확인합니다. 시험으로는 작은 과제를 주어 설계해보도록 하고, 글쓰기와 스케일 감각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통하여 선발되니까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유 : 그렇게 해서 선발된 인원의 인성들도 괜찮습니까?
- 안 : 네, 그렇습니다.
- 박 : 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안 : 조직이 크지 않다보니, 관리는 한 사람이 전부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니 BIM이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D분야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죠.
- 박 : 그런 것을 협회 같은 곳에서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요
- 안 : 그렇죠. 저렴하게 강좌 같은 것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사무소 경력이 없다보니 큰 규모의 사무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 매뉴얼이나,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것 등도 매우 알고 싶은 분야입니다. 저희도 직원들끼리 간단하게 정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체계적인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은 매일매일 조금씩 선임자들로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 보다는 매뉴얼 등이 있어서 첫 출근 전에 숙지하고 출근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화기 쓰는 것 배우고 내일은 컴퓨터 셋팅 배우고 하는데, 누가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다들 바쁘니… 간혹 다른 곳에서 얻어다 쓰긴 하지만 결국 저희랑 잘 맞지 않아서 힘든 면이 있지요. 치라리 미국의 AIA처럼 건축사협회 등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규모별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달청에서는 자신들이 납품받을 때마다 캐드의 레이어가 다르고 해서 나름의 표준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앞서서 해볼 만한 일이지요.



롯데국제교육관 전경

• 박 : 한국 건축계에서 실무를 하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 안 : 우선 건축계에 세 단체가 있는데, 그 힘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모여도 건설협회 하나의 힘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 힘이 빙자 방식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하는데도 버젓이 살아있고, 시공사가 설계 겸업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저희로서는 힘이 부족하여 논리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하나는 도심재정비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도 매우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 관련 협회가 나서서 반대해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계 내에서도 지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로 도시가 변모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차으로 고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도시하는 분과 건축하는 분들이 모여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결정을 따라가는 형상이 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은 모두 일감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환경도 안 좋고, 일도 없어지는 형국이지요.

• 유 : 들은 이야기로는 서초마을에 대한 계획 과정에서 곤욕을 당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안 : 네. 제가 그 곳의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체부동, 호자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몇 곳의 재개발을 못하도록 했었거든요. 당시 주민총회를 하는데, 주민대표 3인이 단상에 올라와서 제 역할을 잡았었어요. 얼마 전 지방의원 선거에서 그분들이 모두 구의원 등에 당선 되었더라고요. 사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의 반 정도는 개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조합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찬성하고 추진하려고 하지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제도가 얼마나 나쁘나하면, 원래 조합이 결성되면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없잖아요.

이때 건설회사가 조합과 연대하게 되요. 몇 억을 대주게 되죠. 그러나 조합은 빚을 지게 되고, 빚이 되니 무조건 재개발을 성공시켜야 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거기에 또, 아파트 설계 많이 하는 설계회사와 또 정비회사 등이 함께 개입하는 구조이죠. 그런데 이 모두 다 현행법에 빈틈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아무도 돈을 내서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미리 다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죠.

• 유 :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네요. 또 법의 집행 문제이기도 하구요.

• 안 :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공무원들도 설계자가 건물과 현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설계자가 감리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이라는 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생존과 관련하여 특검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요. 김리는 설계자가 하도록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감리를 설계자가 하게 되면, 현상설계 참여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고, 더 많은 건축사사무소가 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상설계비 보다 더 많은 감리비를 지불한다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경우도 설계와 감리 때문에 웃기는 상황이 일어나지요. A라는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B라는 건축사사무소가 감리하고, B의 설계안은 A가 감리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 박 : 그럼 오늘 주인공인 건물로 넘어가죠. 이것이 롯데에서 출연하여 지어진 건물인가 봅니다.

• 안 : 롯데에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한다고 할까요… 기업이 서울대학교에 이러한 연구시설을 기부하는 개념입니다.



롯데국제교육관-3층 라운지에서 내려본 내부전경

• 유 : 건물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 안 : 정문에서 순환도로 왼편으로 올라가면 운동장이 있고 CJ인터넷내셔널 건물이 낮게 있는데, 바로 그 뒤편 부지입니다. 미술관의 위쪽이 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박 : 설계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서울대학교 마스터플랜 속에서 지어지는 건물이잖아요?

• 안 : 서울대는 3년마다 전체 마스터플랜을 정비하여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저는 2007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했고, 당시 계약은 서울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마스터플랜을 참고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지의 결정 등을 보면, 상황적인 논리도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 박 : 마스터플랜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었나요?

• 안 :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건물의 대응, 동선 등 많이 참고하며 진행했습니다.

• 유 : 여기가 빈 땅이었나요?

• 안 : 오래전에 서울대에서 실험 중 폭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을 보관하는 환경안전원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원

래 이 부지에 있었지요. 서울대학교는 현재 부지가 부족하여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보다 좀 더 크게 짓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규모가 제법 대단합니다.

• 유 : 이 건물에 특정한 학과, 학부가 들어가게 되나요?

• 안 : 특정학과가 아니라 본부지원 성격으로 대외협력처라는 부서가 들어갑니다. 주 업무는 학생들 취업교육도 하고, 글로벌 인재교육, 교류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는 입학관리처도 들어오고, 당초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 박 : 혹시 설계하시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나요?

• 안 : 특별한 것은 없었고, 단지 지금 외벽에 사용된 벽돌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는 건축주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주변의 건물이 벽돌이나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내의 높으신(?) 분이 벽돌을 좋아하신다는 추측도 들았고요. 계약 시에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계약 후에 설계 진행과정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 심의가 있는데, 거기서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계 잘했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교육연구시설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에 맞추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이것은 PQ형식으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다행히 제가 학교시설의 경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박 :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나요?

• 안 : 서울대학교의 계약서인데, 교육청의 교육시설을 계약하는 계약서였지요.

• 유 : 다소 일방적인 내용이 있지 않은가요?

• 안 : 특별하게 일방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외벽 재료 등은 좀 일방적이었습니다. 전 거기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 유 : 서울대학교의 미술관 등은 매우 과감하기도 한데요.

• 안 :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 : 설계에는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가 계약할 당시에 제시되었나요?

• 안 : 네. 그런 것은 서울대학교 시설과에서 대단히 세밀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문제라면, 그 수요처가 당초에는 불분명했고 진행 중에 수요처가 생기면서 혼돈이 있긴 했습니다. 또 당초에는 앞 건물과도 연계되도록 브리지를 만들어야 했기에 이를 설계에 자연스럽게 반영했는데, 앞 건물이 철거 되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브리지가 마치 일부러 모양을 많이 낸 오브제처럼 여겨지게 되어버렸어요.

• 박 : 혹시 설비나 환경에 관한 기준이 있었나요?

• 안 : 네. 그래서 아트리움을 두었지요. 더운 공기가 위에 모이니, 위의 공기를 아래로 당기는 엑스트 등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공사비 관계로

시공에서 빠져버렸지요. 또 복도와 공용부분에 팬 쿄일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건물이 대개 공공공간에는 냉난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유 : 혹시 이 건물에서 '이건 묘수풀이다' 혹은 '매우 잘 되었다' 하는 만족스런 내용이 있나요?

• 안 : 네. 제가 학교 건물을 몇 개 해 본 경험으로는 학교 건물이라는 게 갑자기 큰 스케일의 300평정도 되는 대형실이 있다가 그 옆에 갑자기 매우 작은 연구실들이 연결되는 등의 요구가 있지요. 통선을 풀기도 쉽지 않고, 또 기둥의 배열과 비례적 균형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인 학교 건물의 기본조건이었는데, 이 건물 내부에는 그러한 큰 방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트리움과 브리지, 계단 등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지요, 면적별로 공사비를 맞추는 발주처의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공용공간이 매우 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상당히 큰 공용공간을 확보했죠 법규적으로는 이 아트리움의 계단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아서 보다 효율적인 계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아마도 공공 프로젝트이다 보니, 좀 편하게 진행된 듯합니다.

- 유 : 이 건물의 규모와 예산은 어떠하였나요?

• 안 : 6층 건물입니다. 면적은 1,750평 정도이고요, 이 건물은 예산에 맞추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70억원(부가세 포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건물의 공사비(약 10억원)까지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약 330~40만 원 정도 되는 셈이죠.

- 박 : 적은 예산으로 잘 하셨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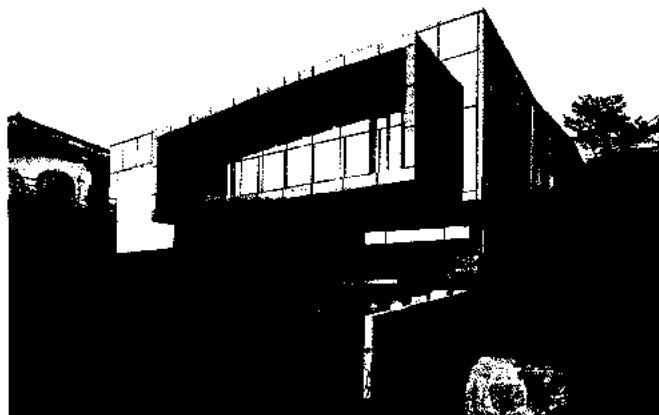
- 안 : 네, 성부단가의 85%로 그냥 공사한 거예요.

- 유 : 시공사는 어디였나요?

• 안 : 롯데건설이었습니다. 현장소장은 이 현장이 전국의 롯데건설 현장 중 가장 작은 현장이라고 하였어요. 아마도 아파트 현장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시던 분이라 새로운 공법에 당황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 유 : 설계비는 잘 받으셨나요?

• 안 : 네. 서울대학교가 인색하지는 않았습니다. 평당 단가로 보면, 한 13만원~14만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 대비로 보면 약 4%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받을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서울대학교는 워낙 건물을 많이 지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 건물이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준공시에는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장애인 시설들을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준공검사에서 법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원하는 것을 디 기록하고 그 시설들을 다 충족해야만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사시의 요청사항으로 움직이니 맞추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정미술관 전경



도로에서 바라본 연정미술관 전경

- 박 : 이게 합법적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그냥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 달라면 곤란하지 않나요?

• 안 : 그래서 롯데건설에서는 추가 예산을 잡아서 곧 보강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시설설치 대상건물은 공공이건 민간이건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경사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자참하고 와서 모든 램프들을 잰다고 합니다.

- 유 : 경사도 확인을 위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겠네요.(웃음) 안우성 건축사님 하신 일을 보면 미술관, 갤러리, 병원, 학교 등의 다양하고 공간이 재미있는 건물을 해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에도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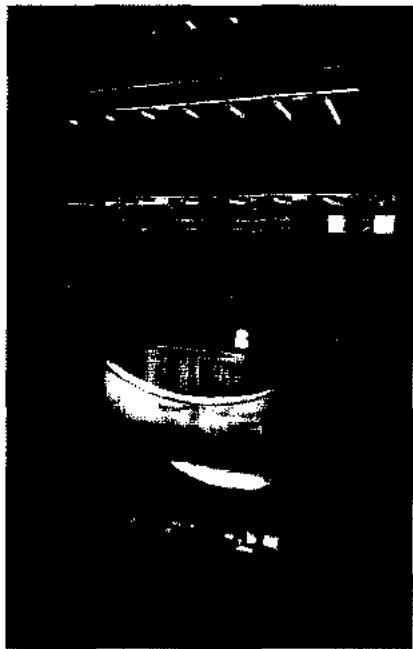
• 안 :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발코니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디자인도 자유로웠습니다.

- 유 : 연구실들을 보니, 발코니가 있거나 없거나 하네요.

• 안 : 네. 브리지 암부분에 있는 방은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여 약간 넓게 쓰고, 또 화장실은 좀 넓게 주었습니다.

- 유 : 학교에서의 이런 방들은 공평의 법칙에 따라 똑 같은 크기로 구성되는게 일반적인데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 박 : 혹시 이 건물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Library-Reference Desk Truslow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셔서 그런지 매우 숙련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요율을 조정하고, 아이템을 조정하고, 재료 조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예산을 맞추었습니다.

• 박 : 그렇게 그 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셨군요.

• 안 : 네. 조달청에서 쓰는 EMS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우 잘 다루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조달청 단가가 있는 자재들을 변경해서 전체 금액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엑셀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실내재료가 네 번이나 변경되었죠. 바닥재는 둘을 다 없애고, 디렉스 틱일로 바꾼다. 벽은 무슨 재료로 바꾼다. 이런 식이죠.

• 박 : 그때마다 설계자와 계속 협의하시던가요?

• 안 : 그렇습니다. 재료마감표가 바뀌면 단가를 알려주고, 재료를 알려주고 했고, 공사비가 10% 초과했다면 5%로 맞추고 뭐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식이었죠.

• 박 : 그럼 그런 것을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각 재료의 단가가 있는 소스가 있어야겠군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기 있네요. 설계가 납품 후 가격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게… 원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 : 네. 예산을 먼저 세우다보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필요하죠. 현상설계를 보면 언제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상설계를 당선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예산에 맞추기 어렵고, 당선되고 나면 공사비에 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최근에 저는 통신 분야에서 제법 어려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 하다보니 일반 사무소에서 티브이 안테나 아웃렛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없앴으면 했다가 큰 반대를 받았지요. 워낙 일체형으로 들어간다더군요. 통신과 전기는 공사비를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낭비인 것 같습니다.

• 안 : 학교의 건축학과 교수님들과 공무원 분들이죠. 또 총장님께서 젊은 건축사에게 기회를 주자고 해서 제게 기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시설과의 최정인 과장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제게 맡겨주시고, 예산과 공사비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 박 : 설계가 끝났을 때, 예산과 딱 맞았나요?

• 안 : 물론 넘었지요.(웃음) 그러나 많이 넘지는 않았는데, 시설과에서는

• 박 : 감리를 안 하셔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으신가요?

• 안 : 무엇보다도 색상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변경되어버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학교나 국방부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에 소속된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 교육청에 소속된 한 명의 건축사가 모든 건물의 색상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 박 : 브리지 네트워크란 말씀을 쓰셨는데, 이게 뭔가요?

• 안 : 이 건물은 두 개의 동이 아트리움을 사이에 두고 브리지로 연결되었지요. 이렇게 브리지로서 각 기능이 연결되는 것을 가시화했다는 뜻이고요. 루이스 칸의 엑스터 라이브러리가 있지요? 내부 벽이 등그란 도서관 말이에요. 칸은 스스로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설계했거든요. 저도 학교건물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았는데, 학교는 결국 학생과 선생간의 교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에게 배울 수 있고, 또 학생은 물론 선생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보이게 하고,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학교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유 : 그러니까 브리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건물을 설계하면 사용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군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학을 2년 만에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더 머물러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싶진 않았으셨는지요?

• 안 : 1년 반 공부를 했고요.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무소에 지원도 해서 한 곳에서 하락도 받았었습니다. 이게 1996년 초의 일입니다. 집안의 사정에 의하여 귀국하게 되었지요.

• 박 : 건물이 다 완료되고 했는데, 잘 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정리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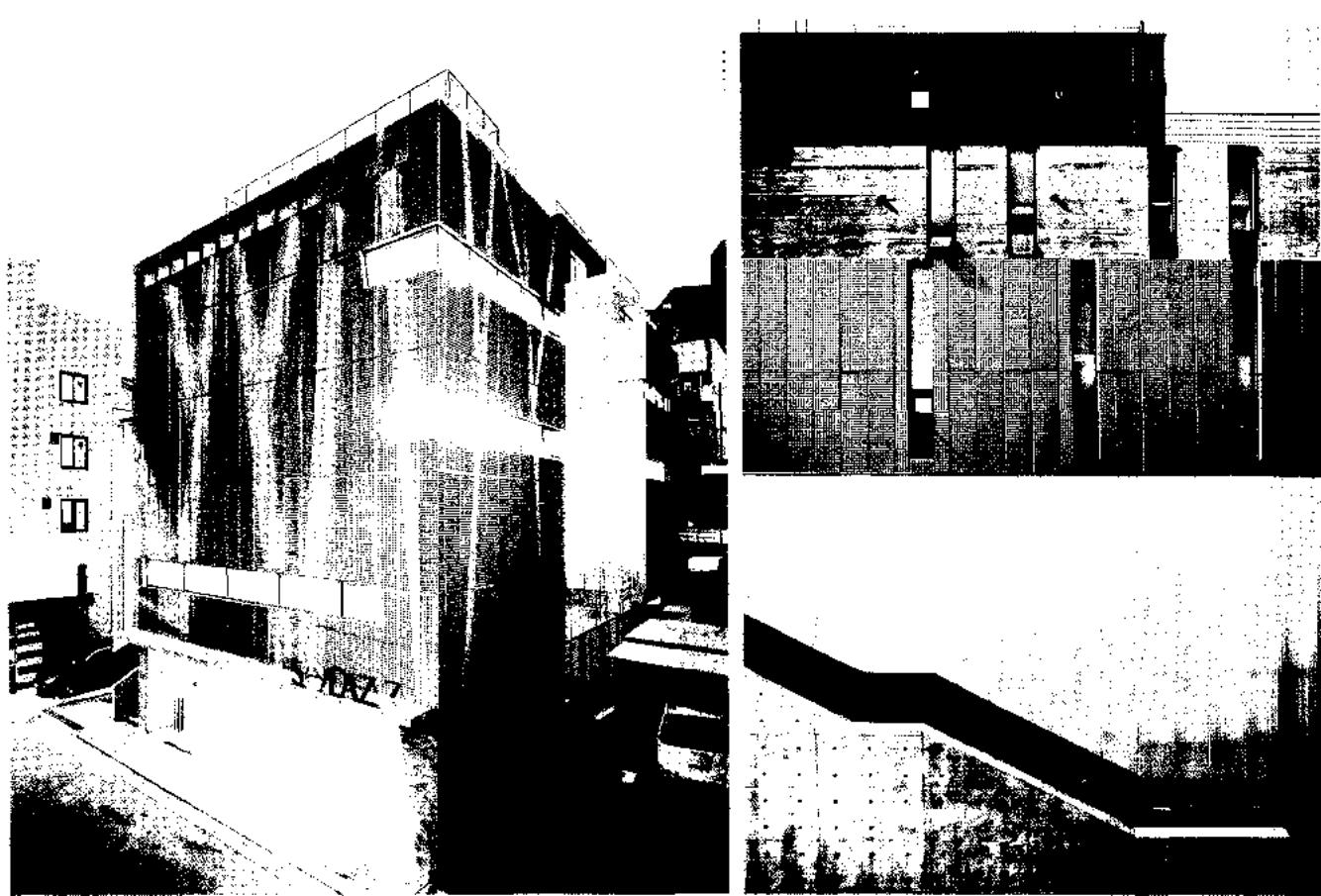
• 안 : 잘 된 점은 감리를 못했음에도 대부분의 구조가 제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잘 못된 것은 내부의 칼라 선정과 외부의 몇 가지 칼라와 재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어렵죠.

• 유 : 어떤 건물을 설계할 때 제일 즐거우신지요?

• 안 :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집회시설들이 재미있고요, 주택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집에 채를 설계하여 지었습니다.

• 유 : 최근 설계하신 것이나, 공사 중인 건물은 어떤 게 있나요?

• 안 : 대구에 자리지고 있는 무역회관 건물 오피스입니다. 코엑스에서 발주한 18층 건물이고, 공장이 두 개 있습니다. 4,000평과 20,000평인 공장이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복합화력발전에 들어가는 라디에이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20,000평 연면적인데, 10,000평씩 두 동입니다. 한 동의 크기가 100미터 끝하기 300미터 장변 크기입니다. 엄청난 스케일이죠.



솔라즈 빌딩 전경

솔리즈 빌딩 통층전경

- 박 : 요즘 건축경기가 아주 좋지 않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 : 그게 주택경기, 아파트 경기와 관련 있는 것 같고요. 또 서울에는 자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간 지어진 건물이 매우 견고해서 새로 자을 날도 멀었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요즘 이야기되는 토건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 그럴 때 건축사들은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할까요? 안 건축사님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 안 : 저는 그럴 때 사무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병원에 약간 특화되어있고, 최근엔 유치원에도 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보건소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시설 기준들이 있습니다. 좀 해보니까 이런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교육청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구요. 이렇게 특화되려는 하고 있습니다.
- 유 : 아파트도 하셨나요?
- 안 : 사실 아직 아파트를 못했었어요. 최근에 보금자리주택 하나가 돼, 계약을 하게 되어 이제 곧 경력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단독은 아닙니다. 저희가 2등을 하게 되어 3팀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박 : 그래도 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우셨을 경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 안 : 네. 처음 차려서 한 일 년 반 정도 어려웠죠. 집에 돈을 가져갈 수도 없었고, 제가 약 2,000만원을 빌려, 차를 사고, 컴퓨터 두 대 사고, 엘리베이터 없는 6.5층에 사무실을 임대하였어요. 신사동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반 지하로 옮겨서 건축주의 허락을 받고 지하에 구멍을 내 지상처럼 만들어 놓고 썼는데 6개월 만에 이 사무소를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시립대학교 교수로 가신 유석연 선생과 함께 사무소를 하게 되었는데, 나가서 함께 운영하자고 해서 2,000만원 들어간 사무실을 떠나 지금 이 건물에 들어와 독립채산제로 함께 운영을 했죠. 이름도 HNA 은고당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2년 전에 유선생이 학교로 기시는 바람에 저 혼자 남았어요. 이제 와서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초기에 현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집으로 월급을 가져가지 않고 축적하여 회사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초기에는 매우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매우 많은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디자인, 계획, 검토, 수주, 교육, 관리 모두다 했죠. 하지만 팀이 자라면서 제가 계획하고서 실내재료마감, 천정도 까지만 하면 다음부터의 처리가 팀 내에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 유 : 은고당의 가장 대표작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 안 : 인상철 미술관, 롯데국제교육관 그리고 솔라즈 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 :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유 :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아 하시기 바랍니다. ■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방 훨린  
한 건축사사무소(주)  
1948년 12월 대전 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6년)



어릴 때 길에서 주운 쇠조각 유리조각으로 집을 만들고 놀다

내 고향은 대전이다. 초등학교 시절까지 대전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리고 만들고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국전쟁 직후였는데 마땅히 가지고 놀 장난감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할 때다. 길바닥에는 유리조각이나 탄피, 쇠조각이 많았다. 고작 이런 것이 장난감 대체물이었다. 이런 걸 주워 가지고 집을 지으며 놀았던 기억이 난다. 대전에서도 대동동 1구역으로 대전에서는 중앙이었는데 길은 거의 포장되지 않았었고 차도 별로 없었으므로 가끔 해야 우마차가 고작인 신작로를 빼고는 길 전체가 놀이터였다.

집 앞 골목 땅을 오목하게 파고 이곳에 유리조각을 썩워 속이 드려 보이게 하고 쇠조각 등을 여기저기에 놓아 집을 만들곤 하였다. 그리고는 개미나 땅벌레 등을 잡아 이곳에 놓고 들락날락하는 움직임을 도려다 보고는 이렇게 저마다 구성을 바꿔보기도 하며 놀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외국영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열 살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극장을 하는 집과 친구이다 보니 날 마스코트로 극장에 자주 데려갔기 때문이다. 이때 많은 영화를 보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길, 마리풀다, 세계를 그대 품안에, 나이아가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니 등 50년대 중반에 한국에 들어온 협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이므로 영화를 이해한다기보다 인상적인 장면들과 영화배우 이름 정도가 머리에 남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영화들이 육일한 외국문들의 접속통로였던 생이었는데, 미국으로부터 구호물품을 받아쓰던 시절이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각인시키는데 영화가 큰 역할을 했다. 전쟁 직후의 국민전체가 가난했으므로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말고는 미술이며 음악이며 무얼 따로 배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가는 때라 고학년이 되면 공부만을 해야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미술점수는 100점을 줄 수 없다며 98점을 주셨다.

### 미술전공은 배고픈 직업이라고 어머니가 말리다

선생님은 넘지시 미술반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다. 어머니께서는 배가 고분 작업이라고 말리셨다. 학과 과목으로는 화학 대수도 잘 하였지만 특히 물리와 기하 과목을 꾸척 좋아했다. 물리 기하시간이 되면 가슴이 뭘 성도였다. 적성 과목으로 보아 공내를 가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였는데 무슨 과를 갈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과 저과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공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림 그리고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학교 복도에 걸려있는 작은 애자들을 보다가 문득 무언가 발견하고 한

참을 드려야 보았다.

### 투시도법으로 된 그림을 보고 건축을 전공으로 택하기로 마음먹다

투시도법이 가는 선으로 드러나 있는 건축물 그림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건축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다. 학교 복도에 있는 작은 액자 그림 속에서 장차 직업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줄곧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른들에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전자파나 스케일이 큰 토목과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점점 굳어져가 건축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건축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 졸업 후 첫 직장이 김수근 선생의 '공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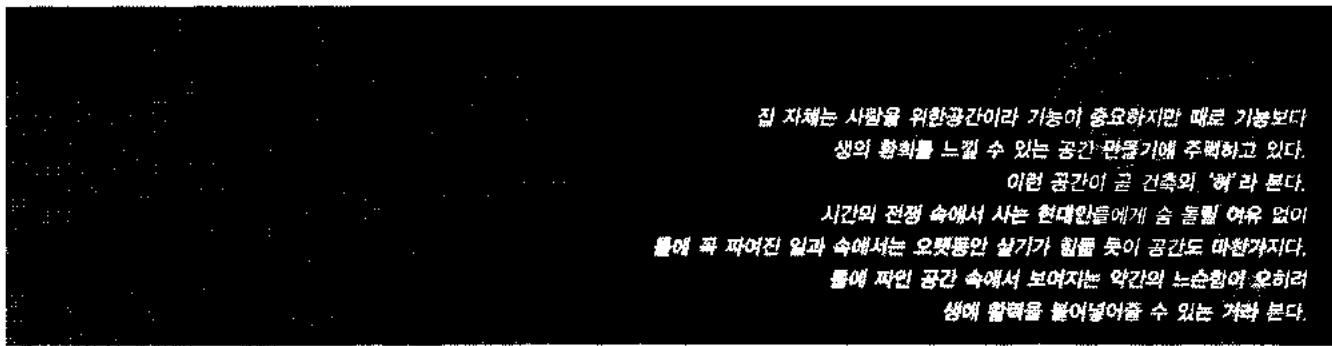
첫 번 직장이 제대 후 바로 입사한 김수근 선생의 '공간' 이었다. 군대에 균무 중 마지막 휴가를 25일을 나왔을 때다. 휴가 나온 다음날 건축 설계경기에 제출할 건축 패널 작업요청이 있었는데, 마침 귀대 하루 전이 제출일이라 휴가기간 모두를 여기에 쓰고 귀대 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획안을 제출한 흥순인 선생이 공간의 실장이었다. 제출된 프로젝트는 세종문화회관이었고 흥순인 실장의 작품이 가작을 차지했다.

마지막 휴가를 투자한 덕에 비교적 쉽게 공간에 입사할 수 있었다. 공간에 입사하여서는 방낮없이 열심히 건축설계를 하였다. 광복 30주년 기념전시관, 서울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서울대 환경예술관, 잠실체육관 등을 설계하였고 공간사옥 2차 증축부분을 담당하였다. 허가도면이 있었지만 그건 형식이고 실제로는 도면이 없이 시작하여 매일 매일 도면을 그려서 현장에 나가 1대1 모형 만드는 기분으로 건축을 하였다.

이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인지는 준공할 때까지 김수근 교수를 포함하여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아래층에 없년 기둥이 위층에서 갑자기 생기기도 하였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위층에 기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콘크리트가 빡 부어진 벽체 거푸집 속으로 철근을 위에서 꽂 놀려 설치하기도 하였다. 한 층, 한 층을 새로운 그림을 그려 시공하였다. 이때는 중동 봄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였다. 공간사옥 증축도 이것과 맞물려 있었다.

### 정림건축으로 옮기다

하루가 멀나 하고 여기저기서 직장을 옮기라는 유혹의 손길이 뻗쳐 왔다. K상사에서 엔지니어링회사를 만들고 디자인실 근무자를 찾고 있었는데, 유혹에 빠져 1년을 그 곳에 보냈다. 덕분에 결혼은 하였는데 일이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 결국 1년 만에 이곳을 빠져 나왔다. 1979년 2월 정림건축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정림은 일이 많았다. 입사 2년 후 한국은행 본점설계를 원정수, 지 순 교수팀과 함께 하였는데,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설계 중단 통보가 내려져 그만



두었다.

이화여대 교사들, 부경대학교의 교사들, 수안보 경찰대학 마스터플랜과 본관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 신라대학교 마스터플랜과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동들, 한국부자신탁사옥, 모토롤라사옥(강남구청역 사거리) 등 엄청난 일들을 하였다.

설계경기도 하였는데 당선율이 상당히 높았다. 한국전력 부산지사, 한국전력 광명지점, 부산문화방송사옥, 내동강남타워(강남대로에 있는 상동아빌딩), 대덕과학문화센터 등이 설계경기에 당선하여 하게 된 프로젝트이다.

#### 1991년에 인도건축으로 독립하다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마지막으로 1991년에 정림건축을 나와 인·토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크지 않은 규모의 사무실에서 소수 정예요원으로만 사무소를 운영할 생각으로 여러 제안을 뿐리기고 뛰쳐나오게 된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하다 보니 원래 갖고 있던 설계 컨셉이 약해지고 마감방법도 애초의 계획과 달라지는 등 대형회사의 허점이 여기저기서 보였기 때문이다.

소수정예부대요원으로 소수의 설계임을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정림에서 나오기 전 설계하였던 건축물들은 나중에 준공되었는데, 설계당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준공되어 나시 한 번 감리는 설계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도 대덕과학문화센터는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을 받게 되었다.

#### 독립 후 대형백화점 설계를 맡은 것이 시간을 벌게 하다

인·토건축은 백문기 소장과 같이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징림에서는 큰 프로젝트만 다루다 보니 큰 프로젝트 커리어로 알려지게 되어 여기저기서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요청에 응해야 했다. 개업 후에 이런 저런 일을 하나가 대전OO백화점 설계를 맡게 되었다. 그때 당시 5만평 이면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런 저런 일로 자연되어 4년여 동안 설계를 하였다. 한동대 기숙사 같은 중급 규모의 프로젝트도 하였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소형프로젝트인 다세대주택으로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다

평소에 대형 프로젝트만 만지다 보니까 작은 프로젝트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였다. 학생원룸, 다세대주택 등등… 연남동 스텝은 설계를 다 마쳤다가 설계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 건축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설계하는 정열을 보였다. 연남동스텝 등 스텝 시리즈, 하늘미당Ⅰ·Ⅱ 여기에서 연기우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을 받게 되었다. 사무소를 시작하면서부터 작품 속에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건축은 종합 학문이어서 기본적으로

집 자체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 기능이 중요하지만 때로 기능보다 생의 활동을 느낄 수 있는 공간·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공간이 곧 건축의 '허'라 본다.

시간의 전정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숨 돌릴 여유 없이

풀에 꽂여진 일과 속에서는 유탄통안 살기가 힘들 뜻이 공간도 마찬가지다.

풀에 짜인 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노년함이 오히려

생애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거라 본다.

과학과 미학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철학과 역사와 도시학의 흐름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삶이 담겨질 집이라면 충분한 모용력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축사-사람의 욕심 이전에 건축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위(無爲)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허(虛)'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IMF를 맞아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다

1997년에 IMF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이 넘쳐 그렇게 바쁘던 게 어제였는데 거짓말 같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중단되었다.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시작하고 미처 자리가 잡히기 전이라 더욱 더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그 고난은 2002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어려운 와중에 1999년이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이 되었는데, 건축문화의 해 집행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지만 그 행사 일환으로 옥천 현대미술관에서 가진 '한국건축 100년 전' 행사위원장으로 행사준비를 진행하였다.

준비기간은 1년으로 아주 짧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고생을 하였다. 짧은 기간의 준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와 평은 나쁘지 않았다. 덕분에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 미제루(주택)로 여러 개의 상을 받다

이즈음에 미제루라는 아주 작은 주택설계 일이 들어와 열심히 물두 할 기회가 생겼다. 강화도 민통선 안에 있는 주택인데 거의 매주 현장에를 열심히 다니며 감리를 하였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로 생각지도 않았던 건축상을 여러 개 받게 되었다. 한국건축가협회 아전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아카시아 우수건축상 금상… 이 프로젝트로 신문사와 방송국의 수많은 원고요청과 출연요청을 받아야 했고 영화사에서의 영화촬영장소 대여요청 등에도 시달렸 정도였다. 많은 건축학도들이 이집을 보기위해 지방에서도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집이 공개되는 것이 싫은 미제루 건축주는 '미제루 접근 금지령, 취재 금지령'까지 내렸다.

조그마한 시골집 미제루는 지어지고 10여년 이상을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아주 힘들었지만 그려는 동안 IMF경제위기는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다시 설계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원주 제일교회 수련원, 산빛마당(200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논현동 수산빌딩, 청담동 유현빌딩, 연하당(2004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광장동주상복합, 덕 윤웨이브사옥 등을 하였고, 파주출판도시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교육과학사, 북이십일사옥, 중앙입시교육연구원, 여원미디어의 틴타스토리 하우스, 혜원출판사, 광문각 등의 프로젝트를 하였다.

## 인터뷰 후기

그는 부지런하다. 학교 출강도 끊임없이 하며, 또 사무실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 건축사 중의 하나이다. 우리만 해도 연필로 그리는 세대에서 캐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캐드는 면벌치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처지인데 반해 그는 모니터에서 캐드도면의 간단한 수정까지 하고 포토샵까지 할 수 있다.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만의 족적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인터뷰-최동규 건축사자연친위원회 위원장

### 소형프로젝트로 받은 많은 수상이력

주택으로는 미제루(199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분상, 아천상, 아카시아우수건축상 금상), 연하당(2004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산빛마당(200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이 있고, 다세대주택으로 연남동스텝(1996년, 한국건축가협회상), 하늘마당(1999년, 한국건축가협회상), 그리고 논현동 수산빌딩, 원주제일교회수련원, 파주출판문화단지에 지어진 탄탄스토리하우스(2006년), 북이십일사옥(2005년) 등이 있다.

### 소형사무소의 장점은 디자인의 일관성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같이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바라는 바가 아니었고 3명의 건축사가 같이 작업을 하며 서로 돋고 있다. 직원은 10여명 정도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무소의 장점은 많은 일들이 단순한 경로를 거쳐 수행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명료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계과정에서도 계획안의 방향결정이나 디자인 결정하는 단계가 많지 않아서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도 한 명의 건축사가 주관하고 디자인해 나아가야 디자인의 일관성도 생기고 컨셉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여려 사람이 관여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좋은 건축물들은 1인의 건축사가 주관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은가. 직원 하나하나가 설계의 많은 분야를 관장하므로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좋아지는 장점도 있다. 축구로 말하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한다.

### 학교에 출강하면서 눈여겨본 학생들을 직원으로 선발 한다

학교에 출근 출강하기에 학생들 중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으면 봐서 오게 한다. 다른 사무소의 경험 있는 사람은 굳어져 있어서 환영하지 않는다. 학생 때부터 눈여겨보았다가 포트폴리오를 보고 뽑는다.

우선은 건축이 지어질 땅과 그 땅을 담고 있는 주변을 잘 이해하고 집을 앉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우리 선인들의 생각인 '무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위적인 배치나 공간구성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밖에서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은가. 집 자체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 기능이 중요하지만 때로 기능보다 생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공간이 곧 건축의 '허'라 본다. 시간의 전쟁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숨 돌릴 여유 없이 틀에 꼭 짜여진 일과 속에서는 오랫동안 실기가 힘들 듯이 공간도 마찬가지다. 틀에 짜인 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느슨함이 오히려 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거라 본다.

한국건축계의 문제는 대량의 일들이 몇 개의 사무소에서 한정적으로 처리되는 현실과 더불어 시공자를 먼저 고르는 턴키제도가 문제다.

한국건축계는 지금 지구중심으로 향하여 나있는 커다란 구멍 속으로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요즈음 집이 지어지는 단계를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예전 같으면 일들이 골고루 건축사들에게 돌아가서 좋은 건축을 위한 눈에 안 보이는 선의의 경쟁도 재미있게 되어 물도 좋고 시장도 좋았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우선 하고 다음에 시공자를 골라야 하는데, 몇 년 전엔가 시공자를 고르는 입찰제도가 최저가 입찰제도로 바뀌면서 건축을 지어야 하는 관에서 오히려 최저가 입찰방법으로는 부실 공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 턴키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관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턴키비 이스나 BTL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일이 큰 덩어리로 묶이고 웬만한 건축사들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 뾰족한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일 좀 해보겠다는 간 빼놓은 건축사들은 건설사 문 앞에 줄어서 자기와 일해 달라고 조르는 형편이 되고, 이러다 보니 건축사 체면이 말이 아닌데 한 솔 더 떠서 턴키입찰에 내는 건축 계획안도 여러 개를 만들어 건설사를 보여주면 건설사가 고른다고 한다.

하기야 떨어지든 붙든 설계비를 건설사에서 받아 식구를 먹여 살리려니 어쩔 도리가 없지만… 더구나 무슨 이유인지 턴키나 BTL의 단위를 점점 더 키워 실력(?)있는 사람이 아니면 웬만한 사람은 접근도 할 수 없게 되었단다.

건설사간 건축사간 이런 대형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심사위원 대상자 평소관리… 지금 대한민국 건축은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국내의 대여섯 개 회사가 한국건축물량의 90%가까이 한다니 나머지 건축사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

찌질한 일만 남아 나머지 건축사들의 입맛을 다시게 한다. 일이 귀하다 보니 약은 건축주들이 기만히 있겠는가. 조그만 프로젝트도 이런 저런 경쟁을 불여 좋은 안은 안대로 받고 일은 건축사 보수를 싸게 해 주겠다는 이한테 간다. 이제 이미저도 점점 줄어 1990년대보다 낮게 받고도 일을 한단다. 더러는 그냥해주겠다는 건축사도 나온다. 그것도 제법 뎅치가 있는 일을, 실적을 올리려 한다며… 건축계의 존폐문제를 책임지고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의 건축문화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건축과 졸업생들은 모두 어쩌고… 거꾸로 떨어지는 한국건축사의 위상, 위기의 대한민국 건축계… ■

## 설계경기 | Competition

###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종합교육관

The construction of Jinju National University synthesis education

당선작 / 성진웅 부원 • 박기성 부원(주.원양 건축사사무소)  
+ 김춘구 책임(건축사사무소 토담)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철암동 150번지 진주산 업대학교 내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중심마관지구, 학교시설결정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기념시설, 다목적 강당
대지면적	14,423.75m <sup>2</sup>
건축면적	3,510.43m <sup>2</sup>
연 면 적	15,804.60m <sup>2</sup>
건 폐 율	24.34%
용적률	103.31%
규 모	지하 1층, 지상 15층
발 주처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설계담당	박근우, 정주찬, 이은권, 송홍준, 최창남, 조재웅, 정태훈, 윤서진, 홍영기, 양동현, 주빈희

개교 100주년의 진주산업대학교는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초입부에 상징적인 종합교육관을 짓고자 하였으며, 이에 본 컨소시엄은 디자인 컨셉으로 과거의 역사성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Link Gate를 계획 개념으로 100년 전통과 100년 미래를 상장하는 독창적 조형미 연출, 에너지 절약형 교육관 건립, 지역 문화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 제공, 첨단 에너지절약형 교육시설 확보 등을 주안점으로 설계하였다.

배치개념으로는 대학본부에서 교문에 이르는 Open Space의 확보, 캠퍼스 후면의 인문사회학부로 이어지는 보행통로의 확보 및 도서관, 학생회관, 다목적 강당으로 이어지는 공공시설축의 완성을 기본 개념으로 넓고 친환경적인 녹지광장과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조화를 통한 도시와 소통하는 열린 캠퍼스 환경 구축이 최우선 목표였다.

다중이 이용하는 다목적 강당은 1층에 교육관과 분리 배치시켜 장애인의 접근

성 확보 및 교육시설과의 통신 혼재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선큰형 중심광장인 링크 프라자와 연계시켜 내·외부가 연결되는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중심코어를 기준으로 강의실은 남쪽에 배치했고, 사용목적에 따라 변화 가능하도록 가변형 평면으로 미래에 대비했으며, 5개학과를 효율적으로 그룹핑하여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수 연구실은 남향 중심부에 조성해 최적의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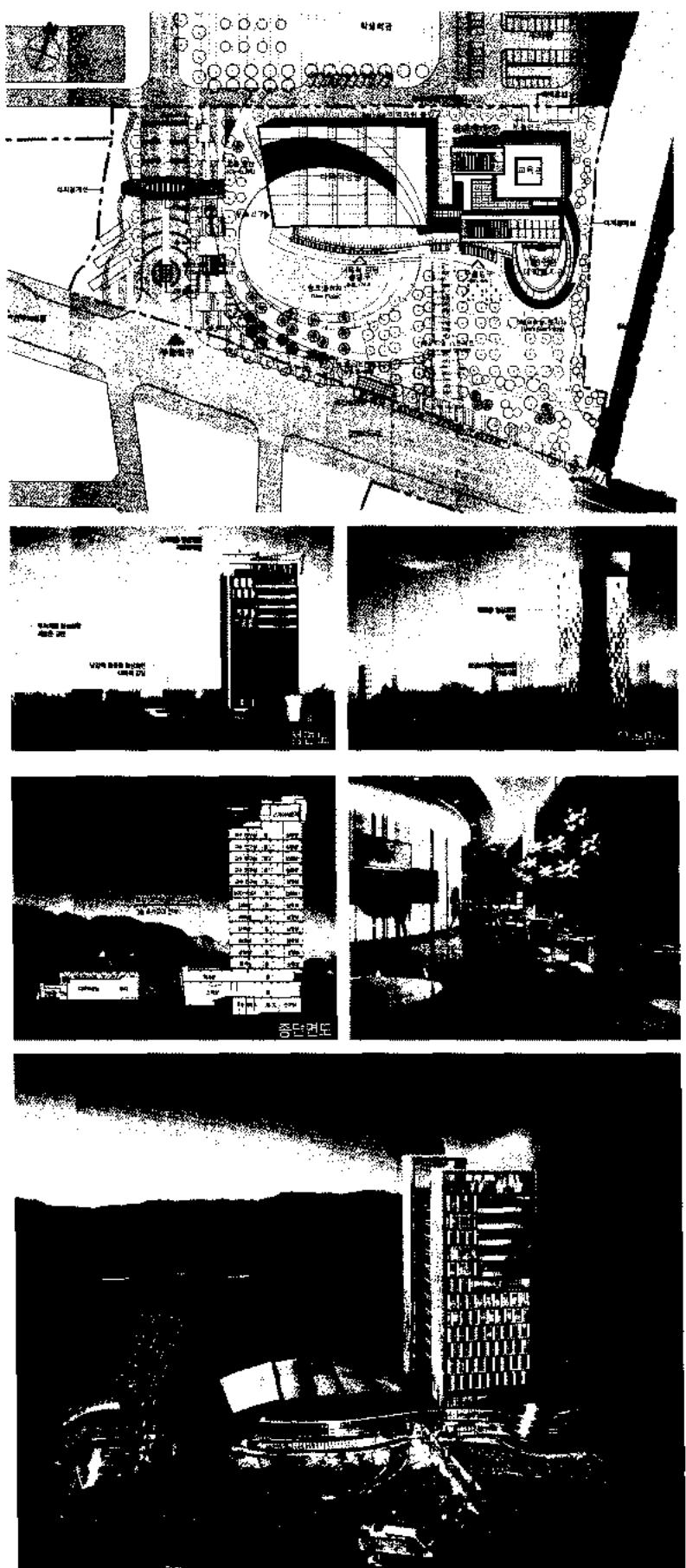
외부공간 계획으로는 남강의 흐름을 닮은 'S' 자형 가로와 링크 프라자, 메모리얼 프라자, 시간의 숲, 입체적인 조경 마운팅 등을 통해 종합교육관 뿐만 아니라 남측의 기숙사, 동측의 산학협력관을 잇는 중심적 외부광장으로서 시민에게 열린 미래지향적 캠퍼스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입면 계획으로는 과거의 100년과 미래의 100년을 연결하는 캠퍼스의 관문으로서 진주성을 형상화 했고, 남강의 유등을 모티브로 한 스카이라운지는



미래의 등불이자 진주 역사와 미래를 투영하는 시간의 프리즘으로, 기념시설은 칠암동의 유래가 된 칠암바위를 형상화 하여 인근 낙강과 조화를 이루고 시간과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주는 입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통한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였다.

기존의 교문과 고(古) 수목, 기존 보행데크 등을 보존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조화시켜 과거-현재-미래가 하나 되는 진주산업대학교 종합교육관은 100년 동안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교육관으로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진주의 열린 팬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Sanggye2 Community Center

당선작 / 김상길 한국원 · 김희옥 한국원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파밀마중앙길 30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주민센터, 다목적공연장, 스튜디오, 전시장, 마을문고, 청소년독서실
대지면적	859.00m <sup>2</sup>
건축면적	498.63m <sup>2</sup>
연 면 적	4,121.98m <sup>2</sup>
건 폐 율	58.04%
용 칙 률	357.18%
규 모	지하 2층, 지상 7층
발 주 처	노원구청
설계총괄	조준호
설계담당	류상보, 김도훈, 금동윤, 박상억, 안지수, 김창훈

The Heart\_New Premium brand of Nowon

노원의 프리미엄은 자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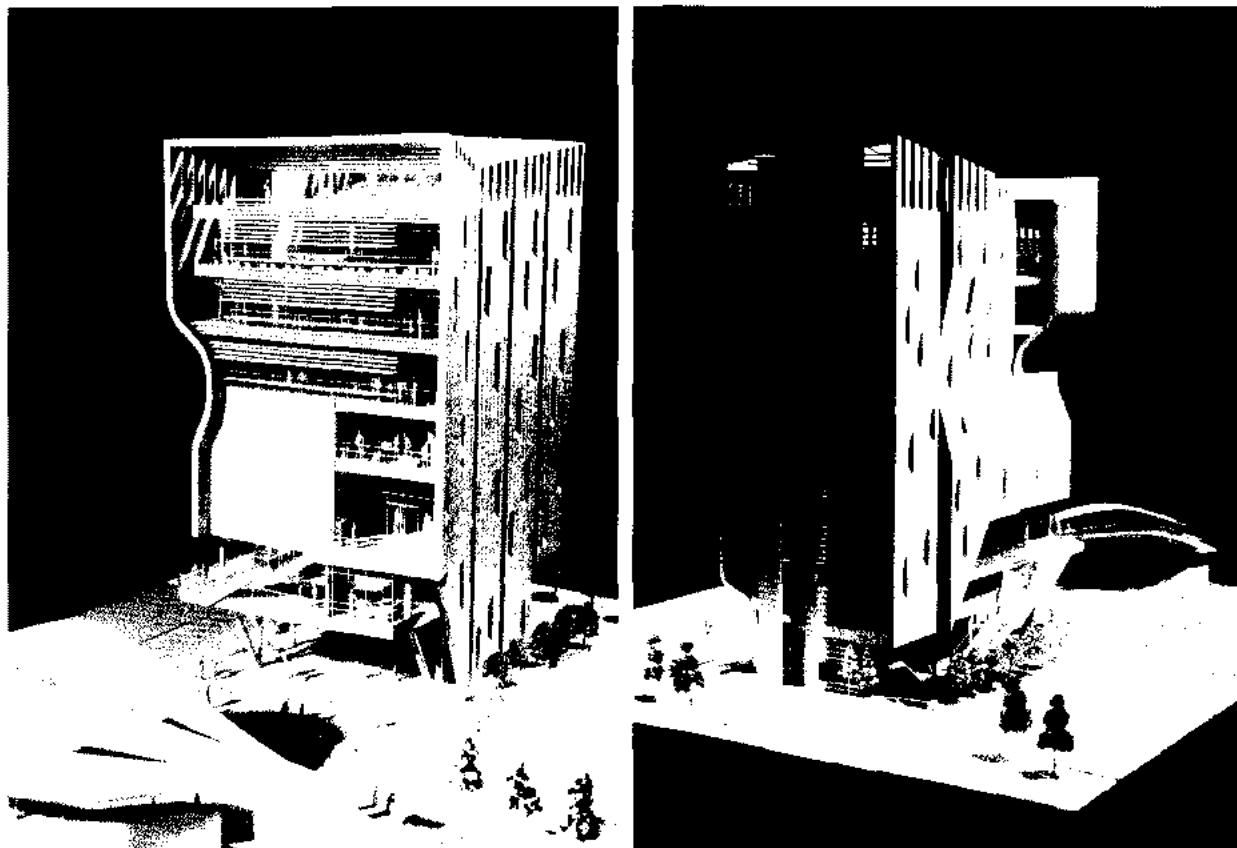
복합문화청사는 문화예술의 심장이다.

계획대지가 위치한 ‘문화의 거리’는 도시의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문화거리보다는 힘잃은 도시의 평범한 상업거리였다. 문화복합청사의 착안은 이 회색빛의 매력없는 상업거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원은 원래 아름다운 산과 맑은 천이 훌려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그래서 현재 문화의 거리부터 시작하여 노원의 프리미엄인 자연을 가슴으로 느끼는 품격높은 감성공간을 주민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감성공간은 다음의 4가지 이야기로 요약된다.

연스럽게 만든 중앙공간에서 결합시킴으로서 문화예술과 일반대중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린 중심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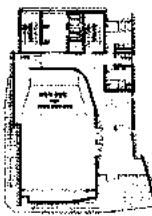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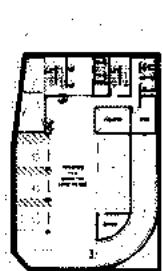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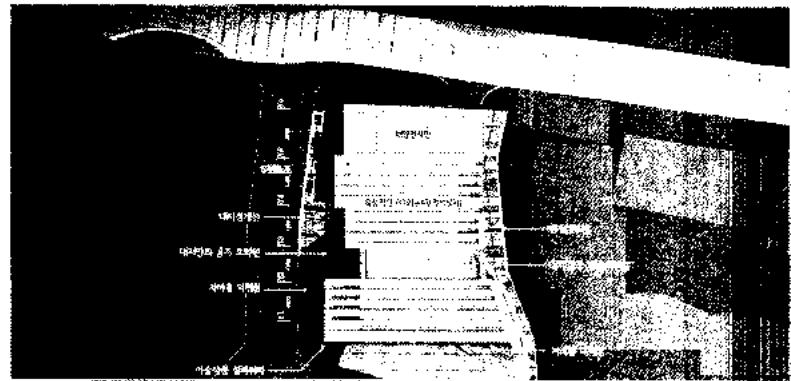
• The Heart Multi space | 다채로운 예술무대 만들기\_지상 1층은 열림, 가변, 통합의 개념으로 창안하여 고정적인 무대를 벗어나 일반대중이 스스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배우고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하는 장소를 만들 수 있었다.

• The Heart Complex |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담기\_문화의 거리의 수평적 공간을 수직적 입체공간으로 적층하여 대중의 문화예술공간의 이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다목적 공연시설은 주민의 접근이 쉽도록 선큰과 외부계단을 통하는 지하 2층과 지상 3, 4층에 계획하였고, 지상 2층은 외부계단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편리한 대민서비스시설을 계획하였다. 지상 5층에는 가변형 전시시설을 계획하였고, 지상 6, 7층에는 조



용하고 괘적한 휴게환경 속에서 교육이 가능한 대민교육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옥상에는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야외활동과 휴게가 가능한 도시의 원두막을 형상화한 옥상정원을 계획하였다.

• The Heart Stream | 자연을 복원하는 감성공간 만들기  
자연의 흐름은 장소를 만들고, 문화의 지층은 대중들의 감성을 쌓는다. 문화의 지층을 흐르는 감성은 예술공간을 빛 어내고, 예술공간은 비로소, 노원예술의 감성을 형상화하였다. 자연의 자연스런 흐름은 밤에도 태양광발전설비로 축적한 전기를 이용한 아름다운 LED조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견축화되어 문화의 거리에 감성공간을 만들어내도록 의도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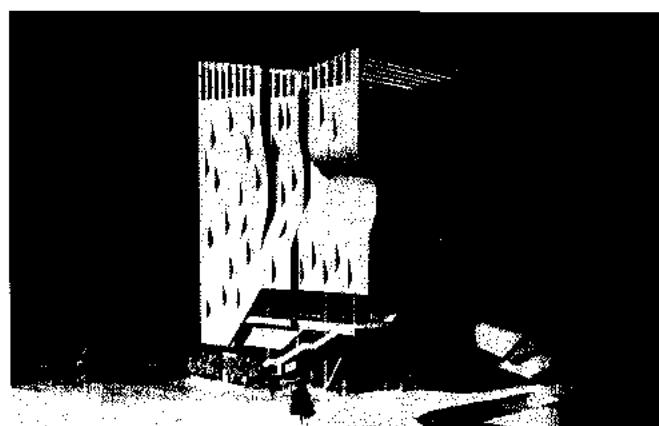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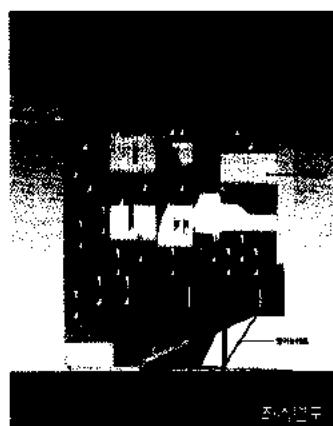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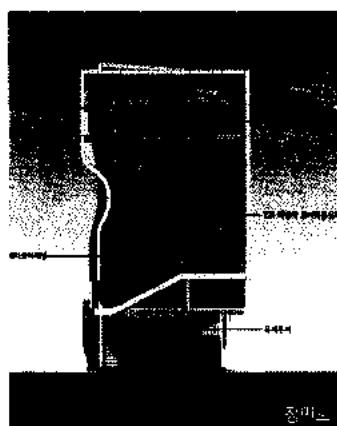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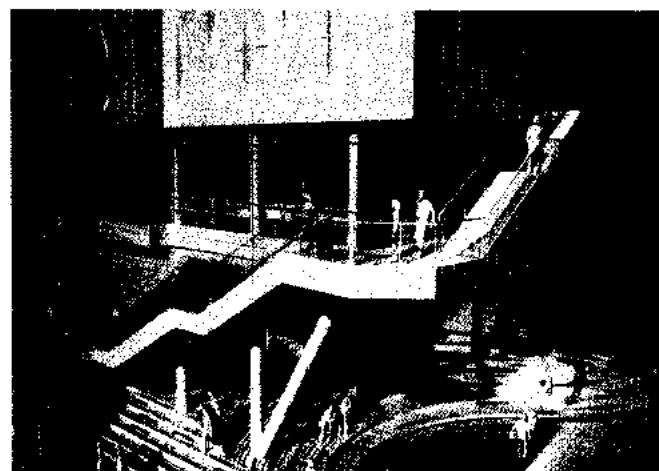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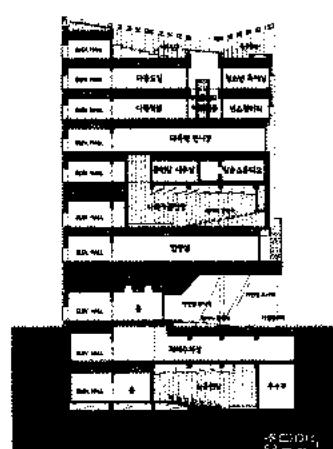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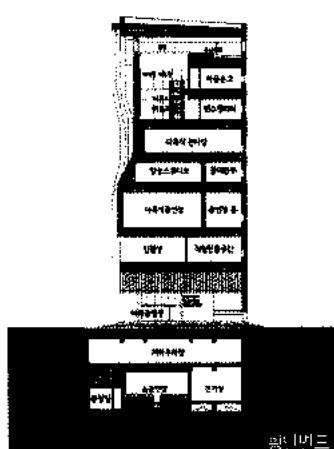
4층 평면도

7층 평면도



정문드

주차입구



5층 평면도

6층 평면도

##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Sanggye 2-dong Cultural Center

우수작 / 은동신 韓國  
(주. 이가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파발마 중앙길 30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접객시설(공연장, 전시장), 공공업무시설(동주민센터) 복합

대지면적 859.00m<sup>2</sup>

건축면적 514.25m<sup>2</sup>

전 면적 전체 : 4,268.06m<sup>2</sup>, 지상 : 2,922.64m<sup>2</sup>

건폐율 59.87%

용적률 340.24%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설계담당 서영인, 곽연희, 황미영, 최재훈, 박종국,  
차현종

### 조감도

도시 컨텍스트에 대응하는 코아벽-Urban Stage은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배경이 된다. 1층은 들어올려-Urban Livingroom 노원구 'Art Festival'의 주무대이자,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의 진입광장이 된다. 매스 사이로 빠져나온 계단-Urban Carpet는 문화의 거리를 건물로 끌어들이는 매개공간이 되며, 중층부의 매스-Urban Incubator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 문화적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프로그램간의 열개를 표출하고 있다. 최상층의 다목적 공연장-Urban Sonata은 문화의 거리를 알리는 노원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 배치계획(1층평면도)

다양한 진출입계획\_문화의 거리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은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층에 위치한 민원실의 지상화를 고려한 전면계단은 문화의 거리를 유입하는 또 하나의 전시공간이 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야외공연장은 문화의 거리(8m도보)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지하에 위치한 공연장의 진출입을 위한 선큰 계단을 계획하였고, 북측도로(6m)에는 관리자 및 서비스동선을 위한 독립적인 전용출입구와 하역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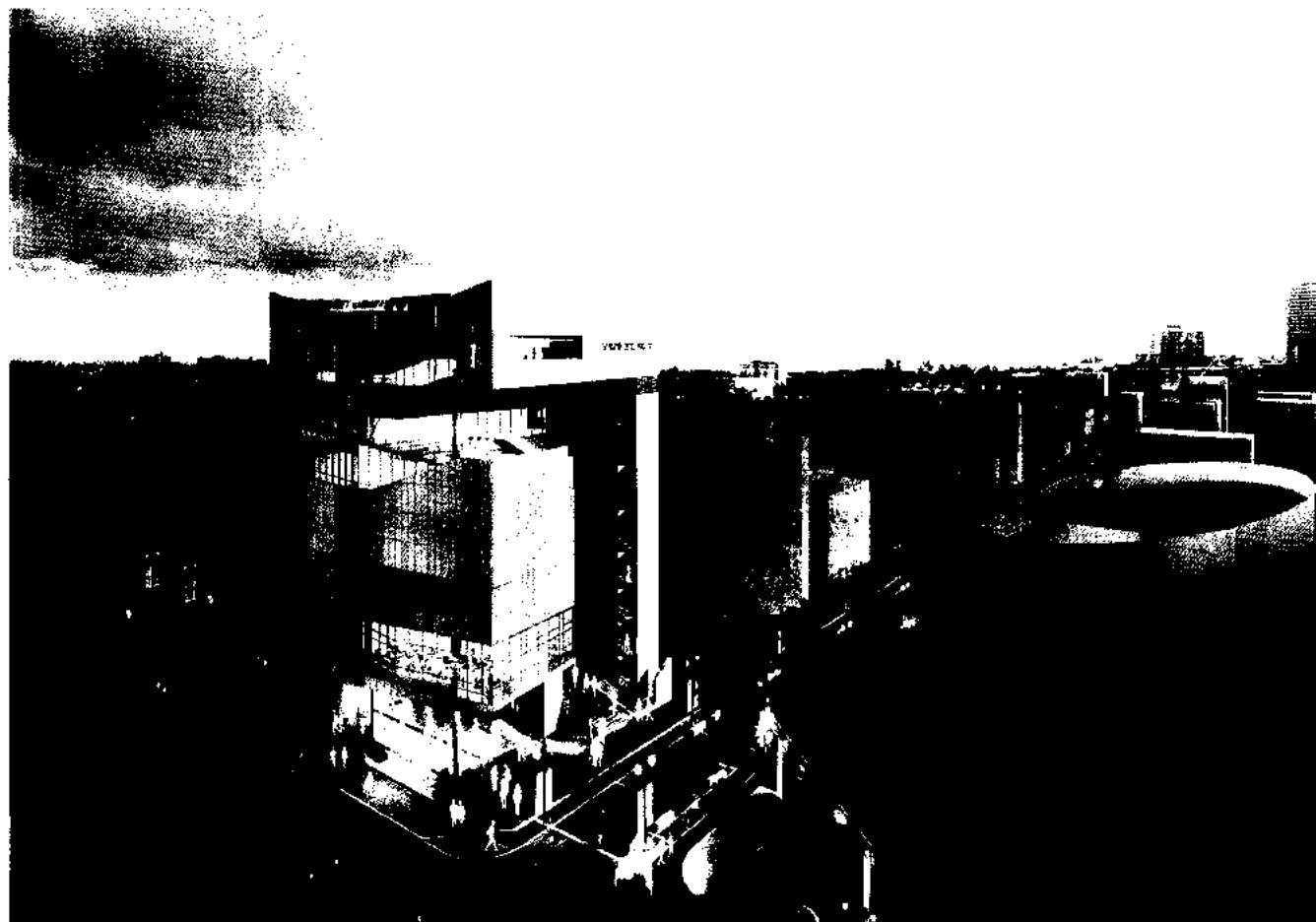
야외공연장의 영역성\_전면계단-Urban Carpet을 제안함으로써 노원구 'Art Festival'의 주무대인 1층 야외공연장과 건물출입 동선간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야외공연장은 지역주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적극적인 개방영역이 된다.

### 평면계획

합리적인 조성계획\_평면계획은 인접건물에 대응하는 코아와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공간을 심플하게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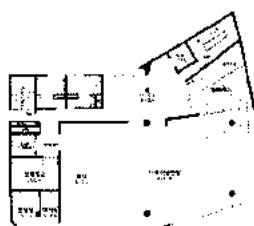
수직동선 계획은 문화의 거리에서 유입되는 이용자동선과 관리 및 서비스동선을 명쾌하게 분리하여 각각의 영역을 확보하였다.

프로그램의 연계성\_2층 동주민센터와 3층 주민복지시설, 4층 전시장과 5층 주민자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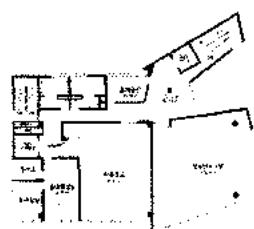


설, 5층 전시장과 6층 옥외전시장 간의 끊임 없이 흐르는 유기적인 연계는 공간활용을 극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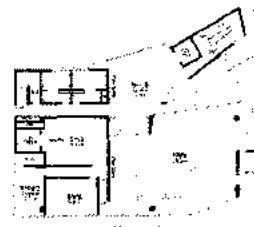
요구되는 프로그램들은 의도적으로 비워진 공간에 다양한 행위들이 채워짐으로써 공간의 열개를 구축해 가는 다양한 표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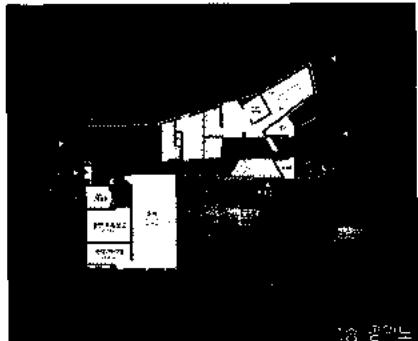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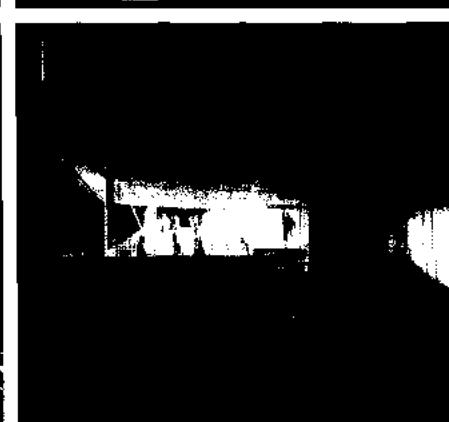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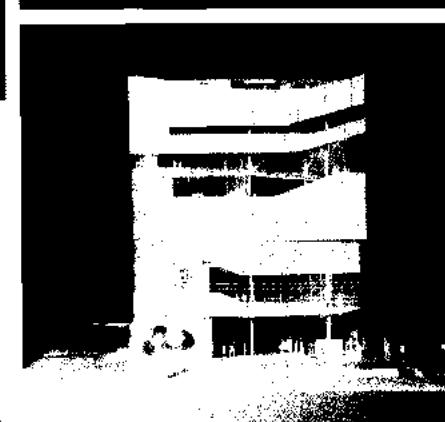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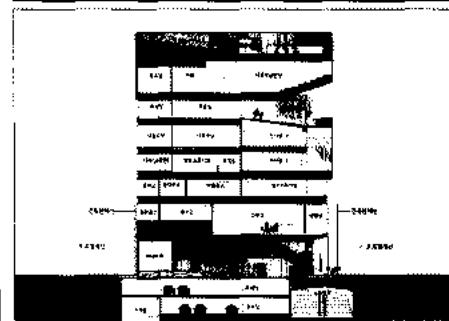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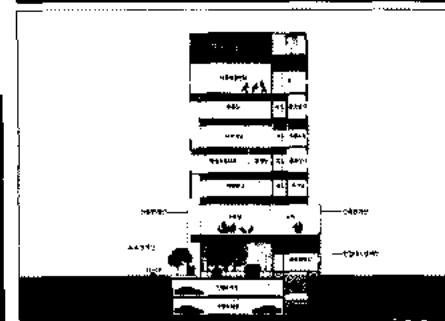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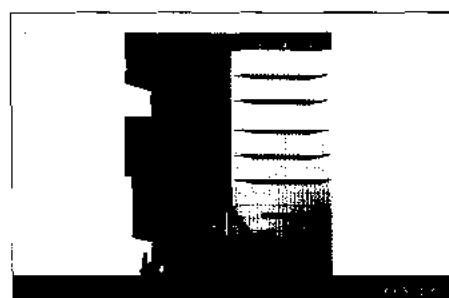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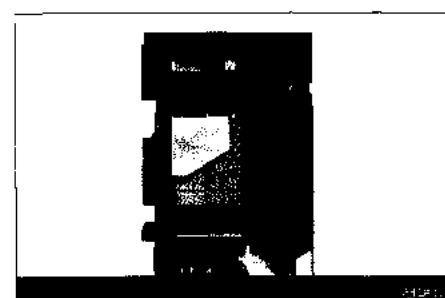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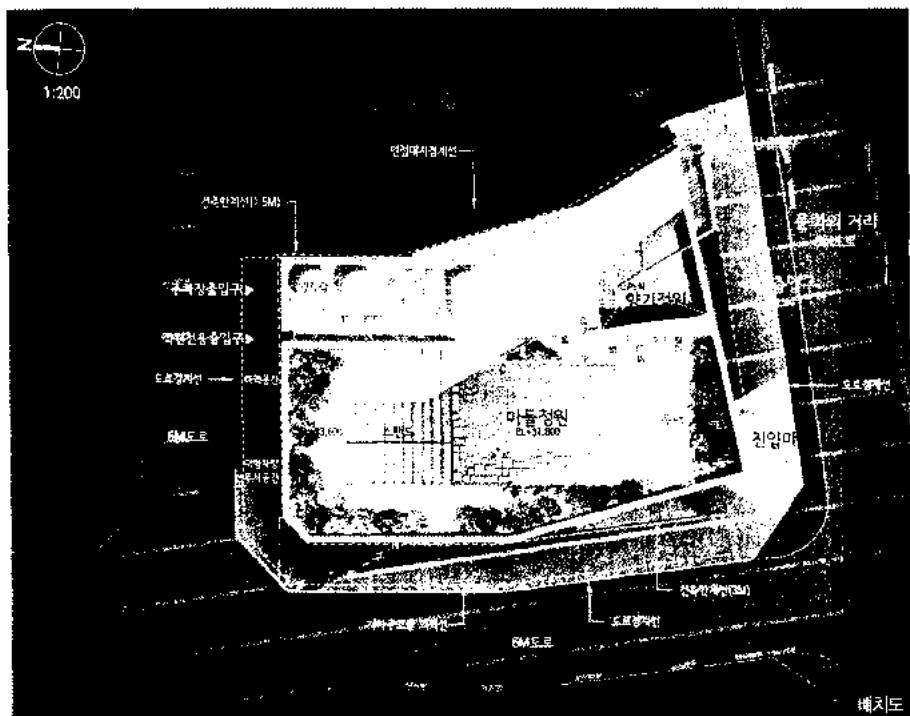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상계2동 문화복합정사

Sanggye 2-dong Cultural Center

가 작 / 강남홍 (주)다율도시 건축사사무소  
+ 이호득 (지우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파발마 중앙길 30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 동주민센터, 주민복지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대지면적 859.0m<sup>2</sup>  
건축면적 495.0m<sup>2</sup>  
연 면 적 4,197.3m<sup>2</sup>  
건 폐율 57.62%  
용적률 328.38%  
규 모 지하 2층, 지상 7층

### 대지분선

노원구의 중심지역인 노원역 인근 노원문화의 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문화, 예술 충족에 따른 접근은 노원역 및 남북대로변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며 상계2동의 행정적 접근은 북, 동향이 주가 된다.

### 기본계획방향

노원구 문화의 거리라는 새로운 기류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상계2동 지역커뮤니티센터로서의 비교적 상반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건축물을 구현시킨다.

**MULTI-PURPOSE**\_각 공연장 및 전시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장르 및 형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MULTI-FUNCTION**\_단일기능의 여러 건물이 가지는 특성을 충별 조닝에 의해 LAY-OUT 한다.

배치상의 식재면적을 수직적으로 분배하여 수직녹도를 형성하고 협소한 대지면적을 해결할 적절한 수직휴게정원을 만들어낸다.

녹지와 건물이 서로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ECO-SPACE는 문화의 거리에 새로운 패션드를 형성해 낼 것이다.

### 배치계획

지역사회와 문화의 중심\_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 예술의 중심지역활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주된 장으로서 도시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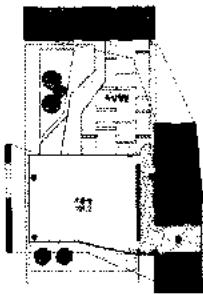
### 단면계획

입체적인 공간구성\_ 협소한 부지에서 제한된 건축면적은 자유로운 매스계획에 제약을 준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과 공공업무시설의 수직적인 조닝분리와 영역성을 형상화한 단면계획은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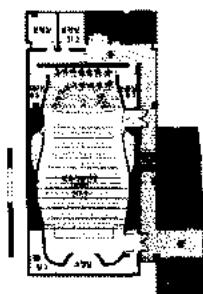
### 입면계획

문화, 예술 CODE의 형상화\_ 문화와 예술의 Symbolic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입면을 구성. 예술적 모티브와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갖춘 입면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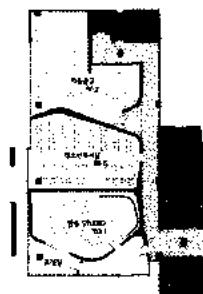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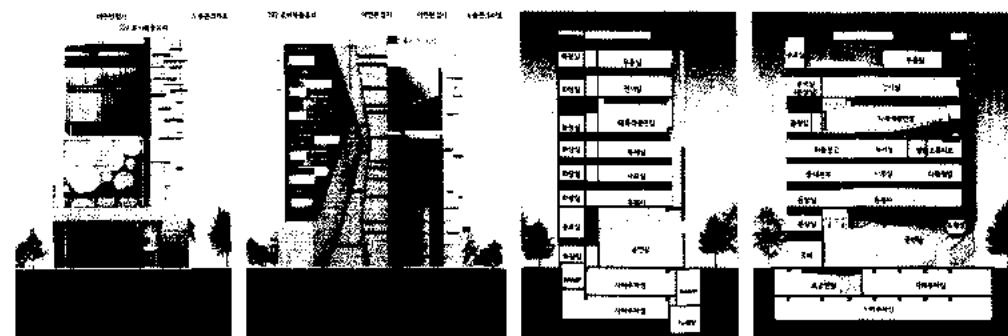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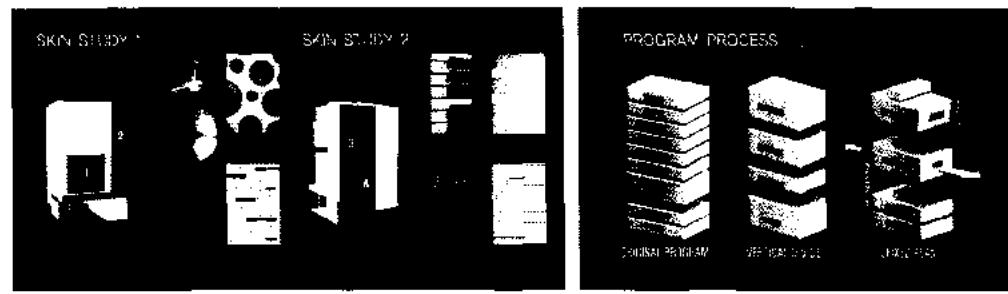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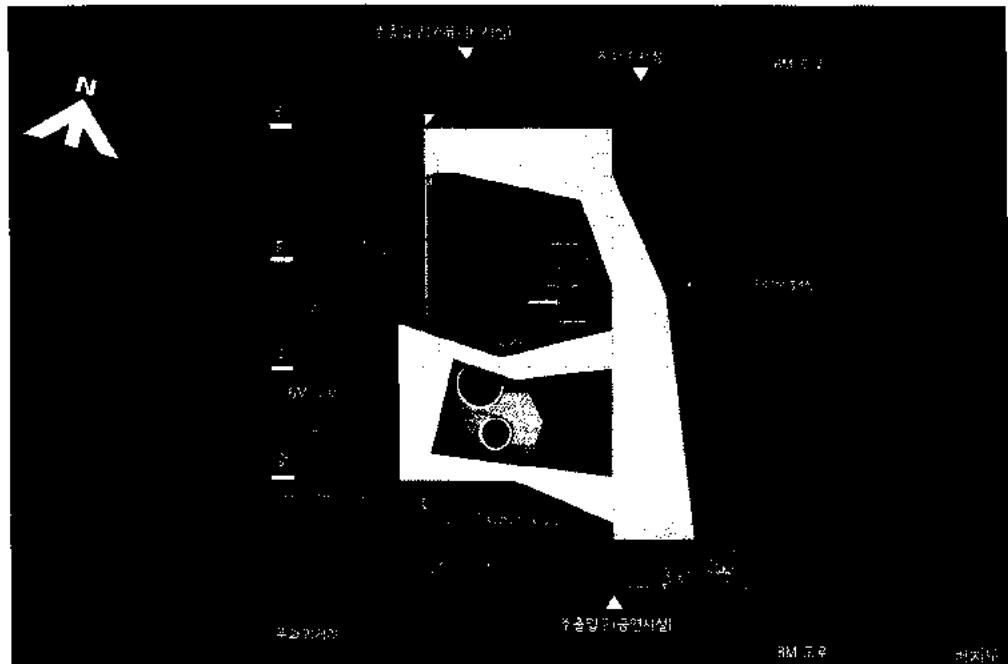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25



## 설계경기 | Competition

###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Pohang Traditional Culture Center

#### 당선작 / 차문송 韓東松

(주.상지디엔에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기복면 오덕리 235-1 와 2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요용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대지면적	8,311m <sup>2</sup>
건축면적	1,730.15m <sup>2</sup>
연 면 적	1,538.52m <sup>2</sup>
건 폐 율	20.80%
용 적 률	18.50%
규 모	지상 1층
발 주 처	포항시
설계담당	박태영, 김창영, 이기화, 최영준, 박민규, 박지현, 이현호, 은소진

#### 계획개념

오랜 전통을 가진 포항 덕동마을의 전통문화의 향기를 외부인들에게 알리고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자 전통문화 체험관을 계획하였다.

느끼며 전통놀이마당과 안마당 사이의 전이공간으로서 사이마당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평면계획

- 제험관과 전시관의 분리로 관람객별 동선의 분리
- 숙소의 회랑 및 뒷마루에서 전통가옥의 저마공간을 체험
- 외부활동공간(전통놀이마당)과 숙소 공간(안마당)의 명확한 분리
- 전체 평면배치에서 서비스공간을 중앙에 위치하여 이동동선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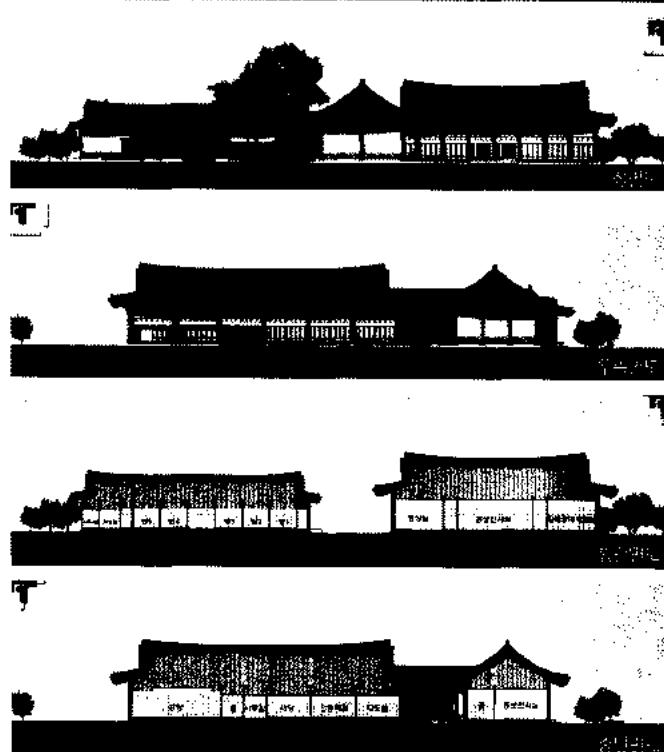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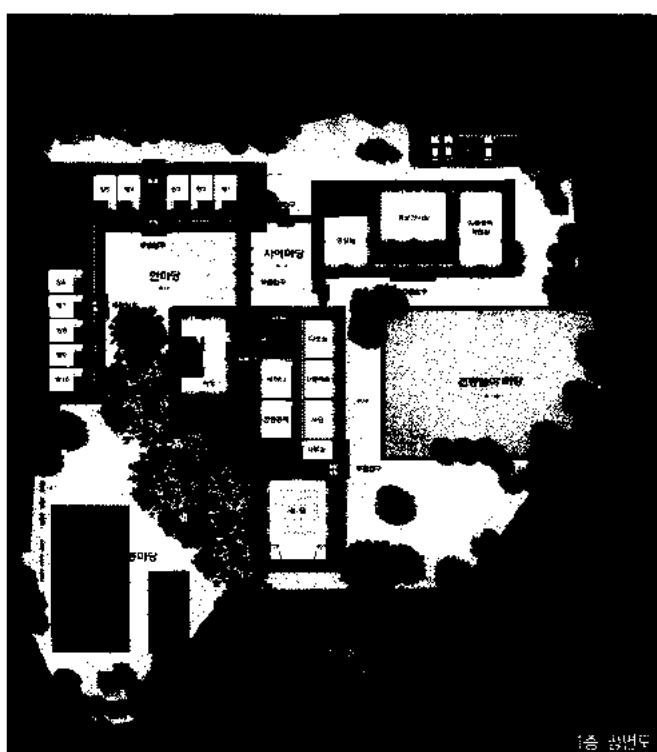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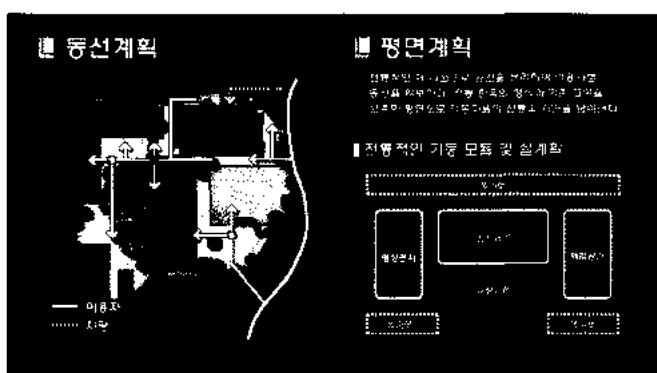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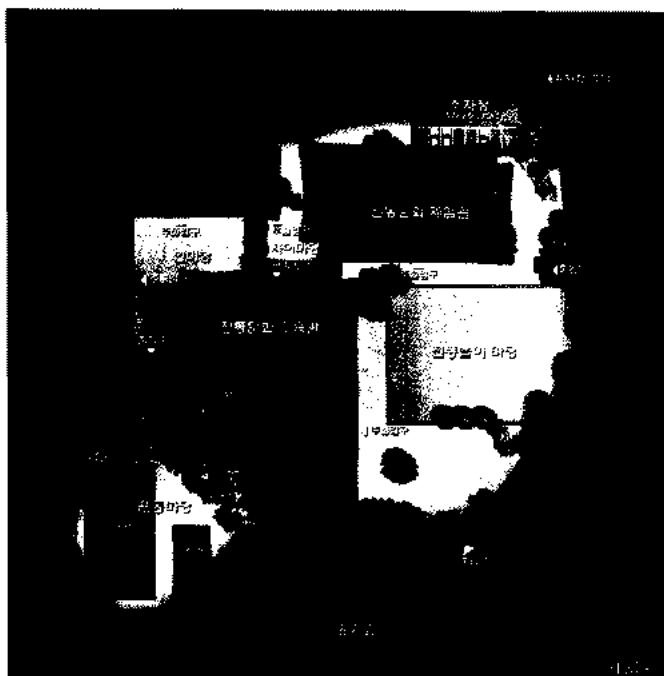
#### 입면계획

- 전통의장요소를 도입하여 전통마을과 어우러지는 공간연출
- 중첩된 지붕으로 덕동전통마을과 주변의 능선의 선들과 하나가되는 마을의 원경 도출
- 주변의 자연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열리는 계획 ■

#### 외부공간배치

방문객들은 체험관과 교육관으로 둘러싸인 전통놀이마당에서 외부활동을 하게 되며 숙소의 뒷마루 앉아서는 전통 가옥 안마당의 전통조경공간을 봄으로





##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Pohang Traditional Culture Center

우수작 / 조외곤  
(건축사사무소 조앤강)

대지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가북면 오덕리 235-1와 2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요용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대지면적 8,311.0m<sup>2</sup>

건축면적 1,748.49m<sup>2</sup>

연 면 적 1,574.15m<sup>2</sup>

건 빼 율 21.04%

용 량 률 18.94%

규 모 지상 1층

설계담당 강순우, 김덕화, 심우영

덕동마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무수한 역사 를 간직하고 있는 고택들과 연계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표현하고자 했으며, 주변 고택의 형태와 주위 산들의 형상 모티브로 현재의 덕동마을의 자연미와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였으며,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에 순응하고 아름다운 덕동마을과 함께 가치 있는 공간이 되고자 계획하였다.

### 배치계획

건축공간\_교육관과 체험관의 독립적인 공간 계획 및 유기적 연결을 고려

녹지공간\_녹지 공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려

주차공간\_친환경 주차장으로 보행자와 차량 동선 분리

축식공간\_적절한 녹지 공간과 다목적 옥외 공간 계획

전통놀이마당\_공간\_다양한 전통 놀이를 경

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계획

운동공간\_이용자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공간 계획

### 평면계획

- 'ㅁ' 자의 평면 형태를 모티브로 프로그램 별 조닝 계획
- 안마당을 두어 시각적 개방감을 창출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 확보
- 다양한 진입 체계로 접근성 및 이용성을 고려한 계획

### 입면계획

- 자연에 순응하며 침곡산과 자금산의 산세를 입면 전개에 반영하여 자연의 미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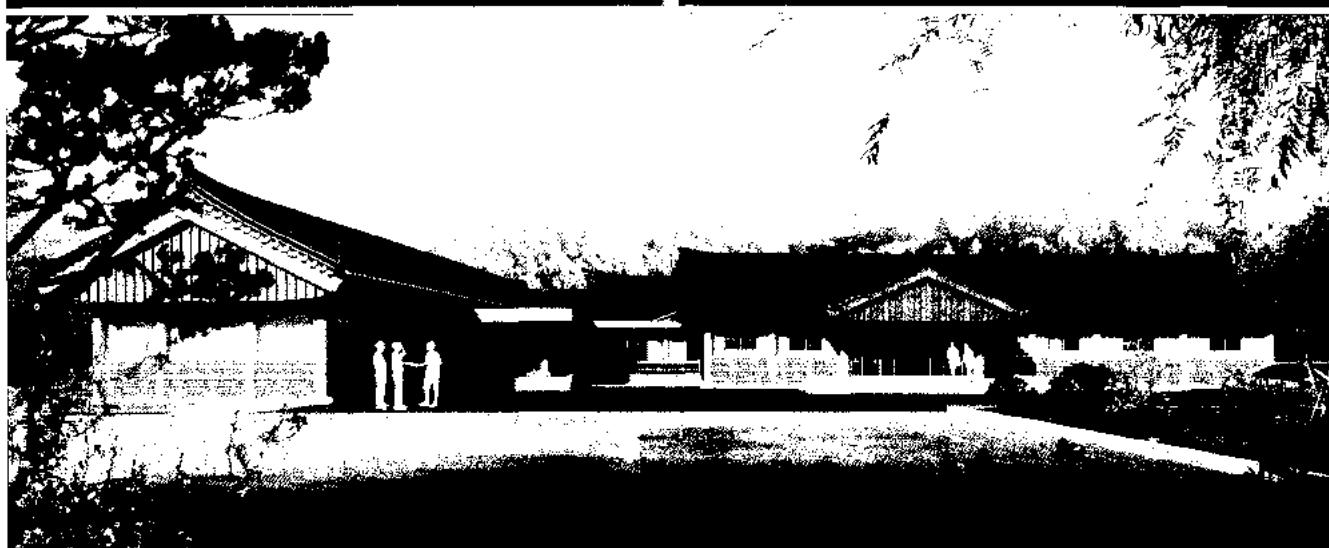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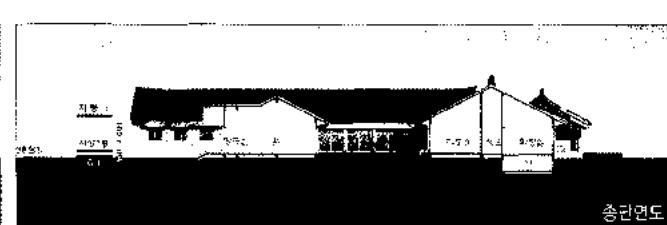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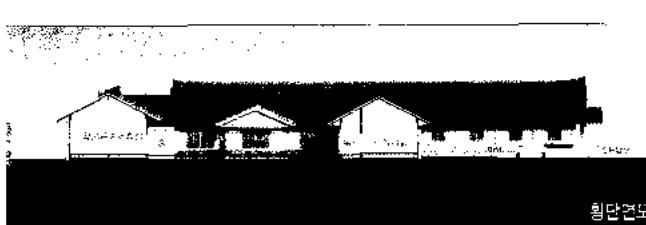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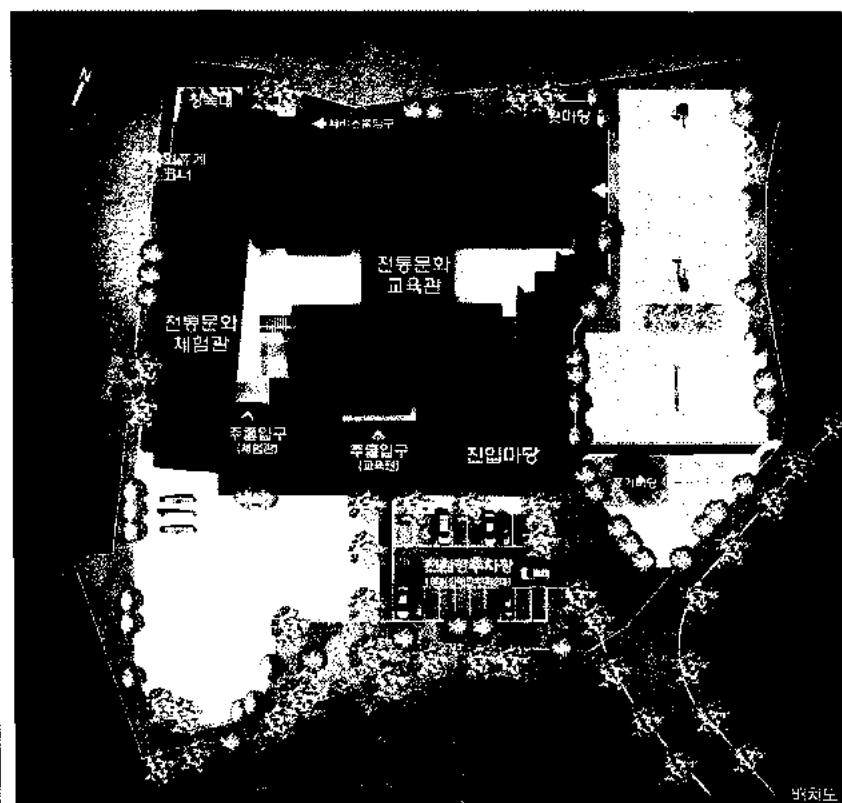
### 단면계획

- 완충 공간인 중정을 두어 원활한 동선 흐름과 조망 및 환기를 고려한 계획

### 동선계획

- 주변의 문화재, 민속자료들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마을의 상징성을 고려
- 매스의 배치에 따라 다양한 흐름을 유도하고 열린 커뮤니티 공간 형성 ■





##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Pohang Traditional Culture Center

가 작 / 이관직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235-1의 2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요용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대지면적 8,311.0m<sup>2</sup>

건축면적 1,861.3m<sup>2</sup>

연 면 적 1,572.8m<sup>2</sup>

건 폐 율 22.4%

용 칙 률 18.9%

규 모 지상 1층

설계담당 한웅식, 최유민, 권재영, 이삼화, 김정래,  
김경마, 김미순, 김윤수, 한소영, 류희완

### 포항전통문화체험관\_단연재(蠶燃齋)

흥미로운 세 단어가 현상설계를 참여하게 만들었다. 전통 문화 그리고 체험이라는 단어가 그것이었다.

'전통'이라는 단어는 그것의 의미와 더불어 현대화의 숙제를 가진 단어이다. 문화는 현재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의미하면서도 축적과 역사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것이 결합된 '전통문화체험'이라는 단어는 건축의 현대적 의미를 찾으라는 명령과도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현대 건축을 통해서 보전해야 할 문화적 내용을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본 프로젝트에 접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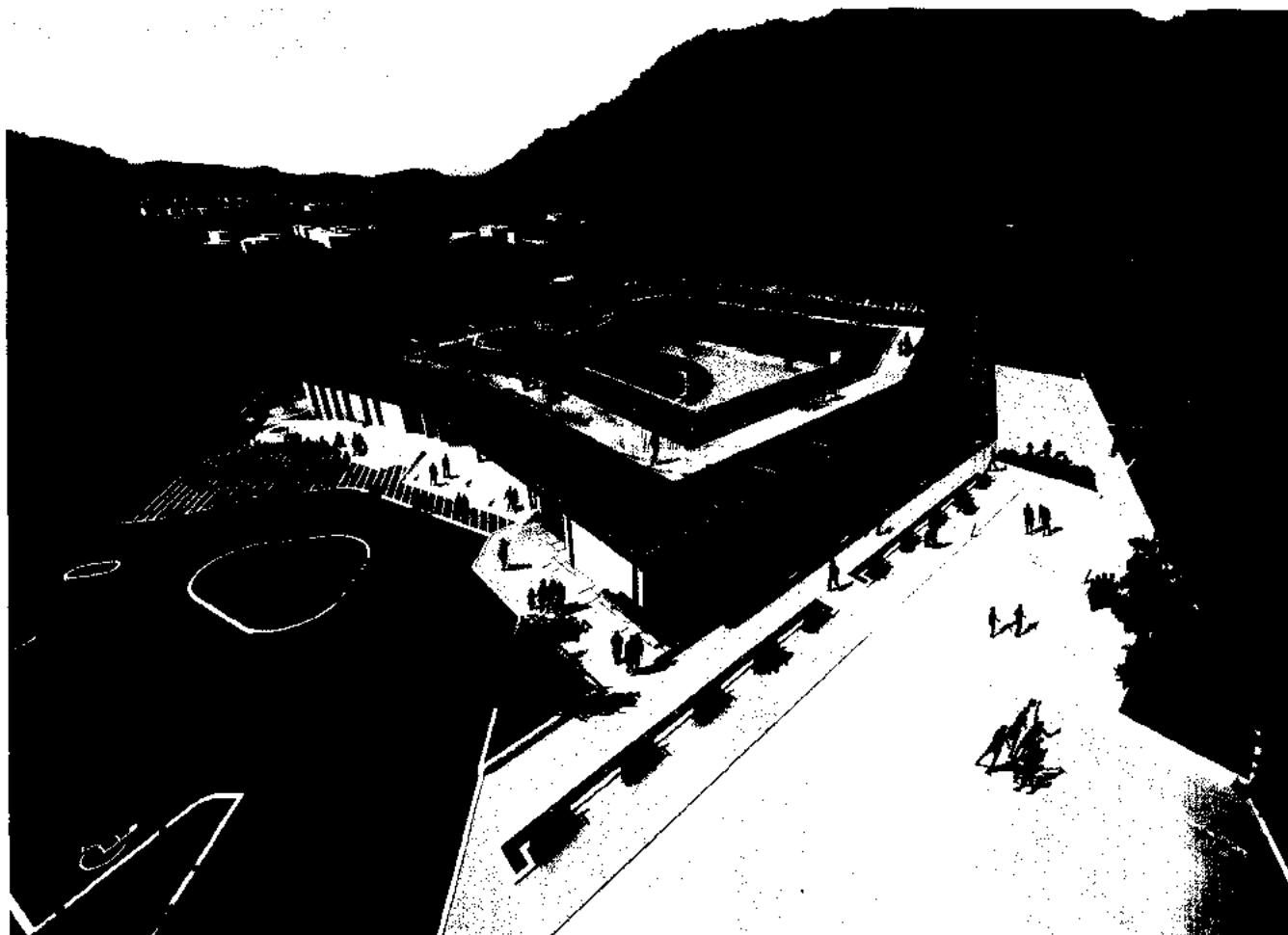
단연재는 비워진 마당을 중심으로 진입공용부분, 주거부분, 체험전시부분, 교육강의부분의 네 면을 가진 건물이다.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구상된 건물의 형태는 대지 모양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변형되어 자유로운 형상을 만든다. 네 면을 이루는 각각의 모든 기능

실은 개별적인 기능과 환경적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인접하지 않고 구분되어 룹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복도 혹은 공용 부분은 가운데의 마당에 면해 있으며면서 회랑과 같은 형상으로 각각의 기능실을 연결한다.

네 면으로 연결된 건물은 지붕과 전망레벨로 올라가는 계단 공용부에 의해서 평면적인 초점이 생긴다. 이 계단 공용부는 지푸라기 전통공예의 구법으로 짜여진 일종의 소쿠리로 싸여있다. 레비공모양과 같은 평면 형상의 소쿠리는 전통적인 짚공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또한 사각 모양의 평면에 활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서 단면에 관한 건축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설계 지침에서 요구된 기와지붕은 전통적인 지붕의 경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구배는 중심에서 밖으로 치켜올려진다. 날아가는 듯한 새의 날개를 닮았다. 그런데 절곡된 중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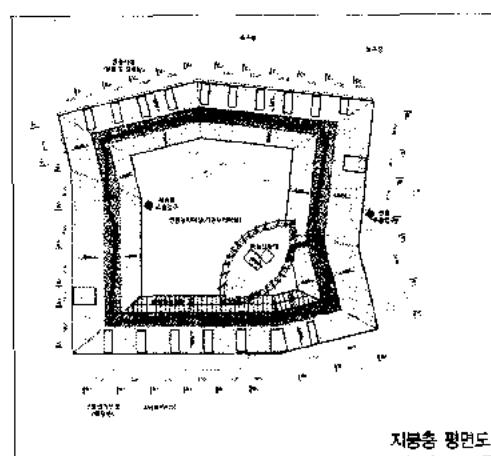
는 ‘ㄷ’ 자로 합물되면서 익상 녹지가 되고, 억새가 자라게 될 것이다. 역시 ‘ㅁ’ 자 평면 모양의 억새 녹지는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면서 특히 가을에는, 억새풀으로 새로운 은빛 풍광의 지붕을 연출할 것이다.

처마의 장점과 경사지붕의 날렵한 가벼움이 전통적  
이면서 새로운 형식의 기와 건축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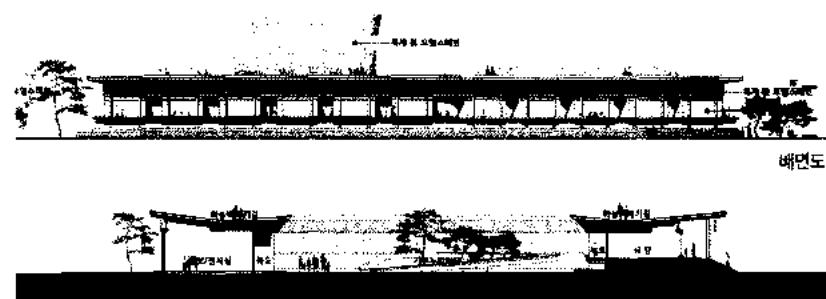
모든 공간은 단면 크기에 따라서 레벨과 위치가 변화 있게 구성된다. 주거부분의 바닥은 높고, 상대적으로 천정은 낮아진다. 전시장의 바닥은 낮고 천정과는 높아진다. 다양한 레벨에 접근하기 위한 건축적인 장치는 또 하나의 조형적인 표현이 되고, 더불어 무장애공간 계획에 기여한다. ■



정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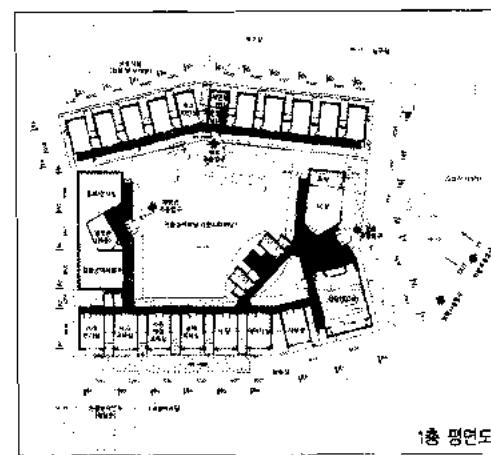
지문출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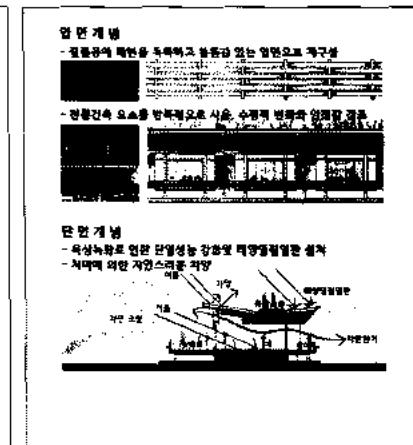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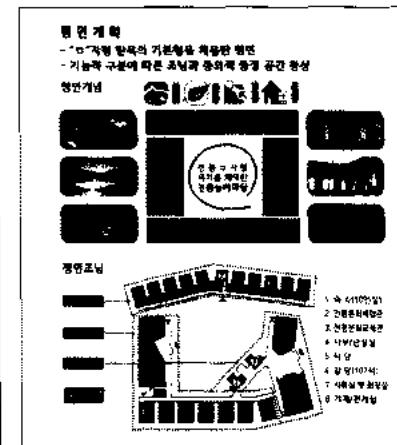
별면도



100



300



# 건축의 공공성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역할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Architectural Policy and Architecture Center in promoting the publicness and participation in architecture (A case of the Netherlands)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와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목 차

-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사례  
A case of the Architectural Policy in the Netherlands promoting the publicness of architecture
- 건축의 공공적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네덜란드의 건축 센터 사례  
A case of the Architecture Centers in the Netherlands in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architecture

필자 : 조임식, 현 싱가포르 국립대 건축학과 조교수

by Cho, Im-sik



조임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네덜란드 베를리히 건축대학원(The Berlage Institute Rotterdam, The Netherlands)에서 수학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에서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과 로테르담(OMA)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했으며 베를리히 건축대학원, 스페인 IaaC(Institute for Advanced Architecture of Catalonia), 한국예술종합학교, 울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 및 설계 스튜디오를 진행하였다. 공간문화기획그룹 ACIA(Architectural Creativity Initiating Agency)의 대표를 역임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T/F팀 위원, 건축정책 국제심포지엄 기획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국가 건축정책 기본 계획 수립 전문가 T/F팀 위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12인 12색: 제주 도시건축 이야기(공저), 2007〉,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공저), 2009〉가 있다.

#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사례<sup>1)</sup>

- A case of the Architectural Policy in the Netherlands promoting the publicness of architecture -

## 서언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혁신과 창조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 나라다. 척박한 자연조건과 밀도 높은 인구분포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에 대한 요구가 필수적이었다. 이는 건축계에도 적용되어 90년대 초입에 네덜란드 건축계에서는 렘 콜하스(Rem Koolhaas)를 필두로 젊은 건축사군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주목을 받았고 세계 최초로 정부가 주도하여 수립한 건축정책 관례제도 및 기관들이 네덜란드 건축문화의 질을 크게 증진시키며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사례 중에서 네덜란드 건축의 사례를 주목하는 것은 현 시대 적 제반 조건의 변화에 대해 독자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가군의 출현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새로 운 제도를 구축한 선도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진 건축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작품 활동의 촉진뿐만 아니라 건축의 공공적 실천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건축기관의 설립,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자국의 건축문화를 증진시킨 네덜란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네덜란드 국가건축정책의 변천과정과 역할

### 단계적 건축정책의 추진

네덜란드에서 60년대 사회복지국가로서의 체제 이후 최초의 건축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문화'로서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어 건축정책의 수립에 차수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전후 복구 시절에 건축은 건설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건축에 대해 대중의 새로운 관심을 촉발시킨, 70년대의 주요 미술관에서 기획한 자국 건축에 대한 몇 차례의 전시회는 대중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후 80년대부터 '문화'로서의 건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다수의 요인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진보적인 젊은 건축가 세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춘 정부 관계자와 시공무원, 활발한 출판 작업으로 담론을 형성한 건축역사가와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네덜란드 지역건축센터들의 선례가 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공 토론의 장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건축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sup>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네덜란드에서는 활발한 도시재생의 결과로서,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건축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고 건축사와 도시계획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비평가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도 건축적 질의 제고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다. 80년대 후반 개인주택 소비자들의 욕구와 건축의 질에 대한 대량의 출판물과 증폭된 건축 전시회, 디자인 설계경기, 건축답사 등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했다.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는 건축에 대한 전혀 없는 관심이 증폭되어 그것이 일반대중, 건축주, 지방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그것은 야심 찬 프로젝트를 위한 많은 설계경기, 다양한 커미션과 '건축적 질을 촉진' 하는 데 목적을 둔 기획들로 표출되었고 후자의 목적은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가 되어 1991년에 교육문화과학부(OCW: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와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가 공동으

1) 이 글의 일부 내용은 《조임식: 김광현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건축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 25권, 제 1 호, 2009년 1월》에서 발췌, 편집하였다.

2) 80년대의 이와 같은 향상된 건축 환경에서, 문화부와 주택부는 사회 안에서 이미 시작된 움직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국가건축정책을 제기하게 된다. Discussing Architectural Quality -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Seminar Report), 2003, p.67-68

로 제1차 건축정책 '건축을 위한 공간(Space for Architecture)' 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이는 세계 최초의 정부주도 건축정책을 시행한 것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두 부서간의 공동정책 수립은 건축정책을 문화정책과 건설정책 사이의 중심축으로 인식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제1차 건축정책의 수립 이후 건축문화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은 활발해졌다. 1993년 9월 15일 헤이그에서는, 네덜란드 건축재단(Netherlands Architecture Fund)의 공식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같은 해 10월 11일에는 건축센터지원재단 (Architectuur Lokaal)의 공식발표가 뒤따랐고, 10월 29일에는 베아트릭스 여왕이 직접 네덜란드 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의 건축 개관식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제1차 건축정책의 수립으로 베를라헤 인스티튜트(Berlage Institute), 유로판 네덜란드(Europen Netherlands), 네덜란드 시각예술·디자인·건축 재단(Fonds BKVB) 등 다수의 건축기관이 설립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건축정책의 수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고조된 건축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문화과학부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두 부서간의 협력의 결과인 정책문서 "건축을 위한 공간(1991~1996)"에서 기술된 바가 실질적인 결실을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제1차 건축정책 '건축을 위한 공간'은 건축의 질을 위한 '조건'과 '주체'들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관들과 재단의 설립으로 다양한 건축촉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었으며, 이들은 디자인 영역 내에서의 지식 개발과 확산 그리고 일반 대중의 건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어 두 번째 건축정책 문서인 '공간의 건축(Architecture of Space, 1997~2000)'에서는 규모를 보다 넓혀 도시개발과 조경, 기반시설까지 다루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과 조경,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건축정책의 규모를 확장한 점은 건축을 건축물 자체만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교정하고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일 그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정책에서는 교육문화과학부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이외에, 농업자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 Fisheries, LNV), 교통공공시설수자원관리부(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 Water Management, V&W)가 더 참여했고 건축의 촉진, 지역정부와 민간섹터에 대한 장려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강조했다. 여기서의 의의는 이를 정부부서가 건축과 공간환경을 위해 국가건축가가 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건축정책 플랫폼과 부서 간 실행 팀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확장된 공동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정책 문서인 '네덜란드 만들기(Shaping the Netherlands,

2001~2004)'는 정책의 시행에 강력한 초점을 맞추고 설계자의 역할과 좋은 발주방식에 대해 강조하며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 교육문화과학부(OCW), 농업자연식품부(LNV), 교통공공시설수자원관리부(V&W)와 경제부(EZ)에 의해 작성되었다. 여기서는 10개의 대형 시범 프로젝트(Large Model Projects)를 도입하여 활력 있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에 따라 건축정책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한편, 조경, 기반시설,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국가자문단의 임명으로 인해 국가건축가(Chief Government Architect)의 지위도 격상되었고 정책의 실행계획들은 이전의 두 정책을 계승하고 향상시키며, 그 초점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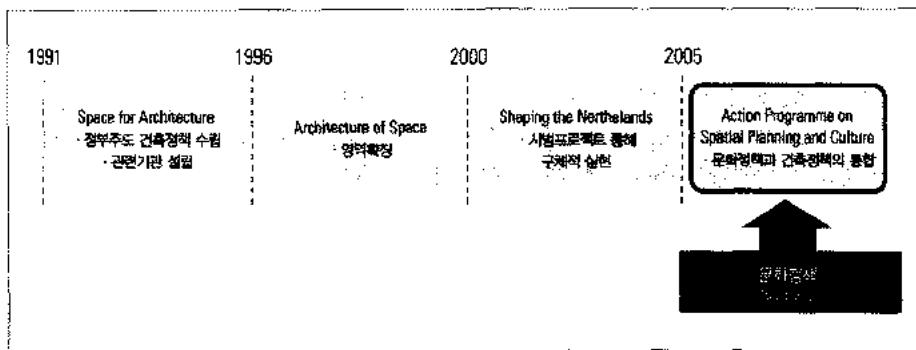
한편 2004년에 네덜란드 정부 내각은 제4차 건축정책을 수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2005년 5월에 도입된 '공간 계획과 문화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sup>3)</sup>은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 교육문화과학부(OCW), 농업자연식품부(LNV), 교통공공시설수자원관리부(V&W), 경제부(EZ), 외무부(BUZA), 국방부 등 일곱 개 정부 부처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 정책과 공간 계획에 문화·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Belvedere) 정책의 조합으로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고안하는 데에 되었다.

정부는 '공간 계획과 문화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시범 프로젝트로 정하고 건축정책과 문화정책을 조합한 자원과 시설을 지원하였다. 프로젝트들은 시범 프로젝트, 법적 틀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프로그램과 자금과 축진 그리고 지식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등 4개 분야로 분류되었다. 이 프로젝트들의 목표는 공간 개발 프로젝트에 디자인 요소를 포함 시킴으로써 공간 계획에 문화적 요소를 제고하고, 문화적 요소가 계획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적 접근과 문화·역사, 건축, 도시개발, 조경 영역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각 부처의 협력 아래, 정부가 좋은 설계발주를 실현하고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도모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 공간 개발 정책의 최우선 시행자들이 좋은 설계발주와 통합된 개발을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1991년부터 현재 까지 총 3차례의 건축정책문서와 1차례의 실천 프로그램을 발간하여 건축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즉, 1단계에서는 기반의 구축, 2단계에서는 영역의 확장, 3단계에서는 시범프로젝트의 운영, 그리고 4단계에서는 문화정책과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단계별 추진전략의 구축은 건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즉, 건축정책의 수립 1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건축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기관 설립

3) 제4차 건축정책 대신 도입된 '공간 계획과 문화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공간의 질을 위한 공동의 작업(working on spatial quality together)'을 강조하며, 중앙, 지방 및 민간 전문 조직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sup>4)</sup>

을 주도하여 향후 건축정책 실행의 확실한 '주체'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 점은 건축기본법 입법과 함께 본격적인 건축정책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지만 정책의 실행주체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중요한 지점이다. 또 2단계에서 도시개발과 조경,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건축정책의 규모를 확장한 점은 우리나라의 건축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건축을 건축물 자체만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교정하고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일 그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어 3단계에서 대형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주도하였으며 4 단계에서 건축과 문화의 접목을 위해 문화정책과 통합을 시도하여 공간환경의 수준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가 참여해야 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 양질의 공공건축물 생산 유도

국가건축가직은 네덜란드 공공 건축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있으며 이는 중앙 정부가 관여하는 건축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전반적인 건축을 모두 포함한다. 국가건축가는 건축, 예술, 도시계획에 대해 정부의 조언자로서, 건축의 공공성과 디자인의 질을 보장하는 자문과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 내는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의 공간정책의 방향설정 수립 및 그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주축으로서 폭넓은 사회·건축적 역량을 가진 민간건축가를 임명하여 국가의 건축정책의 작성과 시행에 있어서 핵심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국가건축가'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도를 네덜란드는 이미 200년 전부터 도입하였지만, 90년대 초 건축정책의 수립 이후 계속적인 건축 정책 제안과 국가적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국가건축가의 역할이 부처를 막론하고 강화되고 있다. 2004년 이래로 국가건축가는 국가자문위원회(Board of Government Advisors)의 의장직을 맡아 오고 있으며 이 국가자문위원회는 디자인 연구와 설계의 자문, 특히 공공의 설계발주 개선, 품질의 보장 등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가건축가는 내·외부 컨설팅과 함께 융통성 있고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방식을 둘려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담당부처의

목적과 관련해서 디자인에 대해 토론을 거치며, 토론의 결과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예산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2005년 초에는 국가건축가 기구가 조경, 문화유산, 기반시설의 세 분야에 대한 자문단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공의 협력과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공간에 대한 협력적 조정 시스템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네덜란드의 사례는 공간환경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인 조율 시스템이 일관된 공공공간을 계획, 유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공간환경 전반을 다루는 일이 비단 어느 한 분야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질 수도 없으며, 공공공간에 관여하는 여러 분야들이 모여서 일관된 목표를 향해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까지의 배타적인 관행 하에서 그 동안 분절적으로 이해되고 접근이 이루어지던 공간환경을 이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공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국가건축가직이 수행하는 건축정책의 추진과 감독에 대한 자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국가건축가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여 자문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의 질과 디자인 영역의 조기 투입을 보장하고 이 외에도 프로젝트와 도시의 관계, 도시적 가능성들의 활용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건축가는 주택공간계획환경부(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산하인 국가건설청(Government Buildings Agency)에 소속되어 있는데, 국가건설청이 직접 관여하는 프로젝트는 추진 초기에 반드시 디자인 요소를 고려, 투입하며, 국가건설청이 관여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디자인 영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에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지만 독립적인 국가건축가 자문단의 역할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즉 국가건축가의 자문 필요성은 국가건설청과 주택공간계획환경부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 지방 행정당국,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거 문제의 질, 공공 프로젝트에 예술 작품의 참여 비율 보장, 기념비와 건축유산 보존에 대한 자문, 국가발주 프로젝트 및 공모 참여 건축가의 초대 및 선출 등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건축가의 역할은 건축, 도시공간계획, 기반시설, 조경개발, 문화유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넓게 확장되고 있다.

한편, 국가건축가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발주하거나 재정

4) 김상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건축과 사회, 12호, 새건축사협의회, p.21, 2008

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해 양질의 건축물 확보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자문을 하는데 여기에는 공공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가 선정에 대한 추천 업무도 포함된다. 이 외에 국가건축가는 그 감독 하에 뛰어난 양질의 공공 건축 프로젝트를 직접 발주하며 시범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경향과 통합적인 공간비전을 계획하는 데 활발히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국가건축가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의 주요 공공 프로젝트의 디자인의 질과 관련하여 국가 건축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자국 및 신진 건축가들을 육성하는 정책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 및 양질의 공공 건축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게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관련 기구(Institutions)의 설립과 지원

네덜란드 정부는 이전의 복지국가 체제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시장기반 공급 위주의 접근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더 이상 규제자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직접적으로 국가의 공간 디자인에 개입하는 대신, 장려와 영감의 정책을 채택했다. 제1차 건축정책으로 다수의 건축기관이라는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정부는 '조건'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 개입을 배제하는 공공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건축정책의 기본 방향은 건축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건축적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에만 비로소 건축에 지속적인 질을 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제1차 건축정책 수립으로 설립이 된 건축기관들로는 네덜란드 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네덜란드 건축재단(Netherlands Architecture Fund), 베를라헤 인스티튜트(Berlage Institute), 국제건축비엔날레(International Architecture Biennale), 아키네드(ArchiNed), 유로판 네덜란드(Europen Netherlands), 건축센터지원재단(Architectuur Lokaal), 네덜란드 시각예술디자인건축재단(Netherlands Foundation for Visual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아키프리克斯(Achiprix), BONAS(Association of Dutch Architects)로, 총 10개의 기관이다.

건축정책의 수립으로 각 부처는 정부 예산에서 막대한 예산금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운영권은 온전히 건축기관 측에 위임하여 이 새로운 건축주체들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주장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비판적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전문성에 기반한 각각의 건축기관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전파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정부는 정책을 통해 건축기관이라는 전문적, 공공적 주체를 세움으로써 건축과 도시계획상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없는 현 시대에 건축의 공공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네덜란드 건축 정책의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아들 건축기관이 전문적 주체로서 가지는 역량과 네트워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책을 통해 수립된 건축기관들은 건축정책으로 마련된 지속적 지원의 체계 속에서 각자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주체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형성해 나갔다. 그들 주체들이 형성하는 자체적인 국내외 전문가 및 민간 네트워크는 하나의 주체가 혼자 이룩할 수 없는 차원의 폭넓고 다층적인 것이다. 이러한 폭넓고 전문적인 역할들이 모여 하나의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 경쟁력을 축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건축정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그 속에서 각 주체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네덜란드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 네덜란드의 건축정책이 주는 시사점

자금까지 살펴 본 네덜란드의 건축정책이 시사 하는 바를 정리하면 첫째,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공공부문의 협력과 조정 역량의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건축·도시환경에 대해 총괄적이며 일관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향한 각 부처 간 업무협력을 이끄는 체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네덜란드의 사례는 보여준다. 기능주의적인 분담체계로 짜여 있는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는 협력과 조정력의 병행을 필요로 하는 건축정책의 실행에 한계가 있으며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초의 건축정책의 수립이 교육문화과학부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두 부서간의 공동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후 2005년 5월에 도입된 '공간 계획과 문화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에 이르러서는 주택공간계획환경부, 교육문화과학부, 농업자연식품부, 교통공공시설수자원관리부, 경제부, 외무부 및 국방부 등 일곱 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은 정책안의 효과적인 시행에 부처들이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사실은 건축정책이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련한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속에서 좋은 건축과 좋은 환경을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인식시켜 주며,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각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둘째,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수립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단계별 추진전략의 구축은 건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1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건축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기관 설립을 주도하여 향후 건축정책 실행의 확실한 '주체'를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이 시기별로 요구되는 정책안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네덜란드의 사례는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상의하달식의 사결정에 의해 일방향적으로 진행하는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이나 해당 분야가 주체가 되는 상향식 정책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국가건축가의 사례와 같이, 건축의 질과 디자인 영역의 조기 투입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개입하게 하여 도시 건축 전반의 공간환경에 대한 총괄적 기획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비록 훌륭한 취지로 입안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실행 주체 부재’ 상황에 있다면 건축정책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정책의 수립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건축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기관 설립을 주도하여 향후 건축정책 실행의 확실한 ‘주체’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은 네덜란드 건축정책 실행의 성공을 이끈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책으로 수립되고 지원되는 건축기관이라는 정책을 전파하는 정밀한 조직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정책 수립 후 지난 몇 년간, 대다수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험으로부터 취해야 할 주요 교훈은 건축정책이 지역차원으로까지 실행될 수 있는 실행의 체계가 갖춰졌을 때에만 효과적이란 점이다.

다음 회에서 살펴 볼 지역의 건축센터 역시 네덜란드의 경우 그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공공적 계획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적 차원에서 정보의 교환과 의견의 형성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지역의 건축센터들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회의 네덜란드 건축정책과 다음 회의 네덜란드 건축센터의 사례는 주제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가 중요해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건축과 도시의 공공성이 더 이상 하향식으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며 건축의 공공성에 대해 인식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정부의 건축정책에서 표방하는 건축의 공공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

## 참고문헌

1. 「건축기본법연구」, 대한건축학회, 2006
2. 김광현, 「문화에 근거한 건축정책이 필요한가?」, 문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2005 대한민국건축제
3. 김광현, 「건축기본법과 건축의 공공적 가치」, 건축과 사회, 10호, 새건축사협의회, 2007
4. 김상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건축과 사회, 12호, 새건축사협의회, 2008
5. 김한수, 「디자인 코리아를 위한 정부와 공공 발주자의 패러다임」,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52권, 2호, 2008
6. 박인석,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요건과 전략」, 건축과 사회, 12호, 새건축사협의회, 2008
7. 박인석, 「공간환경 만들기에서의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활용 방안」,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경디자인 토론회, 국립중앙박물관, 2008
8. 이영범, 「영국 공공디자인 제도의 핵심은 좋은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건축과 사회, 11호, 새건축사협의회, 2008
9. Atelier Rijkshouwmeester, 「The Chief Government Architect and the policy on architecture」, the Netherlands
10. Cilly Jansen, 「Architectuur Lokaal and architecture policy in the Netherlands」, Discussing Architectural Quality -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Seminar Report), 2003
11. Hannah Ford and Bridget Sawyers(ed.), 「International Architecture Centres」, Wiley-Academy, Great Britain, 2003
12. Interministerial Platform on Architecture Policy/Architecture Policy Document Project Group et.al, 「Shaping the Netherlands: Architectural Policy 2001~2004」(Summary), 2001
13. Kirsten Schipper(ed.),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 Architecture and Belvedere Policy 2005~2008」(Summary), 2005
14. Rob Docter, 「Architectural Policies in the Netherlands, objectives, instruments, results」, 건축정책 국제컨퍼런스, 2007
15. The Netherlands Architecture Fund, 「A Culture of Creating Space: Commitment and Autonomy」, 2005
16. Marc.A. Visser, 「Constructing the Netherlands」, THOTH Publishers, the Netherlands, 2006

# 사림(士林)의 도시(上)

##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쌍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획을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본격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바다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8<sup>水</sup> 시조 속에 내재한 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들판에는 대로 선비들이 지닌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망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외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밀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가 면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창조성이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태라가 그럴게까지 모신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신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린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흑

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삼,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미술과 춘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학우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불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재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디자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 목 차

1. 어로(急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 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_Puzzle
3. 역사 그로 만들기 3. 관양(관양지도) 읽기\_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_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_ Toegae-Lee whang and Danyang
6. 퍼즐 3. 퇴계 이황과 단양\_ Toegae-Lee whang and Danyang
7. 퍼즐 4. 퇴계 이황과 단양, 산과 산길 그리고 산촌\_Mountain, it's path and village
8. 퍼즐 5. 퇴계 이황과 단양\_Toegee-Lee Whang and Deryang
9. 퍼즐 6. 단양, 1970년\_ Danyang 1970
10. 풍기현과 사림\_The Chu-tz scholar in t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_A Way to the Gu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HKIRA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옥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莊부 과제로 한옥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풀어낸 「황도개경의 비밀(2002, 도서출판 엣오늘)」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퍼즐 6. 단양, 1970년

### - Puzzle 6 Danyang 1970 -

#### 단양현감으로 부임하는 퇴계 이황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입준이 지난 지 이십여 일이 지난 2010년 2월 24일 그러니까 음력 정월 열 하루날 나는 폐허가 된 우화교 앞을 다시 찾았다. 민족 대명절인 정월 대 보름을 나흘 앞두고 단양천 합수머리 쪽에서 하방리와 중방리를 잇는 나들목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긴 나는 새벽길을 재촉하여 집을 나선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사백 육십 이년 전 이날은 퇴계 이황이 서소문 경자 이웃에 살았던 진복창(陣復昌)의 원치 않았던 호의를 위하여 예정보다 한양을 서둘러 출발할 무렵이었을 것이다. 차를 놋재에 세우고 내리자 나의 시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고깔 모양의 성재산등성이었다. 언제보아도 단아하고 아담한 그 모습이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유난하게도 선명하게 가까워보였다. 우수(雨水)가 지난 지 단새 밖에 안되었으나 산등성이를 너머 오는 바람에 차츰 생기가 실리기 시작했고 신발을 통해 발끝에 닿는 땅바닥의 촉감도 전과 달리 부드러워진 것을 보면 얼었던 땅마저도 풀리기 시작한 듯 사방에 봄기운이 돌아나고 있었다. 그런 산비탈에 늘어선 나즈마한 단성을 사무소와 향교, 그 주변에 빼곡히 나지막하게 늘어선 형형색색의 작은 지붕들이 주는 아늑하고 따스함과 편안함… 그런 것들이 고루 섞인 단성을의 풍광에 나는 감정의 흔들림을 느끼며 한껏 숨을 들이켰다. 시속 120km로 쉬지 않고 네 시간을 달려온 긴장감으로 경직된 차안의 공기와 달리 강가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뺨내음과 땅 내음이 어우러진 그 미묘한 냄새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향만이 주는 특이한 냄새였다. 나는 숨을 들이킬 때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감겨지는 눈을 그대로 내맡긴 채 숨을 토해내며 마치 내 고향의 냄새와도 같은 이곳 바람 내음을 음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장에 찌든 나머지 피곤함에 지친 나에게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만 느낄 수 있는 형용하기 힘든 감정의 파장같은 짜릿한 자극이기도 했다. 이런 느낌에 감싸여 언덕길을 걸어 내려오던 나는 단양교 앞에 이르자 오랜동안 접어두었던 퇴계 이황, 그도 1548년 바로 이 무렵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중방리였고 객사를 바라보며 제방을 내려서서 단양천을 가로지르는 나들목을 건너 관아로 들어섰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놋재를 통해 단양을 바라보며 옛일을 조사하려는 나의 입장과 퇴계 이황의 입장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점부터가 전혀 달랐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이었다. 과연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부임한 것일까. 이런 궁금함은 보름전 덕질산 산행을 하면서 시인암리에서 출생하고 자란 역동선생 유탕과 관계가 있었음을 깨달은 바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그는 이곳에 오기를 자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은 납득할만한 동기와 설명이 필요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이곳에 와서 남긴 책과 문집을 조사하게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발견한 것이 이 책이었다. 그가 이곳 현감으로 재임한 기간은 불과 8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 책을 남길 정도로 이곳을 좋아했고 사랑했으며 부지런했던 것은 확실했다. 혹시나 하여 고향을 그런 향수 때문에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으나 이시기 그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남긴 글은 없었다. 궁리 끝에 생각을 바꾸어 부임 전상황을 그에 관한 연보를 중심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발견한 것이 조령도증(鳥嶺途中)이란 표제로 쓴 바로 이 문장이었다.

#### 치명각각수잔잔 (雉鳴角角水潺潺)

평은 깍깍 울고 시냇물은 졸졸 흐르는데

#### 세우춘풍필마환 (細雨春風匹馬還)

가는 비 봄바람에 말을 타고 돌아오니

#### 로상봉인유희색 (路上逢人猶喜色)

길에서 만난 사람 얼굴만 봐도 기쁘고

#### 어음지시자향관 (語音知是自鄉關)

말소리 들으니 내 고향에 온줄 알겠구나 (金周漢 역)

이 시는 그가 단양 현감으로 부임하기 2년 전인 46세 되던 해, 1546년 삼월 조령너머 고향으로 돌아가던 와중에 쓴 것이었다. 그는 이 시에서 지금 이곳을 찾아온 나와는 달리 조령을 넘자 오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경상도 사투리를 듣는 순간 고향 온 것을 실감했다고 한 것이다. 도시의 삶에 찌든 나는 깊은 호흡을 통해 자연 속에 스며있던 고향을 느낀 반면 퇴계 이황은 사람의 존재를 통해 고향을 느낀 것이다. 그와 나는 세월의 격차만큼 서로 속앓이 마저 달랐던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남모를 속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이 무렵 해가 바뀌면서 그는 별씨 두 번째 한양에서 오백리 길이 넘는 조령을 넘고 있었다. 불과 달포 전 정월 스무 이튿날만 해도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의 부인 권씨와 함께 한양을 출발하여 이 고개를 넘었다. 평소 존경해왔던 장인 사락정 권질(權璣)의 죽음으로 그를 풍산현 가일 지곡선원(枝谷仙原)에 장례 지내기 위함이었다. 무사히 큰일을 치룬 뒤 상경하여 조정의 일에 임하였으나 그는 또 다시 지병에 시달렸던 것이다. 하는 수 없어 염치를 무릅쓰고 요양을 위한 휴가를 조정에 청하여 얻어 달포만에 다시 길을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의 귀향길은 어느덧 충주를 지나 계곡을 끼고 에음길로 접어들어 새재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행이 시작될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으나 막상 조령 고개를 넘어서면서 샛바람사이를 긋고 내리던 빗발을 마저 몇자 운무가 계곡의 새발에서 피어올랐다. 계곡에 널린 들판과 바위들에 맷힌 물방울은 자신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신선봉 협곡에 쏟아지는 바람사이에 간간이 들리오는 솔잎의 흔들림 소리

가 섞여 들어왔다. 평생의 절반을 귀양살이로 전전하며 초라한 행색으로 살아온 그의 장인(長任)이었으나 그는 절의가 있는 선비였다.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 중종 33년 1538 석방되어 직첩(職牒)을 돌려받았으나 그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나머지 여생을 향리에 머무르며 편안히 살겠다란 그의 장인이 숨을 거둔 것이다. 그것도 귀양살이에서 풀린지 십년도 채 못된 7년만의 일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와 함께 한 지난 16년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치자 기개 있는 사람의 한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생각에 뼈마디가 죄여드는 고독이 아픔으로 물려들었다.

이런 그를 달래 준 것은 로상봉인유희색(路上逢人猶喜色)… 길에서 만난 사람 얼굴만 봐도 기쁘고… 그를 기쁘게 한 것은 말없는 자연이 아니라 이틈을 알 수 없었던 길에서 만난 고향사람들이었다.

퇴계 이황이 권질과 이렇게 끈질긴 인연을 맺게 된 데에는 그만한 각별한 사연이 있었다. 퇴계 이황이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권질이 예안으로 귀양 간 중종 16년(1521)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1살 때 막 결혼하여 부인 허씨와 신접살림을 온해리에서 차리고 성균관을 오갈 무렵 권질은 39세의 나이로 장실(杖殺)된 그의 아우 수찬(修撰)의 신사무옥(辛巳謫獄)에 연좌되어 예안(禮安)으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던 안동 사람은 위로 차 그의 적소를 방문하곤 했다. 무명의 선비에 불과했던 퇴계 이황도 그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당시 그의 눈에 비친 권질은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을 던진 선비였고 도학의 실천을 위하여 신사무옥(辛巳謫獄)이란 순교의 길을 택한 성리학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만난 권질은 어떤 사람이었고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이해하고 있었던 신사무옥(辛巳謫獄)의 사말과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사옥은 기묘사화의 예파로 일어난 사옥이었고 일의 발단은 송사련(宋祀連)과 정상이 안처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의 조객록(弔客錄)과 역군부(役軍簿)를 증거로 이들이 무리를 모아 변란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고변(告變)하여 발생한 참사에 불과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었겠으나 확실한 것은 3년 전 심정(沈貞)·남곤(南袞) 등이 기묘사화로 사립파를 제거하고 실권을 잡자 조광조(趙光祖) 일파를 두둔하였다는 혐의로 좌의정이었던 안당(安塘)과 그의 아들 안처겸(安處謙)을 비롯한 문근(文瑾) 유인숙(柳仁叔) 등을 파직시킨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훈구파가 사람의 잔당을 처리한 정치적 숙정에 가까운 정변이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안당의 조카뻘 되는 송사련만이 유일하게 관상감(觀象監) 판관(判官)이 된 것이다. 실권자인 심정과 남곤이 송사련의 아버지가 송인(宋璘) : 초명은 (者斤金)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사예(安敦厚)의 서녀(庶女)인 감정(甘丁)이었음을 모를 리 없었

다. 말하자면 그녀는 안당(安塘)의 서매(庶妹)가 되었으므로 안당은 그의 외삼촌뻘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척관계를 지닌 송사련에게 심정일파는 종 5품의 벼슬을 준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심정 일파가 사람을 모함 잡아 내쫓으려는 낌새를 미리 알아차린 송사련이 남모르게 안당의 반대파인 심정일파에게 아부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심정 일파의 처사에는 물론 나름의 계책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천출인 송사련이 권문세기를 드나들며 지성으로 바랐던 것은 환수(旱數)를 트고자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좌의정이었던 안당이 그가 그토록 외삼촌인 그의 집을 문지방이 닿도록 드나들며 자신이 미천한 출신으로 벼슬에 오르지 못함을 불만스러워 함을 통사정했으나 한번도 아랑곳 하지 않았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심정일파는 그에게 벼슬을 줌으로서 그의 공력이 의외의 곳에서 드러나게 했던 것이다. 송사련에게 있어서 이 일은 마치 병풍에 그려진 닭이 훠을 치듯 정작 그를 대우해 준 사람은 당대 세도가인 심정 일파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각인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했다. 더구나 그들로부터 천만의외의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종 5품의 벼슬, 관상간 판관, 이런 벼슬이면 고을 수령자리는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격있는 자리였다. 그들과 잘 협상만 하게 된다면 그들의 처분에 따라서 외직은 물론이고 경사(京司)의 노른 자리에도 취사(取土)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판국에 공교롭게도 안처겸은 장인의 농장인 용인에서 이정숙(李正叔)·권질등과 함께, 기묘사화로 득세한 심정과 남곤 일파가 사립(士林)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 하여 이를 제거하기로 모의를 한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 송사련(宋祀連)이 참석했던 것이다. 시골관아의 통인 구실이 하늘같이 쳐다보이던 시절이 이제만 같은데 오늘에 이르러 경사의 구실아치 까지 현달할 것을 넘보게 되었으니 세상에 머리털 나고 이런 왕기(旺氣)가 따로 없었던 그였다. 그는 이제 심정 일파에게 또 다시 자신의 충성심과 재주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이다. 그는 주저 없이 자신의 처남인 정상(鄭鍾)과 짜고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했던 것이다. 결과 안당·안처겸·안처근(安處謙) 3부자를 비롯하여 권질·이정숙·이충건(李忠健)·조광좌(趙光佐)·이약수(李若水)·김필(金弼) 등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밀았다. 그리고 송사련은 그 공으로 당상관(堂上官)이 되어 절충장군·시위대장 등을 지내면서 종신토록 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이나 종실과 사돈을 맺었고, 아들 중에 송익필<sup>2</sup>은 구봉집<sup>3</sup>을 남긴 뛰어난 유학자를 배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사람의 탐욕과 음모가 이렇게 무서운 여파를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은 다른 사화처럼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이념에서가 아니고 정적(政敵)을 없애기 위하여 정치적 음모를 동원하였다는 특이성을

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안(士安). 본관은 안동(安東) 이어지는 예조참판 주(柱). 그의 장인(長任) 권질은 이어지는 예조참판 권주(權柱)였다. 연산군 10년(1504) 폐비윤씨 사전이 문제가 되면서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자 그의 아버지는 사사되었다.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마침 연산군의 실정(失政)의 탄핵하는 한글부서가 궁중에 나돌자 언문목사(諫文獻事)가 다시 일어났다. 이때 그는 죄인의 자손이라 하여 거제도(巨濟島)에 유배되었다. 중종 원년 1506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와 음보(膝補)로 현릉참봉(顯陵參奉)이 되고 1517년 광흥창봉사(廣興倉奉事)로 승진되었다.

2) 조선 중기 학자. 자는 운장(雲長), 호는 구봉(龜峯). 본관은 여산(礪山). 서출(庶出)로서 아우 한필(翰弼)과 함께 일찍부터 문명을 떨쳤고, 명문 자제들과 뚜렷이 구별되었다. 초기(初試)를 한 번 본 외에는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몰두하여 명성이 높았다. 이이(李珥)·성흔(成勸)과 함께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논하였고,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김장생(金長生)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고암(高陽)의 구봉산(龜峯山) 밑에서 크게 문호를 열고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그 문하에서 김장생·김집(金集)·정엽(鄭暉)·서성·정홍명(鄭弘溟)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시와 문장에 모두 뛰어났으며 이산해(李山海)·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勸)·최립·이순인(李純仁)·윤탁연(尹卓然)·하승림(河應臨) 등과 함께 선조 때의 8문가로 불리었다. 저서로는 사문집인 《구봉집》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

지난 사회였다. 이 일로 조정의 권력 다툼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 풍파를 당한 권질에게 남은 것이라곤 난리 통에 정신이 흔미해진 아홉살 박이 여식하나와 몰락한 집안뿐이었다.

퇴계 이황이 처음 만난 권질은 이런 상황에 처한 몰락한 선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를 만날수록 퇴계 이황은 이 사건내용을 소상히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 권주는 을사사화 때 사사되었고 신사무옥에 죽은 그의 동생인 수찬은 정몽주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여 성사시킨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퇴계 이황은 그를 흡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의 고향 예안에 귀양와 있는 권질의 세거지가 지금의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로 자신이 살고 있는 온혜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당시 과거 급제에 별 뜻을 두지 않고 고향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는 자주 권질을 문안 하곤 했었다. 더구나 이들은 현랑과<sup>4)</sup> 출신 선비들이 아닌가. 사림의 핵심인 이들에 대한 퇴계 이황의 정리가 남달랐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퇴계 이황이 첫 부인과 사별한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권질을 문안한 자리에서 그는 퇴계 이황에게 19살 먹은 자신의 딸을 속현(續弦) 아내를 사별한 남자가 처녀장가를 드는 것 할 것을 부탁한 것이다. 그녀는 나이 9살 때 아버지를 따라 구향처에 온 그녀가 어엿한 규수로 성장한 것이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란 탓에 귀티가 넘쳤으나 아주 어린 나이에 신사무옥으로 집안이 풍지박산 나누는 정변을 겪었으므로 혼이 나가 정신이 흔미한 것 이 흠이었다. 이런 그녀를 거두어 달라는 권질의 부탁을 받자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한 그는 훌 어머님 박씨의 허락을 얻어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꺼이 맞아들인 새사람이 둘째 부인 권씨였다. 이러한 권질을 장인으로 모시게 된 것도 그의 어머니 박씨가 의를 실천했던 선비집안의 어려움을 우리가 들보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는 어머님의 도량 때문이었다. 권질과 퇴계 이황은 이런 사연으로 끊을수 없는 인연을 지난 장인, 사위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동안 비어 두었던 고향집 지산와사에 홀로 왔었어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두근거림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사를 괴롭혔다. 특히 연전 9월에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 복(宓)을 잃었고… 한달도 안 되어 이기(李芑)의 모함(謗)을 받아 삙탈관직까지 되었고… 그후 통훈대부로 승진하여 영접도감(迎接都監) 랑청(朗廳)으로 임명되었으나 선달 초이를 장안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를 들은 것이다. 지난 일년 사이는 모든 일이 힘겨웠던 한해였다.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바쁜 공부일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어 고향을 찾아왔으나 5월이 지나도록 지병은 깊어져기



〈그림 1〉 토계천과 퇴계 이황 선생의 유적분포

만 했다. 병의 차도가 없어 조정에 돌아가지 못하자 조정은 그를 해직하고 말았다. 그러던 차에 7월 한양 서소문 집에 남아 있던 부인 권씨마저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일년을 사이에 두고 세 번씩이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것이다.

8월 하순 그는 부인 권씨의 영구를 영지산(靈芝山) 북려 백지산 잣갓(柏枝山)<sup>5)</sup>에 장사지냈다.

아무리 정신이 흔미하여 남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아내였다고는 하지만 자신과 16년을 한 이불속에서 지낸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녀도 아버지인 권질이 신사무옥만 담하지 않았더라면 제짝을 만나 건강하게 잘 살았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애恸함과 애절함은 더했다. 무슨 생각이었던지 그녀를 신혼살림을 살았던 지사와사가 있는 온혜리에 묻지않고 그는 토계천이 낙동강을 바라보며 훌려내리는 하계마을 영지산 북려에 한 많은 그녀의 삶을 묻었다. 그리곤 그는 사랑하는 부인을 애써 외면이라도 하듯 멀리 보이는 곳에 작은 초막을 짓고 부인상을 치운 것이다. 권씨 무덤을 살짝 비껴서 있는 임자, 후일 그가 죽었을 때 그것이 바로 양진암이다. 16년전, 그가 31세 되던 해, 12살 아래인 그녀를 맞이하여 온혜리 남쪽 양곡(陽谷)에 달팽이 껍질만한 작은 집 지산와사(芝山蠟舍)를 짓고 새 살림을 살던 것도… 그가 태어난 온혜리 태실 앞을 조잘거리며 흐르는 토계천 건너 살포시 늘어진 남쪽 들녘, 서당골(書堂谷)<sup>6)</sup> 이었다. 그리고 숨을 거둔 그녀를 묻은 것도 토계천의 거친 결이 낙동강 큰물로 자자드는 토계천 끝자락 하계(下溪)이었다. 그는 첫 부인 허씨는 그녀가 자란 영주 땅에 묻어주었으나 둘째 부인 권씨

3) 조선 중기 성리학자 송의필(宋翼弼)의 철학문답서 「태극과 이기(理氣)에 관한 자문자답(自問自答) 형식으로」 그의 저서 『구봉집(龜峰集)』 권3 접저에 실려 있다. 태극문에서 송의필은 자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斯)는 하나라는 주희(朱熹)의 본뜻을 밝히고자 한다고 하였다. 태극과 동정(動靜) 또는 음양과의 관계, 인성(人性)의 선악 등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입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즉 <부동부정(不動不靜)이나 동정을 함유한 것이 태극이고, 동정의 두 실마리가 순환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기(氣)이며, 동정하게 하는 소이자(所以者)가 태극이다>라는 등의 논지를 냈다.

4) 1519년(중종 14) 조광조(趙光祖)의 건의에 따라 중국 한(漢)나라 현령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관리의 선출을 위해 실시하였다. 한양에서는 사판(四館)이 유생과 조사(朝士)를 막론하고 후보자를 성균관에 전보(謄報)하면 성균관은 이를 예조에 전보(轉報)하며 중추부(中樞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홍문관·사현부·사간원 등에 서도 후보자를 청거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는 유향소(儒鄉所)에서 수령에게 청거하면 수령은 관찰사에, 관찰사는 예조에 전보하였다. 예조에서는 후보자의 인적사항·학식·행실 등을 종합하여 의정부에 보고한 뒤 왕의 친임함에 저정(殿廷)에서 대책(對策)으로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김식(金湜) 등 28명이었는데, 거의 조광조 일파를 추종하는 신진사람이었다. 그 결과 훈구서역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위준식제(偽勸削制) 문제와 더불어서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5) 사회로 인심이 흥미해진 를 타서 우의정 이기는 흥협함 생각으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물어낼 심산으로 혼자 입궐하여 이천개(李天啓), 이황(李煌), 권률(權勿), 이담(李謐), 정황(丁暉) 등의 파장을 주관하여 이들을 파직케 했다.

6) 지금의 백동서원이 있는 곳이다.

7) 종마 앞 온계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서당(書堂)이 있었다고 한다.

만은 자신이 태어난 태실 앞을 흐르는 토계천 가에 묻은 것이다.

그 무렵 건너 흐르는 토계천 너머 북쪽 산기슭 동암 바위에 의지하여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부인 무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 있는 자그마한 암자, 양진암(養眞庵)... 이것을 짓고 부인상을 치룬 사람 그분이 바로 퇴계 이황이었다.

흐르는 눈물이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었을까...

무정한 세월이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슬픔과 고독을 지워줄 수 있었을까...

그즈음 조정은 그에게 예조의 종 5품관 벼슬인 교서판교리(校書館校理)겸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를 제수하였으나 그는 부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롯된 그의 유거생활(幽居生活)은 일년 여 지속되었는데 이때 그는 토계(鬼溪)라는 지천의 이름을 퇴계(退溪)로 고친 다음 자신의 호로 삼았다. 한해 전 이곳을 답사했을 때 만 해도 나는 퇴계 이황은 율법을 신봉하는 도학자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는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병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았던 남편이었다는 인격체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가 1546년에 보여 준 일련의 사건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태어난 땅을 가로며 흐르는 토계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런 나머지 사랑했던 그의 부인과 자신마저 이곳에 묻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토계라는 지천은 단순히 이황선생에게 자신의 호를 짓도록 이름이나 빌려줄 허점한 개울이 아니었다.

이 냇물은 얼핏보면 용두산(龍頭山)<sup>8)</sup> 자리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흘러 내려 30여호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온혜리 중리(中里)에 있는 퇴계 이황의 태실과 노송정 고택, 그 뒤 수골(樹谷) 골짜기에 자리한 퇴계 선생의 조부와 부모의 묘, 이를 수호하기 위한 진성이 씨 수곡재사(樹谷齋舍)를 스치며 온계리 법판을 가로지르는 범속 한 냇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가지 달랐던 점은 온기가 있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얼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이 물을 온계(溫溪)라 했다. 그런데 이 물줄기는 북쪽 만리산과 용두산 계곡을 타고 내려온 테자리 물과 청계교 근처에서 합쳐져 큰 내를 이루며 온혜리 벽편을 남쪽으로 가로며 흘러갔다. 이곳 한가운데 퇴계 선생의 아버지인 진사(進士) 이식(李埴),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 중령인 온계(溫溪) 이해(李瀬) 공을 배향하는 청계서원(淸溪書院)이 현종8년 1667창건되자 유서 깊은 곳이 되었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6년(1869) 훼철되자 지금은 그곳을 지나는 35번 국도를 따라 상가가 늘어서 있을 뿐이다. 온혜리, 주변에 용두산, 국망봉<sup>9)</sup>, 만리산, 건지산, 영지산 4개의 큰 산봉우리

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이곳 들판은 의외로 광활했다. 여기서 냇물의 폭을 더한 온계는 남쪽으로 흐르다가 이를 마주보고 영지산 자락을 타고 북쪽으로 역류하듯 흘러내린 운곡리 냇물과 합강(合江)을 이루자 갈 곳 잊은 것은 사철 맑은 물을 자랑하던 청계였다.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틈타 흐르듯 동남쪽 사면으로 낙동강을 향해 방향을 틀어 토계리를 가르며 흘러내린 이 물이 바로 토계(退溪)였다. 사람들은 토(鬼)자를 같은 음(音)의 토(土)자로 고쳐 마을 이름을 토계(土溪)로 불렸다. 이 물줄기가 끝나는 하계에 사랑하던 부인을 묻고 그녀 무덤이 바라보이는 언덕 동암(東巖)에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 그가 바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이었다.

부인상을 마친 그는 흐르는 이 냇물의 이름을 퇴계(退溪)로 고치고 자신의 아호(雅號)로 삼은 것이다. 이제 이 작은 지천 토계천은 단순한 냇물이 아니라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경관요소가 아니라 그에게 삶과 죽음이 하나의 즐기에 불과함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했고 영원으로 가는 출발을 알려주는 시작으로 의미가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냇물은 그에게 작은 것이 무한으로 가는 사랑의 힘이 깃든 길임을 알려주는 물줄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훗날 봇 사람들은 퇴계종택<sup>10)</sup>을 중심으로 상계(上溪)를 웃토계·웃토끼라 했고 아래녘을 하계(下溪)를 아랫토계·아랫토끼라 했다<sup>11)</sup>. 이제 퇴계 이황선생의 세거지가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토계천 하류의 하계는 온혜동에서 육십여리 떨어져 있고 낙동강 줄기에서도 제법 큰 모래밭을 이루고 있었다. 동남방으로 강을 건너면 영양으로 통하는 진입로와 같은 의촌동과 통하고 동북으로 청량산으로 진입하는 단사촌과 통했다. 그런 뒷인지 하계마을은 예안 영양 봉화등지에서 낙동강 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과 물류가 스쳐가는 곳이었다. 실제로 그물 코와 같은 하계촌은 속계와 선계가 마주 닿는 그런 곳이었다. 이곳에서 상기(祥期)를 넘겨 부인복을 받은 그는 원촌(遠村)마을에서 청량산(淸涼山) 자하봉(紫霞峯) 북쪽까지 11경을 차례로 유람하며 시를 짓고 마음과 세월을 달랬던 것이다. 그리고 장차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1546년 양진암을 근거로 한해를 보냈던 그에게 하계와 청량산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래 가을 그는 양진암에서 청량산을 어떤 길로 갔을까... 가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청량산은 양진암에서 칠십 여리나 떨어져 있었으니 하룻길이 넘었다. 그런데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계곡의 형세가 풀어놓은 넥타이모양으로 흐트려져 있었으나 굽곡진 모습은 지도만으로 지형을 파악할 정도로 녹녹한

8) 도산면 운곡리와 녹전면 배정리의 경계에 있는 해발 593m의 산으로 예안의 진산(鎭山)이다. 용두산은 용수산(龍首山) 혹은 용수사(龍壽寺)의 이름에서 취하여 용수산(龍壽山)이라고도 불렸다. 산의 모양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으며 산정에는 기우단이 있으며, 산 아래에는 용수사가 자리잡고 있다.

9) 도산면 온혜리와 녹전면 신령리의 경계에 있는 해발 480m의 산이다. 전설에 따르면 퇴계 선생이 이 산봉에서 한양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축지법으로서 왕래하면서 국사(國事)를 논의하였다 한다. 퇴계 선생이 인조 반정 때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있을 때 간신배들에 의해 명종(明宗)의 어수(御수)에 사악비 들어 있는 것을 먼저 알고 이 산봉에서 관광하고 축지법으로 그 곳에 당도하여 어상을 물리게 하고 명종 임금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산봉에는 바위가 3개 있는데 바위마다 한 자씩 새겨 羅望峰이라고 표시하였다. 또 국방봉 정상에는 '국방봉단비(國望峰壇碑)'가 서 있는데 이 비석은 진성이씨(眞城氏) 온계(溫溪) 일행조인 노송정(老松亭) 이해(李瀬) 등이 나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방봉 정상(481m)에 단을 쌓고 매년 10월 24일이면 단에 나아가 북쪽을 바라보고 절하기를 30년동안 하였는데, 공이 단을 쌓았던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10) 이 종택은 순조원년 1907에 옛 종택이 일본군의 병화로 전소되어 사람에서 종택으로 세운 집으로 1929년에 퇴계선생의 13대손인 하정공(懷汀公, 忠鑑)이 옛 종택의 규모를 지금의 자리에 새로 건립한 것이다.

11) 이 토계 마을은 원래 퇴계천의 상류에 위치한 상계와 그 하류인 하계(下溪), 퇴계천 건너 남쪽에 자리 잡은 계남(溪南), 하계를 지나 고개 너머에 있는 원촌(遠村) 등의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인동댐 수몰로 마을로 계남마을이 완전히 수몰되자 재편되어 지금은 양평, 상계, 하계가 토계리에 속해 있으며 원촌 마을은 도산면 원천리(遠川里)에 편입되었다.



(그림 2) 1918년 토개천과 청량산 일대

곳은 전혀 아니었다. 작년 이맘 때쯤 이었을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이런 궁금함과 답답함에 사로잡힌 나는 1918년 지도를 들고 이곳을 답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장에서 알아낸 사실은 양진암에서 청량산 가는 길이 두 갈레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중 하나가 곧장 하계를 따라 낙동강을 건너 천곡(川谷) 하얀 모래밭을 밟으며 단곡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말할 나위

없이 이 길로 간다면 갈수기에는 낙동강을 질러가는 길이었으므로 가까웠으나 낙동강에 물이 차오를 때면 강을 두 번씩이나 건너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랐다. 이 길은 우기와 건기를 잘 헤아려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비교적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했을 원촌으로 가는 산길을 택하기로 했다. 양진암에서 원편으로 산길을 잡아 오르자 솔잎이 그득한 이차선 도보가 합겹게 산을 오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애움길이었을 이 길로 접어들자 토계계곡에만 물소리가 지천이었 뿐 숲 속 길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고개를 넘어서서 얼마를 걸어 내렸을까 이윽사 박물관을 지나자 멀리 원촌(遠村) 들판이 낙동강을 향해 달려 나갔고 그토록 낭자하던 토계천 물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시방은 습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것만 보아도 이곳은 다른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개를 먹은 웃이 물에 달라붙었으나 목덜미에 땀이 후줄근하게 배어오자 한기 마저 사라졌다. 마을 어귀를 지나 노송 숲에 이르렀다. 원촌에 이른 것이다. 벽항궁촌(僻巷窮村)이었다. 얼추집아 이십여호가 될까. 그런 동네에 자그마한 집들이 'ㅁ' 자 기와집을 중심으로 추녀들을 산자락에 내리고 납작 엎드려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예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으면 청량산으로 가는 초입 단사마을이다. 노송 숲 앞에 있는 마을은 멀찌감치 두고 산길을 접어들었다. 벼랑끝을 딛고 선 솔숲사이로 낙동강 줄기가 깨끗깨끗 보였다.

꼬리를 물고 굽이치는 언덕길을 내려서자 길길이 자란 노송들이 산비탈에 무성했고 그 사이로 사방이 논밭으로 둘려싸인 단사촌이 아득하게 보였다. 붉은 점토질 흙이 많아 강가의 자갈마저도 짙은 분홍이 감도는 갈색 빛인 이곳 마을 이름은 붉은 단(丹) 모래 사(砂) 자를 따서 단사촌(丹砂村)이라 했다. 단천리에서 가장 큰 마을인 이곳을 낙동강 상류의 맑은 여울은 마을을 안고 흘러내렸고, 햇빛을 받은 백시장은 하얗다못해 붉을 기 미처 감도는 자갈밭과 모래밭이 오리 남짓 펼쳐있었다. 그리고 강 건너 산기슭을 깍아지른 듯 서 있는 절벽이 천연의 병풍을 이루며 펼쳐졌다. 지금은 강바닥이 얕아졌으나 당시 만해도 물이 깊었는지 이곳을 찾아온 퇴계는 장사 천인옥위함(藏砂千仞玉爲函)이라고 했다. 갈문단사 천 길을 흔 옥으로 힘을 쫄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이곳은 땅과 산의 바탕이 지난 아름다움을 한껏 뽐낸 천혜(天惠)의 마을이었다. 그래서 이런 풍광을 사랑했던 퇴계 이황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을 단사벽(丹砂壁)

이라 했고, 이런 단애(斷崖)가 낙동강을 따라 굽이치며 펼쳐지는 것을 보고 단사협(丹砂峽)이라 이름 지었던 것이다. 이렇게 어우러진 천하의 기경(奇景)을 예안읍지(禮安邑誌), 의성지(宜城誌)는 예안의 빼어난 경치 14곡(曲) 가운데 제 7곡으로 기록했다. 이곳은 청량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었다. 여기서 시작되는 청량산 산행은 단사, 개목 면천을 거쳐 올미재, 가사리, 너분들을 지나 학소대(鶴巢臺)<sup>12)</sup>가 있는 광석나루 청량산 입구로 이어졌다. 그 노정을 말로 하기는 쉬웠으나 단사협 백운동 가송협 광석나루 네 마디로 이어지는 경관군락을 하나하나 고집어내어 조목조목 의미와 구조를 찾아내고 퇴계 이황의 족적과 관련지어 맥락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 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영통하게 1918년 조선총독부 지도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이 지도를 다시 보자 단사촌 북쪽 모래밭이 끝나는 지점에서 단사협도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이곳에 단천교가 놓여 있지만 예전에는 나들목을 따라 강을 건넜다. 여기서 북쪽으로 건지산 산자락을 따라 난 길을 잡아 개목과 면천을 지나 삼십여리 강을 거슬러 가면 청량산 입구 광석촌(廣石村)이 나왔다. 비교적 쉬운 노정이었다. 그러나 강을 건너 강변을 따라 모래밭을 걸어가면 상황이 달라졌다. 바로 맞은편 길섶에 올라서면 좌우로 넓은 들판이 산자락을 따라 펼쳐져 있었고 그야말로 세 갈래 길이 한곳에 만나는 곳이었다. 먼저 단사협이 끝난 계곡을 따라 단천동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면 깊고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으나 원음으로 이어졌다. 그런 까닭에 인적이 뜨막한 길은 아니었으나 청량산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운데 길을 택하여 백운동 능선을 곧장 질러가면 고신을 바라보며 가사리로 진입하는 벼랑길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길은 그다지 멋스러움이 없는 산길이었다. 출발점인 이곳에서 길 선택이 중요했다.

그늘이라곤 하나도 없는 백사장에 앉아 이것저것 살펴보느라 쭈 그리고 앉은 내 등판에 쏟아져 내리는 봄날 정오의 햇빛은 제법 따갑기까지 했고 등줄기에 땀방울이 촉촉하게 배어날 정도였다. 그 바늘 끝 같이 파고드는 햇볕을 쪄고 마시며 온갖 생명들이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빌바닥을 파고드는 모래밭을 걸어서 청량산까지 답사해야하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 원편으로 두어 마장 걸어올라 건지산 그늘에 잠겨 있는 백운지(白雲池)를 지나면 격하게 흘러오던 낙동강 물도 숨을 가다듬고 마치 고요한 호수를 지나는 백조처럼 완만한 흐름으로 흘러내렸다. 이 여울은 가송협 아랫녘에 있었다. 북쪽으로 강 건너 깨이지른 듯한 건지산 산자락이 벼랑을 이루며 아득하게 솟아 있고 강물은 강바닥의 자갈이 떠 있는 것처럼 해맑았다. 이곳을 지난 퇴계는 청산녹수가 절로절로 솟아 있는데 청산 녹수사초기(青山綠水已超氣) 그 가운데 있는 흰 구름은 말해 무엇 하랴 경지중간백백운(更著巾間百百雲) 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곳이 백운임을 드러내려면 흰구름과 청산이 주제였고 흐르는 녹수는 파생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화공이라도 된 것처럼 청색 한 가지 색을 사용하여 삶의 여백이 지난 의미를 주체와 객체의 어울림으로 읊은 것이다. 그의 시를 바탕으로 바라본 이곳 정경에서 나는 영통하게 초목을 적시듯 흘러

12) 절벽으로 된 바위가 풍전에 높이 솟아 있는데, 머리와 꼴은 검고, 혀리와 배는 흰 학 한 쌍이 매년 3월에 와서 이 바위에서 새끼를 쳐 가지고 9월에 날아갔음으로 학소대라 한다.

가는 햇살의 아름다움이 구하고 또 황홀하기까지 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이다. 듣는 햇살에 스러지는 이슬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물며 물방울을 모아 만든 백운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의성 14곡 가운데 제6곡에 해당하는 단사 북서쪽 마을 백운동은 부채살 모양으로 느긋하게 펼쳐진 백운산(白雲山) 서남쪽 자락을 따라 정상으로 슘어든 산길을 따라 늘어선 화전과 그 밭두렁에 뿌리를 내린 집들로 하나 둘 또 문드문 푸른 점을 찍고 있었다.

이런 백운동 윗마을이 가사리와 소두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윗동네라 하여도 눈에는 가까웠으나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물살이 워낙 급하고 험하여 우기는 물론이고 건기에도 강을 건너가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강줄기를 따라 위로 즉 시선을 끌어 올리면 계곡 서쪽으로 건지산 자락을 직벽으로 각아 세운 절벽에 잣나무와 향나무가 빽빽이 붙어 늘어서 있다. 그러나 그 석벽마저도 갑자기 방향을 오른편으로 급히 틀어 내리자 놀란 듯 솟아오른 고산에 막혔다가 다시 북쪽으로 허물어지며 터져 올랐다. 이렇게 생긴 골짜기에 이십여리 남짓 열린 백사장 길을 따라 거슬러 오르다가 백운산 북쪽 석벽을 아슬하게 가로지르는 벼랑길을 벌어나면 고산정이 있는 가사리로 닿았다. 반대로 광석나루에서 거침없이 훌려내려온 낙동강은 백운산 자락을 거칠게 부딪치며 만들어낸 석벽을 치고 돌아 고산을 감싸 안고 희 돌아 오르다가 갑자기 나타난 건지산에 놀라 급히 굽이쳐 백운동으로 빠져나갔다. 물줄기가 험한 만큼 계곡은 빠어났고 계곡이 뛰어난 만큼 가파른 계곡이 벌리고 좁힌 벼랑 또한 절경이었다. 자연이 험한 만큼 이 일대 경관은 단사협과 비유될 만큼 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가송협(佳松峽)이라 했다. 모양새로 보면 비록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 동쪽의 가사리, 서쪽의 소두들 그리고 소두들 북서쪽 봉성으로 가는 고갯길 고리재, 이들은 서로 너나들이로 스스로 렵이 없어 산속에서 가장 절친한 이웃마을처럼 보였다. 가송동은 양진암에서 들어오자면 육십리길이요 고리재 너머 건지산 동록에 닿는 깊은 골짜기에 있으니 이웃 태자동에서는 삼십리 온혜리에서 는 육십리였다. 안동 땅의 수많은 경승 가운데서 가히 산수미(山水美)의 유품임을 손꼽을 만큼 경관성이 압권하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강건너 골짜기 한가운데 얹지로 틀어박혀 생겨난 마을처럼 서 있는 가사리(佳仕里)는 수십 년 전까지 만해도 외부로 통하는 길이 없어 배를 이용해서 외부로 나갈 만큼 오지 마을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곳이 가송리에서 가장 큰 자연마을이었고 다. 이 마을은 강가의 평지에 의지한 평가사리와 골짜기 안쪽 약간 높은 곳의 자리한 골가사리가 있는데 간혹 도량을 기준으로 위쪽을 웃마, 아래쪽을 아랫마라 부르기도 했다. 그런 이곳을 퇴계 이황은 청량산을 왕래하던 중 강가에 늘어선 소나무들이 참으로 아름답다하여 가송(嘉松)이라 한 것이다. 그러자 이를 뒤이어 후 사람들이 소나무가 아름답게 잘 보이는 강 건너 마을 가사리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곳은 두 겹의 모습



(그림 3) 하늘다리 남쪽 두루마리 같은 기암절벽



(그림 4) 기묘묘한 주세봉의 청량산 6.6봉

(그림 5) 청량정사의 모습

(그림 6) 청량정사 아래 청량사

이 겹쳐 있었다. 한 겹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가사리의 모습이었고 또 한겹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이름다운 절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동네 모습이었다. 계곡을 따라 차거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낙동강은 소두들 아래 절벽 올미에 부딪치며 벼락여울<sup>13)</sup>을 만들며 훌려갔다. 그러면 이 물줄기는 깊은 소(槽) 월명담(月明潭)과 오미소(午未沼), 이들을 바라보며 서 있는 고산정(孤山亭)<sup>14)</sup>을 스치며 소두들 남쪽에 홀로 떨어져 솟아 있는 조그마한 봉우리 고산을 회돌아 감으면서 외치병(外翠屏)<sup>15)</sup>과 내취병(內翠屏)<sup>16)</sup> 사이를 빠져 백운동으로 내려갔다. 백운동 백사장에서 이 두 석벽을 본 퇴계 이황은 신들린 도끼가 바위를 깐 것이 어느 해던가 하년신부파견항(何年神斧破堅頃) 천 길이나 우뚝 서서 흰 물굽이를 걸쳤음 벽립천심고옥만(壁立千尋高玉灣) 음을 본 것이다. 이곳 가사리와 소두들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 물은 지형의 변화가 심해 유독 소(槽)가 많았다. 그럴수록 풍경은 되살아나곤 했다. 그 물빛은, 바람을 타고 바위에 부딪치며 넘실대며 흐르는 그것은, 오색 광채를 일구며 부서질 듯 흐트러지며 꿈틀대며 금방이라도 용이 되어 비늘을 번득이며 기어올라 하늘을 날듯했다. 이 물줄기를 밤에 보고 시상이 떠오른 퇴계 이황은 용이 구슬을 안고 달소에 깊이 누웠다고 포주귀와 월명명(抱珠歸臥月冥冥) 했다. 이 물줄기의 머리에 해당하는 산이 바로 고산이었고 바로 이곳이 의성지(宜城誌)에는 예안의 14곡 가운데 제4곡(第四曲)에 해당했다.

이 무렵 퇴계 이황은 고산을 아주 즐겨 찾았던 것 같았다. 이곳에서 동쪽 계곡을 따라 산을 오르거나 남쪽 산자락을 잡아 오르게 되면 축응봉(祝應峰) · 845에 오르게 된다. 그 곳에 오르면 북쪽으로 외장인봉 · 선학봉(仙鶴峰)을 비롯한 12개의 고봉들이 주위에 즐비한 청량산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그리고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왕모산성, 갈선대(葛仙臺), 고세대(高世臺)가 펼쳐 있었다. 왕모산성(王母山城) 중턱에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숙연하여 이 터를 갈선대(葛仙臺)라 이름 지은 퇴계 이황은 단사남쪽 석벽 갈선대(丹砂南壁葛)에서 단사남벽갈선대(丹砂南壁葛)

13) 올마재 남쪽에 있는 여울로 상류에서 펴내려온 뗏목이 여울 부근의 절벽에 부딪혀서 벼락소리를 냄다하여 벼락여울로 부른다고 한다. 여울이 급해 뗏목 10개 중 하나 정도만 무사히 빠져 나갔다고 한다. 그 위에 학소대(鶴巢臺)가 있으며, 옆에는 ‘오학번식지(烏鵲繁殖地)’의 비가 서있다.

15) 고산정 뒷 강가에 깊게 드리운 절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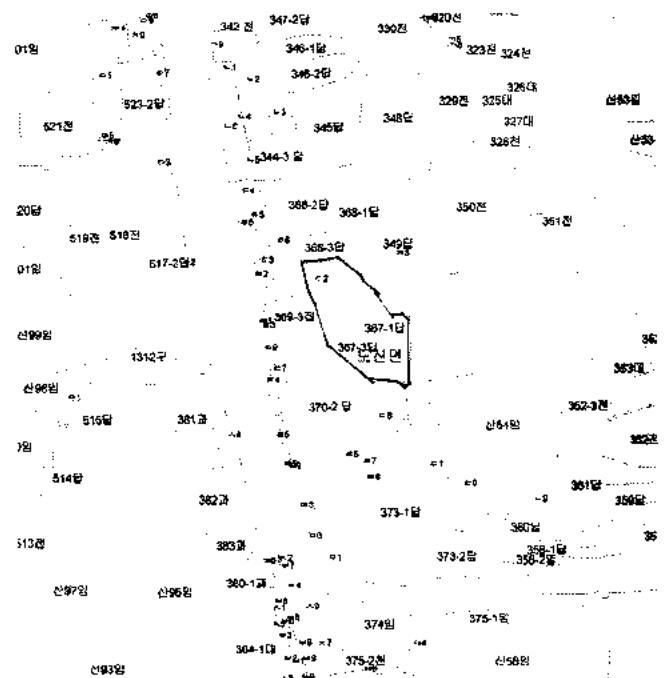
16) 가사리에서 강변을 따라 올라오다가 소두들 건너편에 위치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성성재(惺惺齋) 금난수(琴蘭秀) 선생이 봉화한감을 내놓은 후 이 정자를 짓고 고산주인(孤山主人)으로 자처하며 만년을 보냈던 정자이다.

仙臺) 한줄기 물위를 떠도는 구름 흰구름 배흘운산일수회(白匱雲山一水迴)를 시로 남긴 것이다. 그는 축용봉에 올라 여백과 사실의 존재 이 두 가지가 대비된 호연합을 말했고 그것은 아무렵이곳을 자주 찾은 그에게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런 청량산<sup>17)</sup>은 과연 어떤 산인가.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 명호면(明湖面) 남쪽 해발 870m인 이 산은 산세가 수려하여 소금강(小金剛)이라고도 했다. 최고봉인 장인봉(丈人峰) 외장인봉·선학봉(仙鶴峰)·죽음봉(祝融峰)·경일봉·금탑봉(金塔峰)·자란봉(紫鸞峰)·자소봉·연적봉(現滴峰)·연화봉(蓮花峰)·탁필봉(卓筆峰)·향로봉(香爐峰) 등 12개의 고봉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금탑봉 오른쪽의 절벽인 어풍대(御風臺)는 최고절승이었고 산의 서쪽으로 흐르는 낙동강, 퇴계 이황은 갈선대에서 이들을 보고 있었다. 이 산에는 아직도 27개의 절과 암자 유지(遺址)가 있고 신라시대 이후 선현들이 수도하면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 밖에도 신선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다는 신선대, 선녀가 가무 유희를 즐겼다는 선녀봉을 비롯하여 뛰어난 절경이 많았다. 그리고 반곡 폭포(盤谷瀑布), 산북 폭포(山北瀑布) 등 폭포가 있고 원효元曉가 건립하였다는 내청량사·외청량사, 의상(義湘)이 창건하였다는 유리보전(琉璃寶殿), 신라시대 명필 김생(金生)이 글씨공부를 하던 김생굴(金生窟), 최치원(崔致遠)이 수도하던 고운대(孤雲臺)·도서대(讀書臺),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은신하였던 오마대(五馬臺)와 공민왕당(恭愍王堂) 등을 넓은 가슴에 품고 있는 산이 바로 청량산이었다. 옛적에 수산(木山)으로 불려지던 이산의 이름을 조선시대에 이르러 산 이름을 비롯하여 12봉우리(일명 6.6봉)지명을 바꾼 사람이 조선시대 풍기군수 주세봉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엔 몇 년전 안동부사를 지낸, 자신의 속부 송재(松齋) 이우<sup>18)</sup>가 청량산에 자그마한 서재를 하나 지은 청량정사가 있었다. 여기서 송재공은 조카인 온계(溫溪) 이해(李瀞), 이황을 비롯하여 조효연(曹孝淵), 오언의(吳彦毅)를 가르쳤다. 《오산당증건기(虎山堂重建記)》에 따르면, 이황이 공부하던 곳에 사립의 학으로 순조 32년(1832)에 창건되었는데 정사의 당(堂)은 오산(虎山)이고 헌(軒)은 운루(雲樓), 요(寮)는 자숙(止宿)이며, 문은 유정(幽貞)이라 되어 있다. 일명 오산당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 건물 이름의 오산은 중국 송(宋) 주자의 시 구절 명명지조오가로(明朋直照吾家路)에서 따온 것으로 우리집 산이라는 뜻이면서 유가(儒家)의 산이란 뜻도 내포하는 있었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좌측 뒷간은 온돌방을 들이고 나머지 네 칸은 뒷간 마루와 마루방을 들였고 마루방은 바닥을 우물마루로 하고 앞에 사분합 들문을 달아 개방할 수 있도록 된 자그마한 건물이었다.



에 집을 짓고 첫 부인과 함께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31세 되면 해 온해 남쪽 양곡(陽谷)에 달팽이 껌질만한 작은 집을 지어 부인 권씨와 함께 살았던 지산와사(芝山蝸舍) 뿐이었다. 구전에 의하면 그는 34세 봄부터 벼슬을 하면서 한양에 가 있게 되자 대부분의 생활을 처가에서 물려준 서소문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단양객사를 바라보며 중방리에 말을 타고 선 단양현감 퇴계 이황은 분기한 아들들 이외에 딸린 식솔 하나 없이 홀홀 단신의 입을 웃가지 몇 벌과 자필묵 그리고 읽던 책 몇 권이 고작이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일을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을 사람이었다. 오직 남은 것은 학문에 정진하는 일밖에….

### 1970년 수물이전 단양지도

분명 강가 이면서도 물줄기가 한정 없이 멀어 정작 강가를 따라 펼쳐지는 벌을 멀리 밀쳐두고 반원을 급하게 그리며 계곡물 줄기를 따라 쫓아 오른 산줄기를 타고 펼쳐진 그 좁은 산록에 널브러진 밭 폐지를 품고 있는 단양은 언제나 포구를 지난 도시와 산촌 세 가지 정취를 함께 느끼게 하는 풍광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것을 바라 보면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는 나는 퇴계 이황의 삶이 주는 신선한 충격으로 그 짧은 시간만은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차츰 마음속 까지도 가능해지라는 기도 아닌 영원 같은 것들이 싹 터 오르기 시작했다.

#### 남한강에 연이 올랐다.

바람이 불수록 연은 더 높이 솟구쳐 올랐다. 그 연은 바람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하늘로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것이 한없이 높이 솟구쳐 오르면 오를수록 모든 연의 모습은 하나같이 점으로 변해버린 까닭에 똑같아졌다. 내마음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득하여 져서 눈에 가물가물할 때 까지 솟을 대로 솟아오르게 되자 연은 아래 자취를 감춰 버리고 말았다. 달을 수 없다는 망연함에 갑자기 서러움같은 어떤 것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제 무한의 세계 속으로 사라져버린 아니 숨어버린 그것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연줄뿐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 연이 누군가와 함께 있음을 일러주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고 누군가 그것을 통해 두악산과 사봉 그리고 말목 산을 내려다보고 싶은 욕망의 그림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연줄이 있는 한 그것을 당기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연인 것처럼 까마득한 옛날일도 시간을 거슬러 가면 과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역사라는 학문이기도 했다.



(그림 8) 연

아이들이 성재산에서, 강가에 나와 연을 날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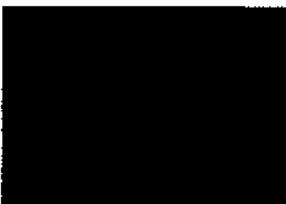
그 아이들 역시 조선 말기 한양의 청계천에 모여 연날리기를 즐겼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이었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 하

루 이를 전이면 청계천에서 남한강에서 벌어지는 연싸움을 보려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다. 몇일 안 있으면 가득해질 저 달도 흐르는 이 강물도 모두 쉬지 않고 흐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영영 흘러가 버리고 말라 버리는 것이 아니듯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도 끝내 아주 없어지려 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천지간에 한순간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역사란 변하는 부분과 변할 수 없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부인 권씨가 죽자 일년여의 유거생활(幽居生活) 속에서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한 정리를 한 것 같았다. 혹시 귀거래가 아니었을까… 그는 귀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 단양현감을 떠난 것은 아닐까



(그림 9) 옛 단양읍 상방리와 하방리 일대



(그림 10) 습지처럼 변해버린 하방리 주거지



(그림 11) 단양초등학교 운동장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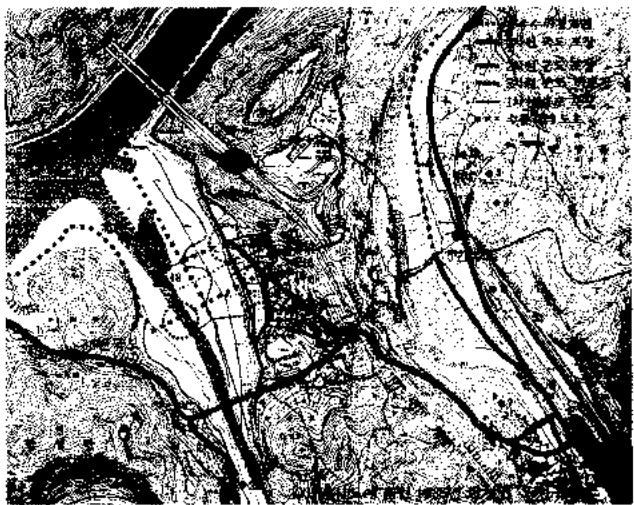


(그림 12) 우화교와 체방을 쌓았던 석축 전해

단양의 도시구조를 조사한다는 곳은 퇴계 이왕의 삶의 한 부분을 조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침내 내 자신 스스로 과거로 침입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이라도 하듯 나는 왼쪽으로 눈을 돌렸다. 나들목터와 벌 그리고 성재산과 두악산 줄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오른편으로 눈길을 옮기자 중방리 들판과 말목산 줄기와 모랫벌이 다시 한 눈에 들어왔다. 어느 쪽을 보거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을 나는 되짚었다. 하방리 쪽에서 성재산을 걸어올라 산마루에서서 처음으로 하방리와 중방리를 바라보았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 없었다. 멀리로 바라다 보이는 하방리 중방리 상방리라는 생소한 이름의 단양읍은 절로 감탄이 흘러나올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었다. 서북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이어져나간 산줄기와 동남쪽으로 긴 자취를 끌며 펼쳐진 들판과 합수머리 그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단양천을 감싸듯 펼쳐졌던 읍내는 아스라하게 멀기만 했다. 그 아득하고 포근한 경치 속에서 충주호 담수로 이 도시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단양읍은 내 자신을 그렇듯 좋은 인상으로 맞아 주었드시 단양현감 이황을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 역시 첫 느낌으로 단양읍이라는 생소한 지명이 주었던 거리감이나 마땅찮음을 거의 해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하방리보다 한 구역 앞인 상방리 농재에 내리길 잘 했다고 생각했다. 원래 예정은 하방리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조사효과를 고려시키는 한편 읍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림 13) 도시복원의 주요 철길들



(그림 14) 나들목을 이용 복원한 단양읍 도로계개

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놋재에서 내려 언덕길을 걸어 내려왔던 것이다. 나들목을 지나자마자 또 다시 질퍽거리기 시작했다.

일전에 이곳을 조사할 때 이렇게 까지 진전 될 줄은 짐작조차 못 했던 사실이었다. 나들목 그건 지금 상황에선 문제를 풀어가는 화두가 되고 있었다. 더구나 산길과 들판 길의 절점을 찾아내야 할 판에 가장 서둘러 찾아내야 할 요소였다. 더구나 도시역사를 추적해 가는 입장에서 나들목의 규명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이기도 했다. 지금은 다리를 설치하여 모두 편하게 강을 건넜으나 기술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나들목은 사람들이 건너가야 할 주요한 통로였다. 그러하다면 도시구조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로였므로 하방리 도로패턴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선 단양은 지형적으로 두악산과 성재산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취락이 발달해왔던 도시였다. 특히 성재산은 양 날개에 단양천과 죽령천을 끼고 있으므로 죽령과 예천으로 너머 가려는 사람들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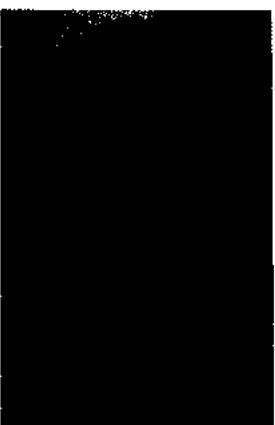
그래서 삼국이 정립하던 신라 때 이곳은 신라의 최북방 경계기지로 적성산성이 있었던 곳이다. 말하자면 성재산 정상에 성곽이 있고 하단에 취락이 발달했던 곳이다. 퇴뫼 산성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곳은 산길과 나들목의 관계가 도로의 변화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강 하구에 있으므로 수로의 이용과 강변길과 연계성이 언급될만한 곳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신라시대 하방리와 죽령천의 북하리 일대가 배후도시 역할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곳은 전략적으로 영남의 동부지방과 연계되기 때문에 충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소백산 북쪽 교통거점도시였다. 그 혼적이 바로 상진리와 36번 국도였다. 이제 놋재란 죽령과 충주를 연결하는 고개였으므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고 하방리 도시구조는 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동일 표고 능선으로 수평이동 길들이 성재산과 두악산 산길과 산자락에 있는 돈들비를 연결했을 것이다. 그리고 놋재를 향한 길이 우화교 근처 나들목을 통해 중방리와 이어진 것처럼 단양천을 가로 지르는 나들목을 숫자만큼 산길을 가로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곳이 경작하기 좋은 곳이었으므로 경사가 급한 산지보다 경사가 완만한 하구 쪽에서 먼저 도시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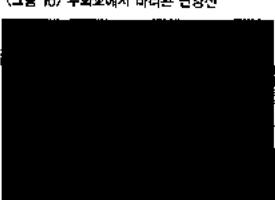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중방리의 옛길, 단양읍에서 단구협에 이르는 남한강 경관화랑을 직접 걸어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길을 다잡았다. 성재산자락에 올라서자 이 일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눈 아래 단양읍을 지나 왼편으로 두악산과 봉산 사이를 흐르는 단양천 하구 물길이 멀고멀게 펼쳐져 있었다. 참으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봉산을 왼쪽으로 품은 단양천 하구의 한 겨울 풍광은 반짝이는 은빛 햇살로 윤기를 맺기고 있는 남한강물로 어느 때 없는 풍만한 자태로 넘실대고 있었다. 이것은 사위어가는 계절이 그려내는 뜻 모르게 현란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 현란한 빛 덩어리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싱싱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고 선연한 은빛이 반사되어 일일대가 모두 그 빛에 적어 드는 것만 같았다. 만약 저것이 강물을 반사되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대로 사람들



(그림 15) 세바봉과 알목산 두 산 사이 단구협



(그림 16) 우화교에서 바라본 단양천



(그림 17) 우화교 전海内外 단양천 건너 봉산

이 살았던 집들의 지붕으로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사 이런 기대가 부질없는 짓이라 해도 저 강줄기만이라도 저 빛처럼 은빛 백사장을 그대로 간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문자 그대로 백사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이곳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원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빛 햇살로 영통했던 그 강줄기 모래 둔 턱은 뱃발로 척박해졌고 매말라 있었다. 이 강줄기를 따라 잡목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뿐 그것도 떼를 이루지도 못했다. 숲이 없다면 갈대라도 많았으면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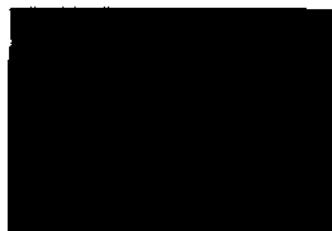
룬다. 갈대마저 없는 이 강변은 흉랑한 뱀 땅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모래밭은 사라지고 뱀로만 이어지는 이 강변을 나는 걸어서 우화교 교각 잔해가 남아 있는 강변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건기와 우기의 반복으로 스펜지처럼 변한 이곳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을 때마다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한 뱀은 발목까지 빠지게 했고 그대로 물고 늘어졌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말라 죽은 잡목들의 잔가지들이 예고 없이 다리를 긁어댔다. 잠시 불편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바람결에 밀려온 차가운 공기가 숨통마저 막아버렸다. 황급한 나머지 다시 숨을 들이마셨으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바람 방향을 가늠하여 몸을 돌렸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뿐어냈다.

이 폐허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함없이 남아 있는 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강으로 흘러내리는 단양천 물위를 수도 없이 뒹겨 오르는 싱그러운 햇살의 반짝거림과 윤기였고 어느 때 없이 소박함을 자랑하는 단양천 하구의 잔잔함이었다. 그 은빛 영롱한 빛의 점열만이 살아남아서 꿈틀거리는 싱싱한 생명감으로 예나 변함없이 사라진 옛 단양의 모습을 되살리기라도 하듯 반갑게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빛의 현란한 암놀림에 놀라 서 있는 석벽의 모습, 그 선연한 적황색의 바위 색으로 하방의 하구에도 옛 단양을 일대도, 선암리 골짜기도 그 빛으로 적셔지는 것 같았다. 붉은 단(丹), 밝은 양(陽)을 쓰는 단양이란 지명은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 놓은 단성교에서 옛 단양과 선암리 들어가는 골짜기 일대가 한눈으로 바라 보였다. 눈 아래 흐르고 있는 단양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쪽으로 오른쪽으로 단양읍을 감싸고도는 성재산줄기 강 건너 산등성이가 멀고멀게 펼쳐져 있었다.

참으로 단양의 풍광은 장관이었다. 단양천을 건너면 길을 되돌아 단성교를 건너가야 한다. 다리 중간에선 나는 강 하구가 그려내는 신비스럽고도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것이 햇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대로 풍요로운 삶의 도시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니 그따위 망상은 부질없는 것이라 치더라도 저 강물만이라도 저 빛처럼 맑고 영롱한 물로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문자 그대로 남강물이 온통 은빛 물결로 가득했더라면 날로 악화되는 환경문제로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늘어날 길 없는 자연경관에 매달려 숨 쉴 틈을 찾아 허덕이지 않고 이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흐르는 남한강은 바다 같은 호수로 변해버렸고 하얀 모래밭으로 그득했던 강변길은 거무칙칙한 뱀로 이어져갔다.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 개울물은 강으로 변해버렸고 흥수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이제 남한강 주변은 하얀 모래가 아니라 뱀으로 뒤덮여 있었고 강변에 늘어선 기암 석벽에 덧칠해진 누런색 황토색 띠는 흥수 때 만수위를 기록이라도 한 듯 줄기차게 하류에서 상류로 줄을 긋고 있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얼고 녹기를 거듭한 결과 웅장했던 석벽은 하나둘 잘게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걷는 동안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모습들은 바로 폐허가 되면서 무너져 가는 옛 단양의 모습과 단양천과 남한강이 웅장한 주변 산들과 만나 빛어낸 신비로운 정경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우울함도 바로 이 때문이기도 했다.



(그림 18) 얼음골에서 본 36번 국도



(그림 19) 봉산자락에서 바라본 사봉과 제비봉

단성교를 지나 오른편으로 주유소 거리잡고 사봉 끝자락인 봉산 자락을 내려서자 봉산리 옛 마을 터로 내려왔다. 여기가 좀 전 머물렀던 우화교 건너 마을이 있었던 자리이다. 여기서 우화교를 건너지 않고 남쪽으로 소백산 기슭을 향해 길을 가면 하선암 그리고 중선암 사인암, 상선암으로 가게 된다. 다시 남한강변으로 길을 돌아 걸음을 몰아치자 멀리 사봉을 위편으로 끼고 제비봉 자락에 자리한 구미리 마을이 보인다. 이곳이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단구협 출구였다. 조선총독부 지형도를 보면 원래 길은 해발 백여미터에 불과한 강변을 따라 구담봉이 보이는 장회나루까지 비포장 사동 도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길은 장회나루에서 실개천을 건너 구담봉과 옥순봉을 끼고 도는 작은 소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충주댐이 건설되자 남한강이 충주호로 변하고 담수되자 이 길은 모두 침수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봉과 제비봉 산자락을 해발 이백여 미터 높이로 가로지르는 포장도로가 장회리까지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봉산 자락을 돌아 뱀으로 변한 남한강 길을 한 시간 남짓 걸었을까, 얼음골 골짜기 앞에서 원편으로 사봉을 바라보고 제비봉 언덕으로 난 도로를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강 건너 장엄하게 남한강줄기를 가로막고 펼쳐 진 말목산 능선이 보인다. 세시경에 불과했지만 산그늘이 일찌감치 찾아 들었다. 이파금 이곳 풍광을 아枉곳하지 않은 듯 무심히 스치고 지나치는 승용차들을 제외하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월로 접어들었지만 산중에는 강추위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느지막하게 산봉우리에 올라선 겨울해가 남쪽으로 기울대로 기울자 산그늘 속에서 숨어있던 어둠은 일찍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온기를 잃은 햇살이나마 남동쪽 제비봉에 가리게 되면서 추위는 어둠살과 함께 골꼴을 채워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수록 추위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산들마저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양 이파금 긴소리를 내며 비탈에 내려선 나뭇가지를 심하게 흔들어대곤 했다. 그러나 계곡건너 이파금 보이는 말목산 능선에 자리한 바위에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단구협을 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들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시달립 당하는 소리와 솔잎들이 휩쓸리는 소리가 쉼 없이 퍼져 산그늘 속을 방황하고 있다.

답사를 다녀와 글을 정리하면 보름을 하루 앞둔 저녁 무렵이었다. 컴퓨터 모니터에 조그만 거미 한 마리가 가느다란 거미줄을 타고 내려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거미줄을 끊어 거미를 모니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곤 다시 필린



(그림 20) 거미줄 그것은 도시의 혈통이다.

재를 잊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무심코 쳐다본 모니터 위에 거미가 또다시 대동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놈은 모니터 위에서 책상으로 책상에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방을 가로질러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처음 내려왔던 그 곳을 찾아 또 다시 줄을 매고 모니터로 내려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자 내 관심은 모니터에서 다시 거미로 돌아갔다. 이번만큼은 어림없다는 생각으로 거미줄을 끊고 그 녀석을 다시 모니터 위에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놀란 거미는 한동안 뭐 가를 찾아 분주하게 모니터 위를 이리저리 돌아 다녔다. 얼마 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 한 곳에 멈춰 선 거미는 공지를 높이 치켜들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다시 자리를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드디어 감을 잡았다는 듯 한 곳에 멈추어 서서 공지를 높이 들고 줄을 뿐어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공지에서 나온 것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아주 가는 그 실이었다. 그실은 너울거리며 마술밧줄처럼 천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게 아닌가. 인내의 시간이 지나자 거미줄 끝은 마침내 천장에 닿았고 줄은 이내 팽팽해졌다. 그리고, 거미는 우유히 줄을 타고 천장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내가 본 것은 줄을 타고 내려오던 거미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미였던 것이다. 순간 나는 이것이 살곳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는 원초적인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정작 거미가 찾아 헤맸던 것은 모니터 속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의 흐름이었다. 모니터 열기에 데워져 가벼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이용하여 거미는 거미줄을 천정으로 실어 올려보내고 것이다. 이것을 보는 순간 산길을 내는 우리자신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든 것이다. 이렇게 세로줄을 만들기 시작한 거미는 풀을 먹여가며 가로줄을 만들어 나름의 작은 도시를 천정모서리에 건설했던 것이다. 이것을 지켜본 나는 도시가 형성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산길은 등산로가 아니라 거미줄과 같이 우리자신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지탱해주는 끈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1970년 항측도에서 길을 하나 하나 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1/5,000지도에 그 길을 한줄 한줄 다시 입히기 시작했다.

수많은 실선들이 덮혀진 위에 거미가 가로줄과 세로줄을 구분하듯 간선도로를 입히기 시작했다. 이런 작업을 상당시간 반복해내자 1970년도 단양의 모습이 서서히 도면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과거로 들어갈 기본 도면이 작성된 셈이다.

남한강가에 아이들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그림 21) 1970년 단양을 항공사진



(그림 22) 1970년대 단양지역 복원도

아이들이 얼레로 연실을 채고 낚을수록 그들의 연은 더 높이 떠올랐다. 그러다간 상당한 거리를 급강하하다가 다시 머리를 쳐들고 올라갔고 더러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르며 용트를 하는 것이 제법 솜씨 있는 연 날림이었다. 사실 얼레는 연과 날리는 사람의 앞 가슴과 45도 각도로 지녀야 했고 연신과는 직선에 가깝도록 팽팽하게 되어 있어야 연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연이 끝바로 섰을 때 통줄을 주면 연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여지므로, 이때 연실을 재빨리 감아야 바람을 타게 된 연은 기울어진 방향으로 빠르게 날게 된다. 그리고 아래, 위로 보내려면 통줄을 주어 연이 비스듬하게 될 때, 뒤티김을 주어야 연을 거꾸르트린 다음 얼레를 낚아채면서 연줄을 감으면 연은 수직으로 곤두박질한다. 곤두박질하는 연을 다시 바로잡고 위로 올릴 때는 뒤티김을 주어 연실을 풀어주고 가으면 된다. 연을 날린다는 것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로 아래로 보내기 를 잘해야 함은 물론 뒤티김을 잘 주어야 한다.

조선시대 단양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까마득한 옛날 일이어서 모습조차 찾아내기 힘든 단양의 모습이 연이라 한다면 지금 지도와 항공사진을 들고 조선시대 단양의 모습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서울건축사 풍수지리연구회 현장답사 보고서

# 아산 윤보선 전 대통령 선영 및 생가를 찾아

**Visit family graveyard & birthplace of former President Yunboseon in Ahsan**



이종호 / 정회원, 시원 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KIRA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졸업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사  
• 「녹청련」 총보위원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회원들끼리 전문 연구회를 발족하여 3년 전부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 중 풍수지리연구회(위원장 박시익)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협회에 모여 이론 공부를 하고 반기별로 현장답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서울 인왕산 일원, 고창 인촌선생 고택, 덕소 청풍김씨 묘소, 여주 명성황후 생가 및 영릉, 신륵사 등을 두루 다녀왔다. 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다. 생기가 넘치는 명당 산소와 좋은 집에서 큰 인물을 배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2010년 첫 답사는 제 2공화국 윤보선(尹潽善:1897 ~1990) 전 대통령 선영과 생가가 있는 충남 아산이다. 윤 대통령의 집안 내력을 아는 사람들은 몇 대에 걸쳐 한 문중이 그토록 번성할 수 있는지 부러워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구한말에서 현대까지 윤보선 대통령의 친인척처럼 출세를 많이 한 가문은 찾기 힘들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해평 윤씨인 윤보선 대통령의 선대는 당파싸움이 한창일 때인 조선 후기에 공찬(恭贊)벼슬을 지낸 윤득실이 세상살이에 염증을 느껴 아산으로 낙향하여 살게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선비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삶

을 살았다. 자식들에게 어렵더라도 착한 삶, 즉 선행을 당부하며 세상을 하직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가세는 더욱 기울어져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윤득실의 셋째 아들인 취동공(윤 대통령의 증조부)은 사십이 넘도록 자식도 없었다. 그리고 생활이 궁핍했지만 항상 죽을 쑤어 대문 앞에 놓고 걸인들을 보살피는 등 남을 위한 적선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취동공이 둔포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길바닥에 쓰러져 기진맥진해 있는 걸인 차림의 노스님을 보게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노스님을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껏 간호하면 보살폈다. 추운 날씨가 물리고 기력을 회복한 노스님은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며, 다만 소승이 풍수지리를 타득했사온데 부모님 뒷자리로 좋은 곳을 알려드리고 가겠다면서 산으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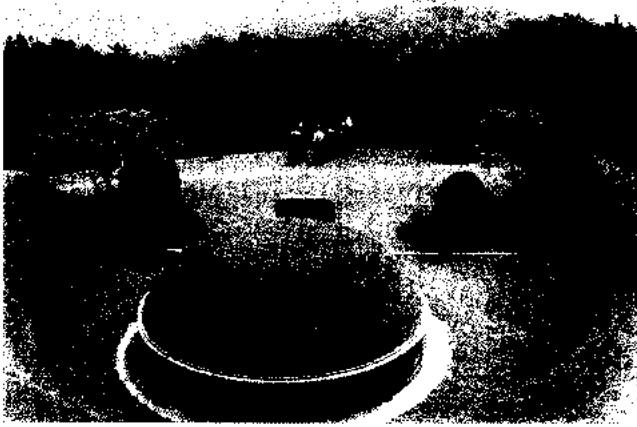
노승은 산을 한참 오른 후에 뒷자리를 점지해주었다. 그러나 노승이 잡아준 자리는 남의 산인 데다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덕수 이씨 문중의 소유라 돈이 있더라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노승은 윤 선비의 심증을 읽었는지 인간만사는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모든 것은 물 각유주(物各有主)라 하면서 모든 물건은 입자가 따로 있기 마

력이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친 묘를 속히 이장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윤 선비는 우여곡절 끝에 부친 윤득실(윤 대통령의 고조부) 묘를 이장하게 되었다.

노스님이 잡아준 명당자리로 이장한 후에 윤 선비는 아들까지 낳게 되고 아산의 해평 윤씨 집안은 용광로에서 불이 타오르듯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 후손들이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고 재물을 크게 모으는가 하면 자손들이 객지에 나가서는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야말로 풍수에서 중요시하는 貴, 富, 孫을 다 얻게 된 것이다. 명당 산소로 이장한 후에 많은 발복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현재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는 풍수 이야기이다. 윤보선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의해 마련된 국립묘지도 마다한 채 아산시 선영에 영면해 있다.

우리는 5월 19일 오후에 이곳을 찾아갔다. 아산시 읍봉면 동천(東天)2리 입구에서 1km를 들어가니 비룡산 아래 윤보선 대통령과 그 가족들 묘역이 조성돼 있었다. 쭉쭉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기품 있게 서 있고 가까운 곳에서 펑울음소리가 들린다.

산소는 맨 위에서부터 윤보선 대통령과 영부인 공덕귀 여사 묘소 그리고 아래로 고조부 협판공 득실 내외 묘 등 전체 6기가 축을 이루며 일렬로 위치하고 있다. 계단을 통해 오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묘소부터 올라가 배례를 하고 풍수의 대가인 박시익 위원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명당개벽도(음택)

윤 대통령이 조상의 산소보다 위에 있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등 태운 것으로 보았고 스케치북에다 자형도를 그리고 산소의 위치를 표시하며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비룡산의 9부 능선에 위치, 좌 청룡과 인산이 완벽하다. 그러나 우백호가 멀고 희미한 것이 흠인데 소나무 숲으로 비보를 해 놓았다.

진정한 명당자리는 바로 그 아래 고조부 묘이다. 확실히 더 아득하게 느껴지고 L-rod로 측정해보니 안쪽으로 크게 벌어지고 밖으로는 달혀 진다. 한마디로 기가 충만한 곳이다. 바로 이 자리가 해평 윤씨 가문이 번성하게 된 시발점이 되어 결국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된 곳이다.

외형상으로도 명당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용(龍), 혈(穴), 사신사(四神砂), 물(水)이 그것인데 산맥을 용이라고 볼 때 이 곳은 용의 자궁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조상을 묻으면(씨를 뿌리면) 용(임금)이 태어난다. 암수(入首: 산소에서 머리가 처든 곳으로 여자의 음핵에 해당)와 선익(불룩한 부분아래 움푹 패여 쏠린 곳)도 분명하다. 산 아래 물의 흐름이 산소의 축과 반대방향(逆水: 물을 만나야 명당)이며 수구(水口: 사람의 항문에 해당, 좁혀 있어야 명당) 또한 좁게 되어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산은 기의 원천으로 이들이 만나 생기(生氣)를 이루게 된다.



윤보선 전 대통령 고조부 묘

사람은 부모(조상)로부터 몸을 받고, 부모(조상)의 유골이 생기를 얻으면 자식(자손)은 그 유력을 받게 된다고 본다. 이것을 동기감응이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이나 조상과 후손은 같은 유전자, 즉 동일한 DNA를 가진 동조된 진동자(振動子)이므로 당연히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명당 발복의 원리가 이러한 것이다.

윤보선 대통령 부모 묘소를 둘러보고 내려와 인근에 있는 윤 대통령 생가를 가보기로 했다. 음택과 양택을 다 보고자 하는 것이다. 명당 산소 못지않게 좋은 집(터)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생가

국도에서 1.7km를 들어가니 전형적인 시골마을에 솟을 대문이 있는 사대부 가옥이 우리를 맞는다.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번지, 여기가 윤보선 대통령이 태어나 3살까지 살았던(이후 서울 안국동으로 이사) 집이다.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생가는 그런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대문 입구에서



생기 안에서 본 대문 밖 모습

대문 앞에 안내판이 서 있는데, 내용은 이렇다.

'제 2공화국 윤보선 전 대통령(1960.8~1962.3재임)께서 태어난 집. 'ㄴ'자형 행랑채의 뒤쪽에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안사랑채가 안마당을 둘러싸고, 행랑마당 오른쪽에 'ㄴ'자형 바깥사랑채가 자리잡고 있어 전체적으로 파(巴)자형의 평면구조를 하고 있다. 바깥사랑채에는 대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안채는 원래 안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건넌방, 작은 부엌, 오른쪽에 웃방이 배치되고 웃방 앞으로 샷방, 안방, 부엌이 뛰어나와 있었는데 후대에 가로칸의 6칸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1907년에 윤보선의 선친 윤치소가 건립하였고, 바깥사랑채는 건축 양식으로 미루어 보아 1920년대에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후대에 부분적으로 다시 고쳐졌지만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평면구성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안채는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들여다봐야 했기에 아쉬움이 컸다. 전체적인 규모나 풍모가 대가집 다웠다. 기(氣)도 충만하고 명당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도 박 위원장의 설명은 계속 되었다. 윤 대통령 생가도 좌정룡이 특히 좋다. 윤일선(시촌)가 옥 뒤편으로 길게 뻗어 내린 산줄기가 바로 그것인데 우벽호는 여기서도 빈약하다. 그래서 여자들 쪽에는 큰 인물이 없다는 것 앞에 보이는 안산이 길게 누워 있는 토산 형국이다.

큰 인물이 배출될 산세다. 물 흐름을 비롯, 전체적인 지형이 선영과 흡사한 조건을 보여주는 명당 터임이 분명하다.



서쪽에서 본 전경



명당 개념도(양택)

그곳에서 반가운 제비를 보았다. 예전에는 흔하던 제비가 이제 좀처럼 보기 힘든 세상이다. 명당 또한 그렇다. 우리가 난개발로 자연 환경을 어지럽힌 결과이기도 하다.

풍수지리는 터무니없는 속설이 아니라 터무니를 살리고자하는 자연과학이고 환경공학이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건축사들이 풍수를 제대로 배워 좋은 터를 잡는 방법(입지선정)에서부터 건물배치, 건축 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부동산 개발, 납골당, 공원묘지설계, 단지 및 도시설계, 해외진출, 풍수 건강 상담 등의 일을 도맡아 설계비도 더 받고 사회에 공헌하는 길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 UIA 2010 ASA International Forum Bangkok, Thailand 참관기

금번 UIA Forum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극렬한 반정부 시위가 한창인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인 태국건축사협회(ASA)는 급히 회의 장소를 옮겼고 변경된 장소인 태국 방콕 라마가든 호텔과 Impact Arena Exhibition Hall은 시내 중심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외신에서 보도하는 극한 대결의 볼거리와는 거리가 있었

다. 그러나 몇몇 주요 연사가 불참하는 등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으나 주최측의 해외인사를 위한 철저한 보안에 의해 계획된 회의는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행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최영집 회장, 김지덕, 이근창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본 협회 대표단은 UIA 포럼 2010 개막일 (2010.4.28) 하루 전인 4월 27일 12시에 태국 건축사협회(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 ASA) Thaweejit Chandrasakha 회장, Sathinut Tandanand 부회장, Chalay Kunawong 교육전문부회장과 방콕 라마가든 호텔 내의 Zhang Restaurant에서 상호교류관련 회의를 가졌다.

논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1)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관계 유지, 2) 상호 건축 정보의 교환 3) 연례 상호 방문을 통한 관계 개선, 4) 교육제도의 국제 기준 공유, 5) 건축사 상호자격 인정을 위한 기초 작업, 6) APBC 건축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었으며, 일본건축가협회(JIA)와 태국건축사협회(ASA)가 갖고 있는 국제적 협력 관계를 본 협회와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박하여 MOU를 체결하



UIA 국제포럼에서 기념선물 교환 중인 양 단체 회장(왼쪽부터 ASA 부회장 Sathinut Tandanand, 본 협회 회장 최영집, ASA 회장 Thaweejit Chandrasakha, 본 협회 국제자문위원 이근창, ASA 교육전문부회장 Chalay Kunawong, 본 협회 국제자문위원 김지덕)

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자국 내 건축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건축 교육, 건축사 계속교육, 개업 건축사 훈련 등 건축설계분야의 폭넓은 협조를 이뤄가기로 협의하였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범용하고 있는 UIA Accord의 적용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교환,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제 기구 ARCAASIA와 UIA 제4지역협력을 비롯한 APEC 관련 국제 조직에서의 공조 등도 동시에 논의되었다.

4월 28일(수)에는 UIA Forum 2010이 Impact Exhibition Hall에서 개최되었으며 Billie Tsien이 발표했는데 Yale 대학, Harvard 대학, Texas 대학, Pennsylvania 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한 Billie Tsien 건축사의 현대감각에 합당한 작품들의 발표에 방청객의 찬사가 있었으며, 방청객의 관전평이 대단히 호화로웠다. Billie Tsien 건축사의 작품세계에 상당한 의욕적인 장래가 보였다. 그러나 정치 불안으로 인해 발표자로 선정되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강의를 거절한 Netherlands의 Wiel Arets와 중국의 Zhang Ke의 불참은 Forum의 가치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민석 씨가 4월 29일(목) 아침 10시부터 아주 폭넓은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발표 작품으로는 북경 EXPO 한국관, Pixel House, Dalki Theme park, Boutique Monaco, Xi gallery, Mue shop, Bitform gallery Seoul 등 그동안 작업했던 여러 작품을 선보였다.

이 외에 다양한 작품 50여점을 설명과 함께 준비한 영상과 발표로 아주 멋진 Forum을 진행하여 참석한 세계건축사연맹뿐 아니라 태국의 참가 건축사에게도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 건축사의 왕성한 활동은 우리에게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태국 건축사 Amata Luphaibon, 인도 건축사 Bijoy Jain, John Ding, Malyzlei, 태국 건축사 Twitee Vajrabhaya Teparkum, 호주 건축사 Kerstin Thompson의 꿈 많은 작품들을 컴퓨터 작업으로 설명하여 많은 현지 건축사들의 찬

사를 받았다.

최종 연사로 선정된 일본의 건축사 Riken Yamamoto 씨 역시 초청을 수락한 후 정국 불안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4월 30일(금)에는 오후 Bijoy Jain 씨의 강연으로 Forum 을 계획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마쳤다. 인도의 Bijoy Jain의 강연은 그의 독특한 건축 사로서의 행위가 청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건축주와의 만남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설계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감리까지 본인 이 직접 관리 통제하여 그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생활 문화에 적합한 건축물이 창조되었다. 이를 위한 재료선정, 공법선정, 인력 활용 등 지역의 인문학적 요소를 감안한 건축사의 배려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Forum과 병행하여 4지역 이사를 포함한 UIA 임원회의와 ARCAASIA 대표단 회합이 있었다. ARCAASIA 대표자회의에서는 다가오는 ACA-14 총회 개최와 관련된 파키스탄의 보고가 있었다. 전 이사회에서 야기되었던 자살 폭탄 테러를 비롯한 정국의 불안에 따른 내부 조치 사항이 쟁점이 되었으나, 파키스탄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회장단의 현장 사전조사 내용들이 설명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건축사협회(IAP)에서는 각 행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특히 Student Jamboree와 관련된 인원수 조정, 장소의 보안 상태 점검 등이 주안점으로 강조되었다.

다음날 주최 측에서 제공한 시내 관광을 끝으로, 늦은 시간에 귀국길에 오르며 5박 6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

김지덕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 마이애미 총회 참관기(2010 AIA Convention, Miami)

이번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총회는 6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우리 협회의 최영집 회장이 FIKA의 대표회장으로서 참석하고, 이창섭 부회장, 류춘수 전 부회장, 신춘규 이사, 김성민 국제위원장, 그리고 국제위원회의 김지덕, 이영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고, 가협회에서는 이상립 회장을 비롯하여 10명의 대표단 및 참관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협회의 최영집 회장과 가협회의 이상립 회장이 Hon.AIA(미국건축사명예회원)를 수여받고, 김정식 건축사가 Hon.FAIA(미국건축사특별명예회원)를 수여받았다.

## 2010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미국건축사협회의 연례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총회는 크게 3가지의 행사로 구분된다. AIA 골드메달 수여식 등의 각종 수여식과 기조연설을 주로 하는 일반 강연(General Session)과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자재전시(EXPO) 3가지이며, 이 3가지 주 행사를 중심으로 각종 지역건축사회 및 동문회 등 다양한 저녁 행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3일 동안 건축사들의 축제분위기로 들뜨게 만든다.

이번 총회는 '다음 10년을 위한 설계: Design for the New Decade'라는 주제를 갖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많은 건축사 회원들과 관계사들이 참석하여 총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준 성공적인 총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서술적인 방법으로 총회의 참관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였으나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미국 총회의 참관기를 쓰려고 한다.

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자국 내 건축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건축 교육, 건축사 계속교육, 개업 건축사 훈련 등 건축설계분야의 폭넓은 협조를 이뤄가기로 협의하였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범용하고 있는 UIA Accord의 적용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교환,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제 기구 ARCAASIA와 UIA 제4지역협력을 비롯한 APEC 관련 국제 조직에서의 공조 등도 동시에 논의되었다.

4월 28일(수)에는 UIA Forum 2010이 Impact Exhibition Hall에서 개최되었으며 Billie Tsien이 발표했는데 Yale 대학, Harvard 대학, Texas 대학, Pennsylvania 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한 Billie Tsien 건축사의 현대감각에 합당한 작품들의 발표에 방청객의 찬사가 있었으며, 방청객의 관전평이 대단히 호화로웠다. Billie Tsien 건축사의 작품세계에 상당한 의욕적인 장래가 보였다. 그러나 정치 불안으로 인해 발표자로 선정되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강의를 거절한 Netherlands의 Wiel Arets와 중국의 Zhang Ke의 불참은 Forum의 가치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민석 씨가 4월 29일(목) 아침 10시부터 아주 폭넓은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발표 작품으로는 북경 EXPO 한국관, Pixel House, Dalki Theme park, Boutique Monaco, Xi gallery, Mue shop, Bitform gallery Seoul 등 그동안 작업했던 여러 작품을 선보였다.

이 외에 다양한 작품 50여점을 설명과 함께 준비한 영상과 발표로 아주 멋진 Forum을 진행하여 참석한 세계건축사연맹뿐 아니라 태국의 참가 건축사에게도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 건축사의 왕성한 활동은 우리에게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태국 건축사 Amata Luphaibon, 인도 건축사 Bijoy Jain, John Ding, Malyzlei, 태국 건축사 Twitee Vajrabhaya Teparkum, 호주 건축사 Kerstin Thompson의 꿈 많은 작품들을 컴퓨터 작업으로 설명하여 많은 현지 건축사들의 찬

사를 받았다.

최종 연사로 선정된 일본의 건축사 Riken Yamamoto 씨 역시 초청을 수락한 후 정국 불안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4월 30일(금)에는 오후 Bijoy Jain 씨의 강연으로 Forum 을 계획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마쳤다. 인도의 Bijoy Jain의 강연은 그의 독특한 건축 사로서의 행위가 청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건축주와의 만남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설계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감리까지 본인 이 직접 관리 통제하여 그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생활 문화에 적합한 건축물이 창조되었다. 이를 위한 재료선정, 공법선정, 인력 활용 등 지역의 인문학적 요소를 감안한 건축사의 배려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Forum과 병행하여 4지역 이사를 포함한 UIA 임원회의와 ARCAASIA 대표단 회합이 있었다. ARCAASIA 대표자회의에서는 다가오는 ACA-14 총회 개최와 관련된 파키스탄의 보고가 있었다. 전 이사회에서 야기되었던 자살 폭탄 테러를 비롯한 정국의 불안에 따른 내부 조치 사항이 쟁점이 되었으나, 파키스탄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회장단의 현장 사전조사 내용들이 설명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건축사협회(IAP)에서는 각 행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특히 Student Jamboree와 관련된 인원수 조정, 장소의 보안 상태 점검 등이 주안점으로 강조되었다.

다음날 주최 측에서 제공한 시내 관광을 끝으로, 늦은 시간에 귀국길에 오르며 5박 6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

김지덕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 마이애미 총회 참관기(2010 AIA Convention, Mia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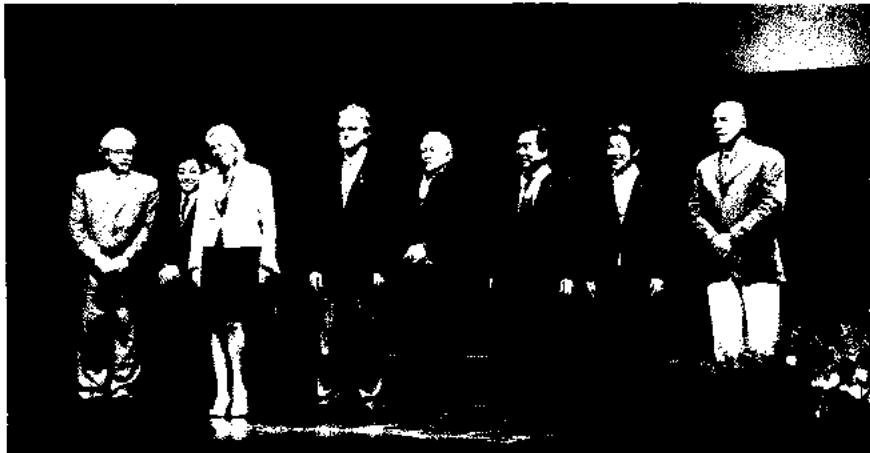
이번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총회는 6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우리 협회의 최영집 회장이 FIKA의 대표회장으로서 참석하고, 이창섭 부회장, 류춘수 전 부회장, 신춘규 이사, 김성민 국제위원장, 그리고 국제위원회의 김지덕, 이영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고, 가협회에서는 이상립 회장을 비롯하여 10명의 대표단 및 참관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협회의 최영집 회장과 가협회의 이상립 회장이 Hon.AIA(미국건축사명예회원)를 수여받고, 김정식 건축사가 Hon.FAIA(미국건축사특별명예회원)를 수여받았다.

## 2010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미국건축사협회의 연례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총회는 크게 3 가지의 행사로 구분된다. AIA 골드메달 수여식 등의 각종 수여식과 기조연설을 주로 하는 일반 강연(General Session)과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자재전시(EXPO) 3 가지이며, 이 3 가지 주 행사를 중심으로 각종 지역건축사회 및 동문회 등 다양한 저녁 행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3일 동안 건축사들의 축제분위기로 들뜨게 만든다.

이번 총회는 '다음 10년을 위한 설계: Design for the New Decade'라는 주제를 갖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많은 건축사 회원들과 관계사들이 참석하여 총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준 성공적인 총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서술적인 방법으로 총회의 참관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였으나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미국 총회의 참관기를 쓰려고 한다.



AIA 총회 General Session (6/12)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이상령 회장 Hon.AIA(미국건축사협회원) 수여

### 일반강연 (General Session)

일반강연은 총회의 가장 상징적인 행사 중 하나로 매일 한 번씩 중요한 시상식과 기조 연설을 통해 협회의 건축적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건축사 회원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특이한 것은 회장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고 발표하면서 우리 행사와는 다르게 주최지의 시장이나 커미셔너 외에는 초청하는 사람 없이 진지한 건축사들만의 행사를 이끄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다.

일반강연의 마지막 날 골드메달 시상식에서는 건축사들이 거리낌 없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가슴 진하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다.

**첫째 날 일반강연\_개막식과 더불어 기조 연설자로 엘 고어 전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다니엘 핑크(Daniel Pink)가 “현대 경제에 있어서 우뇌 사고의 역할”을 주제로 창조적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연하였다.**

기조 연설 전 시상식에서는 공공건축물부문에서 공로가 인정된 건축사에게 주는 에드워드 캠퍼 어워드는 공공건축사 James Logan Alveil, 건축사사무소 부분에서 1년간 탁월한 실적을 보인 사무소에 주는 상인 Architecture Firm Award부문에선 Pugh + Scarpa 건축사사무소가, 그리고 25년 건축상엔 킹 암들 아지즈 공항의 하지 터미널(SOM 설계)이 수상했다.

**둘째 날 일반강연\_기조 연설은 유명 사진 작가인 크리스 조던(Chris Jordan)이 “소비와 의무”를 주제로 무절제한 소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건축사협회와 미국건축학회(ACSA)가 공동으로 건축교육의 공로자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토파즈 메달은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세계적인 건축사인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건축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프린스턴대학 등 많은 학교에서 건축 교육을 해온 공로가 높아 인정을 받았다.

또한 건축사의 사회적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Whitney M. Young Jr. Award는 벤자민 바가스가 수상했다.

**마지막 날 일반강연\_**2010년 미국건축사협회가 건축사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골드 메달은 피터 볼린(Peter Bohlin)에게 돌아갔고, 수상자와 이루어진 건축에 대한 대담은 미국협회의 공식건축잡지인 Architectural Record의 편집장인 로버트 아이비가 이끌었고, 이 대담을 통하여 그의 건축 철학을 들어 볼 수 있었다.

대담 후 참석한 모든 건축사 회원과 가족들이 거리낌 없이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날은 골드메달 수여식 이전에 미국건축사협회와 업무제휴를 맺은 국제단체장에게 수여하는 Hon.AIA(영예회원)이 있었고, 우리 건축사협회의 최영진 회장 외 6명의 단체장영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호주, 코스

타리카)이 Hon.AIA를 수여받았다.

또한 차기 회장이 나와서 차기 총회 개최지인 뉴올리昂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둘 보였다.

### 계속교육 (Continuing Education)

계속교육은 행사 전날인 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는 미국건축사협회가 주도하여 계속교육제도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건축사등록원 및 각 주의 건축사면허 관리청에서도 이 계속교육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건축사협회는 회원들에게 1년에 18학점의 계속교육이수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한 점은 이중 일정부분은 HSW(Health, Safety and Welfare: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 최소 8학점 이상)와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최소 4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행하고 있어 건축교육에서의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 이 수 받은 학점은 NCARB(건축사 등록원)이나 각 주와 연결되어 있어 면허유지를 위한 계속교육을 요구하는 주의 학점으로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계속교육의 공급자를 다양하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건축사 개인 또는 건축자재 생산자에 이르기까지 건축사들이 건축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총회기간 동안 300여 개가 넘도록 제공하고 있다. 물론 건축사가 어디서든 계속교육을 받고 그 자료를 기록함으로써 요구된 학점을 채울 수도 있지만 많은 건축사들이 1년을 일부러 기다려 총회를 통해 휴가 겸 계속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참가 하며, 미국건축사협회는 동반자를 위해 스노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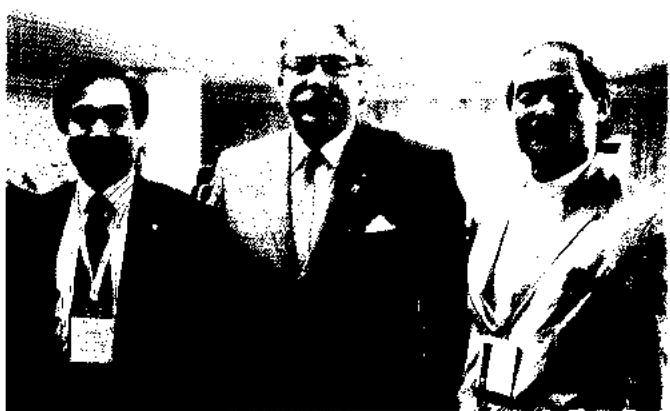
즉, 미국 건축사들은 1년에 한번 있는 이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4일간의 행사에 항공료 약 300불, 호텔 및 식사 800불, 등록비 최저 450불 등 약 1,500불에서 2,000불 정도(한화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에 해당)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참가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Hon.AIA(미국건축사협회회원) 및 Hon.FAIA(미국건축사협회회원) 단체사진



Convocation Dinner(공식소송만찬)에 참석한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



미국건축사협회(AIA) George H. Miller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집 회장, 국제당당 신춘규 이사



미국건축사협회(AIA) Marvin Malecha 전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집 회장, 국제당당 신춘규 이사

## 자재전시 (Expo)

マイアミビーチ 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の大型 展示場で  
800개 이상의 업체가 부스를 마련하여 각종 건축자재와 공법을 선보였으며 그중 일부 업체는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건축사에게 교육 학점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특이한 점은 전시장 안에 건축사들이 쉴 수 있거나 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동문들이 모일 수 있는 Town Square를 제공하고, 한편에서는 연방정부가 전시 및 세미나를 통해 건축사들이 연방정부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올해는 경기 탓인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세미나가 대성황을 이루어 세미나 시작 몇 시간 전부터 긴 줄을 서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 기타 행사

수상작 전시\_AIA 건축상, NCARB 건축상, 지역 건축상, 학생계획 건축상 등 컨벤션 센

터의 곳곳에 각 종의 건축상 수상작을 부분별로 배치 전시를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눈요깃거리를 제공하였다.

**AIA Bookstore**\_AIA가 각종 출판사와 업무를 제휴하여 건축관련 실무 및 작품집 등을 판매하고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되 회원에게는 일정부분 할인 혜택을 주며, 기조연설자 및 유명 건축사 등의 사인회 등을 개최하였다.

특이할 만한 점은 협회가 굴지의 건축서적 출판사(맥그로우힐, 월리 등)와 제휴를 맺어 협회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여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점이며, AIA 로고가 들어간 문구, 기념품 등을 다양하고 멋지게 디자인하여 판매함으로써 건축사의 자부심을 높이는 방안은 한번 우리 협회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ArchiPAC(Architectural Political Action Committee)**\_AIA의 한 위원회로 기금을 모금하여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이

를 통해 건축계의 목표를 정치적으로 달성하고자 다양한 행사 및 모금 운동을 하였다. 이번 기금조성에서는 학교 동문별, 지역별 경쟁구도를 만들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 이 눈길을 끌었다.

**FAIA 회원증 수여식 (Investiture Ceremony)**\_Fellows of AIA는 일종의 원로회와 비슷한 미국건축사협회 내의 또 다른 그룹으로 총 회원수의 2~3% 정도만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작품활동이나 교육 및 실무 등 다섯 개의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쉽을 보여준 건축사 회원들 중 각 지역 지회의 추천을 받고 엄중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신입 FAIA 및 Hon.FAIA에게 수여식을 엄숙하게 진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새로 지은 마이애미의 Adrienne Arsht Center에서 130여명에게 거행하였고 우리나라의 김정식 건축사가 Hon.FAIA 회원증을 수여 받았다.



AIA 총회에 참가한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축기협회 대표단

**국제 건축사협회장 포럼** 이번 포럼의 참석자는 AIA 회장인 루이스 록스,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차기회장인 조지 구니히로, 호주의 회장인 칼 펜더, 영국의 회장인 루스 라드, 일본건축가협회(JIA)의 타로 아시하라 회장,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팬아메리카건축사협회의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미리 배포한 의제인 “국경을 넘는 국제적 실무에서의 건축사들이 초점을 두어야 할 이슈들과 협회의 역할”에 대하여 각국의 대표가 돌아가며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FTKA 회장인 우리 협회의 최명집 회장이 발표하였다.

**공식 초청 만찬(Convocational Dinner)** 정장을 입는 가장 공식적인 만찬으로 FAIA의 회장단이 초청하여 약 700석을 가진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새로이 FAIA가 된 회원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축하하는 자리로써 만찬과 댄스파티로 이어지는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풍경 있는 행사이다.

**차기회장단 선거** 총회 기간 동안 직접선거를 통해 차기회장단을 선출하여 1년 동안 현 회장 밑에서 업무를 맡히고 그 후에 회장단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수석 부회장으로 제프리 포터(Jeffery Potter)가 선출되었다.

**차기 총회** 2011년에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되었으며, 마지막 날 일

반강연에서 홍보를 통해 각인을 시키고 많은 참석을 유도하였다. 특히 뉴올리언즈는 재즈의 도시이나 몇 해 전 카트리나로 심각한 침수의 피해를 입고 복구 중이며, 설상가상으로 올해 맥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환경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도시로써 많은 건축사들의 관심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맺음말

이번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2010 AIA 총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맥시코만의 원유 유출 등 굵직한 사고를 등에 업은 총회였지만, 전통적인 AIA 총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이벤트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으며 우리 협회가 이런 점들은 되새기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총회가 장관 등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고 모시는 행사가 되기보다는 회장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건축사 자체의 자긍심을 갖는 행사로써 인식이 되도록 진행되었다.

- 총회가 건축사들이 1년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행사로써 건축사들이 스스로 1년을 준비하고 저축하여 휴가의 일부로써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자리 잡았다.

- 계속교육도 전문 건축사들이 교육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실무선에서 건축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후 철저한 평가를 통해 교육의 품질과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학회, 학생회 등이 함께 축하하고 건축사협회가 중심이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 AIA 골드메달은 오랫동안 건축의 삶을 살면서 작품 등으로 뛰어난 열정과 재능을 보인 세계적인 건축사를 선정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였으며, 시상 시 참석한 건축사들이 기립박수를 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는 정말 기막힌 기분을 전하게 올리는 기억되는 장면 중 하나였다. 올해는 피터 불린이 골드메달을 수상하였다. ■

신춘규 / 국제담당 이사

김성민 / 국제위원회 위원장

### 미국건축사협회 소개

미국건축사협회는 우리와 같은 임의 단체로서 전체 약 15만명의 면허건축사 중에 약 82,000명의 건축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적인 건축사 단체이다. 특히 미국건축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골드메달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으로 미국건축사협회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부분이다.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으며 각 주 별로 건축사 협회를 두고 있다. 특히 한 것은 국제자부가 유럽, 홍콩, 일본 등에 있으며 앞으로 미국건축사가 활동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지부를 두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 회장은 총회에서 직선제로 하며 임기 1년 전에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여 경험을 쌓게 한 후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은 2008년 부산 아카시아 대회에 참석했던 마샬 퍼넬(2008), 마빈 밀래커(2009)와 금년의 조지 밀러(2010), 그리고 클락 매니스(2011) 등으로 승계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수석 부회장으로 제프리 포터가 선출되었다. 미국건축사협회는 미국건축학회(ACSA,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Architecture), 그리고 미국건축학생회(AIA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Students), 국가건축사등록원(NCARB,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 국가건축인증원(NAAB,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건축사 회원들의 사회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0년 5월말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총 회 원 수 목	합 계					
	1인		2인		3인 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사	회	사	회	사	회	회	회	사	회	사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합계	5,284	5,284	107	24	9	27	5,400	5,525	1,635	1,635	250	500	63	189	24	96	25	172	1,997	2,592	7	7,397	8,117
서울	905	905	26	52	3	9	934	963	876	876	142	284	4	123	12	48	15	93	1,098	1,424	6	2,023	2,396
부산	465	465	17	34	2	6	484	505	95	95	19	38	3	9	0	0	3	26	120	168		634	673
대구	416	416	21	42	3	9	440	467	60	60	21	42	3	9	2	8	2	10	88	129		528	596
인천	267	267	3	6	0	0	270	273	60	60	8	16	0	0	1	4	0	0	69	80		339	353
광주	200	200	1	2	0	0	201	202	39	39	7	14	3	9	2	8	0	0	51	70		252	277
대전	240	240	6	12	1	3	247	255	36	36	9	18	3	9	1	4	1	17	50	84		297	339
울산	177	177	6	12	0	0	183	189	18	18	1	2	1	3	0	0	0	0	20	23		233	212
경기	718	718	3	6	0	0	721	724	239	239	13	36	3	9	2	8	1	5	263	297		984	1,021
강원	171	171	2	4	0	0	173	175	26	26	2	4	0	0	1	4	0	0	29	34		232	209
충북	208	208	4	8	0	0	212	216	30	30	5	10	1	3	1	4	2	15	39	62		251	278
충남	230	230	1	2	0	0	231	232	43	43	6	12	1	3	2	8	0	0	52	66		293	298
전북	238	238	4	8	0	0	242	246	21	21	3	6	2	6	0	0	0	0	26	33		288	279
전남	186	186	1	2	0	0	187	188	18	18	2	4	0	0	0	0	1	6	21	28		238	216
경북	351	351	5	10	0	0	356	361	37	37	4	8	1	3	0	0	0	0	42	48	1	398	409
경남	400	400	7	14	0	0	407	414	27	27	3	6	0	0	0	0	0	0	30	33		437	447
제주	112	112	0	0	0	0	112	112	10	10	0	0	1	3	0	0	0	0	11	13		123	125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117	10	8,127	100.0%		23
서울	2,396	3	2,400	33.9%		10
부산	673	1	674	7.9%		9
대구	596	0	596	7.7%		0
인천	353	0	353	3.8%		0
광주	272	0	272	3.7%		0
대전	339	1	340	3.7%		0
울산	212	0	212	2.6%		0
경기	1,021	2	1,023	12.2%		2
강원	209	0	209	2.6%		0
충북	278	0	278	3.0%		0
충남	298	3	301	3.1%		0
전북	279	0	279	3.0%		0
전남	216	0	216	1.9%		0
경북	409	0	409	4.6%		1
경남	447	0	447	5.0%		1
제주	125	0	125	1.3%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分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원수	5,525	2,592	86	8,117	
비율	68.07%	31.93%	1.08%	100%	
사무소수	5,400	1,997	-	7,397	
비율	73.0%	26.99%	-	100%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i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협회소식\_kira news

### 이사회

#### 제6회 이사회

2010년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6월 29일 오후 1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건, 라オス건축사·구조기술인협회와의 상호교류 추진에 관한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특별회원 입회 승인의 건, 등산·마라톤·미술동호회 지원의 건, 친환경건축연구원장 선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건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되, 문안은 이사 3인(김의중, 신춘규, 전영철)이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라オス건축사·구조기술인협회와의 상호교류 추진에 관한 건
  - 라オス건축사·구조기술인협회와 상호교류를 추진하기로 함.
  - 태국건축사협회와도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전국건축사대회에 회장을 초청하기로 함.
- 제3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함.

####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특별회원 입회 승인의 건
  - 전명예이사 및 전·현직상근부회장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함.
  - 국제위원 1인은 승인을 유보하되,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비회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등산·마라톤·미술동호회 지원의 건
  - 등산 및 마라톤 지원금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미술동호회는 동호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100만원을 인상하여 승인함.
  - ▷ 지원금액 : 등산동호회(700만원), 마라톤동호회(300만원), 미술동호회(400만원)
- 제4호의안 : 친환경건축연구원장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성명 : 이용락 상근부회장
  - ▷ 임기 : '10.6.1~'12.5.31
- 제5호의안 : '건축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위원회 개최 현황

#### ■ 제5회 행정위원회

제5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1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검토의 건
- 제3회 회의 때 선정된 7가지 의제 중 다음 2가지에 대해 논의하였음.
  - ▷ 제4과제 :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한 건
    - 위원회의 문화홍보/신문편집/건축사지편찬위원회를 홍보편찬위원회로 통합·신설하고, 대외협력위원회(회원봉사포럼)와 건축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함.
  - ▷ 제6과제 : 사무국을 포함한 조직
    - 상근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장(부처장)을 두어 사무국 직원들을 총

괄하도록 해야 함.

### ■ 제6회 행정위원회

제6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검토의 건

- 협회 사업 및 회원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으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위원장이 조문·정리하여 차기 회의시 논의하기로 함.

#### ▷ 제1과제 : 협회 사업에 관한 건

- 건축사법 제31조의2에 명시된 8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다음 축조심의 때 사업내용을 정리하기로 함.

#### ▷ 제2과제 : 회원제도에 관한 건

- 현행 회원제도의 현황과 법인회원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조문정리 시 다시 논의 기로 함.

### ■ 제7회 행정위원회

제7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검토의 건

- 협회의 목적 및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조문정리를 하여 다음 회의 때 축조·심의하기로 함.

### ■ 제2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2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 도개선에 관한 건

-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함

▷ 일시 : 2010. 8. 19. (목) 예정

▷ 주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 발제자 : 김진욱 박사(AURI), 심우일 박사(중소기업연구원, '건축의 부가 가치' 연구), 박영도 박사(법제연구원)

▷ 토론자 : 위원장과 김진욱 박사가 논의하여 정하기로 함

▷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함(show up의 목적으로 함)

•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 '구겐 하임의 산업적 파급효과' 와 관련하여 조정철 위원이 알아보기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건설기술관리법 안에 '건축설계' 가 포함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이동우 위원이 핵심 이슈로 정리하기로 함

### ■ 제2회 제2법제도개선위원회

제2회 제2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지적재산권 확보방안 계획 및 방향수립에 관한 건

- 저작권 관련 :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하며, 관련 법령을 통해 구비서류 및 자료, 절차 등에 대해 파악하고 다음 회의를 통해 추진방법, 추진 일정, 업무분담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특허 관련 : 우리협회의 건축부문 특허심의 자문시스템에 대한 특허청의 내부 방침에 따라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함.

- 제2호 :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제도 개선에 관한 건

-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의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원 복지향상에 관한 건

- 감리원 처우개선 : 감리회사에 속해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재택근무하는 감리원(대기인원)에게 정부에서 급여의 50%를 지급토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감리원 자질개선 : PQ 등 감리원 평가시 설계경력이 있는 감리원을 우대하는 내용을 설계자감리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함.

### ■ 제4회 국제위원회

제4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제14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의 건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Masaya Fujimoto 회장의 제안을 수락하여 "저에너지프로젝트"와 함께 "지역건축사(Community Architect)"를 추가 의제로 하고 연사를 추천하기로 함.

- 제2호 : 하반기 해외 교류단체 초청에 관한 건

- 하반기 해외 교류단체(일본건축가협회, 미국건축사협회, 태국건축사협회) 초청에 관해서는 회장님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고 초청 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함.

- 몽골건축사협회의 초청 및 방문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을 검토하여 협회 차원에서 교류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로 함.

### ■ 제3회 친환경위원회

제3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 건축설계 사례집 발행 계획에 관한 건

- 회원들에게 친환경 건축설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친환경 건축설계 사례를 발굴하고자 "친환경 저에너지 통합 설계 사

례집(안)"을 제작하고자 함.

▷ 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이 집필에 참여하기로 함.

▷ 친환경 건축설계 사례를 관계기관(대형건설사, 대형건축사사무소 등)에 협조 요청하기로 함.

▷ 세부계획은 차기 회의에서 정하기로 함.  
• 제2호 : 친환경건축 포럼(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

- 이론 위주의 친환경 포럼을 탈피하여, 회원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기로 함.

▷ 각각의 위원들은 차기 회의까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오기로 함.

▷ 발표자 선정시 이론 위주의 강사보다는 실무 위주의 강사를 선정하기로 함.  
(발표자는 위원들이 차기 회의까지 추천하기로 함.)

#### ■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공제사업 세부 시행 계획(안) 협의  
- 공제사업 주요 추진일정은 원안대로 하며, 다만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중요한 의결기구의 하나로 그 역할이 크므로 조합총회와 함께 정식 출범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제사업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간에 업무이해 등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보증업무 사업승인 한 달 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함을 협의함.
- 공제사업의 인원 총원과 관련하여, 공제사업 개시까지 산적한 업무처리와 필요한 업무습득까지 완료하여 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직원을 총원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원 총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회 운영실장과 논의하여 진행할 것을 협의함.
- 공제사업의 사무공간은 사무 및 영업환

경을 고려하여 회관 8층 사무실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하되, 10명의 인원이 상주함과 영업객장, 각종 집기비품 등의 공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 면적을 산정할 것을 협의함.

- 제2호 : 공제규정 및 업무세칙 개정(안) 협의  
- 공제규정 개정(안)

▷ 제7조(조합원의 자격)는 "조합원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한 건축사사무소로 한다"로 수정하여,

▷ 제8조(조합가입)의 제출 서류는 개인사무소와 법인사무소간의 구분이 불명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토록 하며,

▷ 제29조(구성 및 운영)는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9인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
3.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조합원의 이사장\*으로 수정할 것을 협의함

▷ 아울러 공제규정 개정(안)은 전면 개정으로 보다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바, 기존 공제규정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차기 공제사업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협의함.

#### ■ 제3회 정책위원회

제3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지 500호 기념 대토론회 주제선정 및 초청대상에 관한 건  
- 토론회 주제와 초청대상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의견을 '10년 7월 9일까지 취합하여 정리하기로 하며, 미래 건축사의 역할 및 소통을 주제 방향으로 함.'
- 제2호 : 설계용역 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건  
- 문제 사례 및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 관리하고, 이를 분류/활용하여 설계용역 구조 개선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
- ▷ 문제 사례의 DB화 및 '문제백서' 발간추진

▷ 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선 아이디어 공모 및 개선방안 추진

▷ 정책위원 아이디어 제안 4건 수렴

#### ■ 제1회 건축의 날 집행위원회

제1회 건축의 날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정부포상 추천수량 배분에 관한 건  
- 각 포상의 수량을 균등하게 3등분하여 배분키로 협의함.
- 제2호 : 2010년도 행사계획에 관한 건  
- 행사계획에 대해 협의함.
- 제3호 : 위원 업무분담 및 추진에 관한 건  
- 4단계 업무별로 각 단체별로 위원을 배정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시 담당위원을 지정키로 함.

#### ■ 제1회 정보·교육위원회

제1회 정보·교육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함.  
- 현재 규정 : 부칙 - 2010년도 18시간, 2011년도부터 36시간  
→ 개정(안) : 부칙 - 건축사법 개정 후 건축사자격유지교육 의무부과시까지 18시간/년 유지  
▷ 별표 인정항목(사항) 추가 및 수정
- 제2호 : 시·도건축사회 시행 교육 인증에 관한 건  
- 시·도건축사회에서 실시한 교육에 대하여 인정시간(안) 기준에 따라 승인하기로 하고, 2009충남건축문화제는 한국건축산업대전과 동일한 3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함
- 제3호 : 2010년도 건축사연수교육에 관한 건  
- 건축사연수교육을 2010한국건축산업

[별표 1] 회원인증 기준 – 활동 및 봉사(제5조 관련)

		시간 인정 내용	인정 기준	2년간 최고 인정 시간
협회 행사	국내 행사	협회 총회, 건축사회 총회 참석	횟수×3시간	12시간
		전국건축사대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참석	횟수×3시간	12시간
		건축사회 주최(관) 건축사대회, 건축기행, 문화탐방, 건축물 답사(건축), 문화제, 전시회 등 참석(신설)	횟수×3시간	12시간
		회원대상 세미나, 강연회 참석 등	시간당×1시간	12시간

[별표 2] 회원인증 기준 – 교육시간 인정 (제15조 관련)

		시간 인정 내용	인정 기준	2년간 최고 인정 시간
공급자 프로그램	대학(원) 전공	1. 국내외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	취득학점×1시간	24시간
		2. 국내외 전문학사·학사 학위과정 교육(신설)	취득학점×0.5시간	24시간

대전 기간 중 10월 21일~22일에 실시하기로 하고, '친환경건축의 실무적용' 위주의 교육 과목을 각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홈페이지 설문조사 실시 후 시행하기로 함.

▷ 21일은 경기도건축사회 총회를 고려하여 오후교육을 실시하고, 22일은 전국건축사대회 진행을 고려하여 오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21일, 22일 각 4개의 교육프로그램(2시간교육, 1시간교육×2강의실)으로 총 8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함.

• 제4호 : 2010년도 건축문화강좌에 관한 건축사연수 이후 11~12월 중에 실시하기로 함. '09년에 실시한 건축문화강좌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서비스하고, 강좌 과목은 건축사연수 설문조사와 통합하여 설문한 결과를 참고하여 선정하기로 함.

## ■ 제5회 사업위원회

제5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홍보마케팅 의견

– 올해 위원회의 마케팅 활동범위는 대형 건축사사무소, 지자체, 친환경단체, 건설사 등으로 하여 활동키로 함.

– 친환경주제관을 공동관으로 유치토록 노력하고, 단장님은 6월 29일 협회워크숍에서 전시회를 홍보하여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함.

## 우리 협회 공제사업,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튿날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한건축사협회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협회는 지난 1995년 1월 건축사사무소의 비용 부담완화 및 공제사업 수익금의 활용률을 통한 건축설계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사 공제사업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 '공제사업의 필요성' 좌담회 개최를 시발로 건축사공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었다.

이후 2007년 건축사 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손해배상공제와 응자업무를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 공제사업을 승인 받았으나 근거 법률의 미비로 건축사법 개정 이후 승인

되기로 결정됐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의무 가입과 대한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입찰, 계약, 하자 등 보증업무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동년 9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보증업무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승인된 '손해배상공제 및 응자업무' 와 함께 '보증업무'를 추가함으로서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응자,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건축주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발판이 마련됐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 보증업무 추가승인 및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과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설치해 본격적인 업무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최영집 회장, AIA 명예회원 추대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이 미국건축사협회(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IA 총회에 참석, 활발한 해외교류를 펼쳤으며, AIA가 해외 건축단체장에게 수여하는 명예회원(Hon.AIA)으로 선정, Presidential Medal을 수여 받았다. AIA총회에는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이 FIKA의 공동대표회장으로서 참석하고, 이창섭 부회장, 류춘수 전부회장, 신춘규 이사, 김성민 국제위원장, 그리고 국제위원회 김지덕, 이영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건축가협회는 이상림 회장을 비롯해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건축가협회 이상림 회장도 미국 건축사 협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개최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건축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축하연에는 우리 협회 회장과 비롯해 건축계 원로와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 당선 건축사들을 축하했다.

종로구청장에 당선된 김영종 건축사(첫줄 우측 여섯 번째)와 안산시장에 당선된 김철민 건축사(첫줄 우측 여덟 번째) 그리고 시도의원 및 시군구의원 당선된 7명의 건축사 회원들은 앞으로 지역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등반대회 개최



2010년 상반기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등반대회가 6월 12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계룡산 국립공원 지락인동학사(계룡산)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가 주관하고 대전 건축사회 동심산악회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약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부회장이 참가해 축사를 낭독했다.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건축설계, 도시, 모든 공간환경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란 주제 하에 계룡산과 동학사를 찾은 등산객들에게 건축사를 홍보했으며, 기념품 배부 및 산행 후 뒤풀이를 통해 동호회 회원 상호간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 서울건축사회 '명사 특강'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6월 15일 대한건축협회 대강당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명사특강'을 개최했다.

1강자는 빌딩스마트협회 김인한 부회장(경희대학교 건축학과)이 국토해양부의 BIM설계 가이드 실무 적용사례에 대한 국내외 현실과 BIM필요성에 대해, 2강자는 명지학원 송자이사장이 '건축사의 열악한 경영난 극복을 위한 무한 경쟁 시대의 준비'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송자이사장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 국가 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세계화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언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계속되는 아이디어 발굴로 항상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의 명사특강은 건축사의무교육으로 인정되어 참석회원 모두에게 3시간의 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했다.

##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 제6기 수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GAEC) 제6기 38명의 수료식을 지난 6월 24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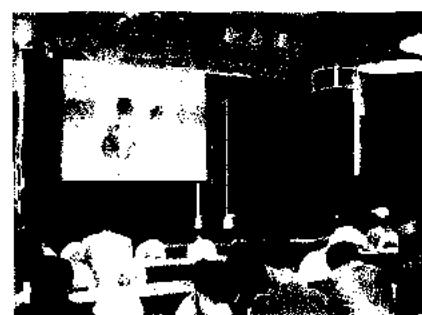
이날 수료식에는 1~5기 수료생이 함께 참석해 진행됐으며, 수료식 전 "인생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란 주제로 강의(강창희, 미래에셋금융그룹 부회장)가 진행됐다.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CEO간 네트워크 강화 및 최신 경영 정보를 습득하여 CEO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여 주는데 목표를 두고 2007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7기 수강생은 2010년 8월 26일 개강하여 16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에 3시간씩 강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 문의 : 서울건축사회 기획사업팀, 02-587-7061

## 광주건축사회, '우리 미래 생존 전략' 회원 워크숍 개최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신정철)는 지난 6월 4~5일 양일간 전남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건축사의 윤리의식 제고 및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리 미래 생존 전략을 위한 회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건축사 신용협동조합과 연금관리회 주최, 광주건축사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광주건축사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송병락 명예교수의 초청강연과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부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창호 부회장의 주제발표, 분임토의 등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경기도건축사회, 건축정보워크숍 참여



경기도건축사회(회장 백승천)는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경기도건축정보워크숍에 참여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관내 건축사 및 31개 시군의 공무원 등 건축·주택분야 관계자 약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분야 강의 경청은 물론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축법, 재개발 및 부동산, 웰빙시대의 건강관리법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분임토의도 진행됐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건축문화 담당자는 “주제별 우수한 분임토의 발표를 한 시군은 건축 행정현실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건축계소식

##### 강성익 회원 '개인전 및 작품집 출간 기념회' 열어



강성익 회원(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이 지난 6월 28일 한전 아트센터 갤러리 1전시관에서 '제3회 개인전 및 건축작품집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건축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강성익 회원의 작품전과 출판기념을 축하했다.

강성익 회원은 한국건축사미술동호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꾸준한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미술대전, 동아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하는 등 화가로서의 재능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작품전은 지난 1996년과 2005년에 이은 세 번째 작품전이며, 20여 년간의 회화작품과 30년간의 건축작품을 수록한 작품집을 함께 출간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7월 6일(화)까지 열렸다.

##### 녹청련 정기총회 개최 및 창간호 '녹청인' 발행



건축 및 도시 환경 관련 순수 시민단체인 「녹청련(綠靑聯, 녹색 건축 청색도시 시민디자인연대의 약칭)」에서는 지난 6월 23일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 2주년을 앞두고 '2010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영수 공동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재선임됐다. 특히 이날 녹청련의 창간회보인 「녹청인」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을 홍보하거나

제안 및 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음카페/녹청인(<http://cafe.daum.net/gabc>)에 글을 게시하면 된다.

- 문의 : 이종호 홍보위원장 010-3210-4783, 정명민 사무국장 010-3431-9119

##### 제3회 심원건축학술상 공모

심원문화사업회(이사장 이태규)가 주최하고 (주)엠에스 오토텍이 후원하는 '심원건축학술상(Simwon Architectural Awards for Academic Researcher)'의 제3회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심원건축학술상은 1년 이내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완성된 연구 성과를로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고(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은 미 발표작으로 간주함)를 응모 받아 그 중 매년 1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하여는 단행본 출간과 저술지원비를 후원한다.

심원문화사업회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 건축사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그의 인연을 회憶하며 건축의 인문적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후원회로서,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 학자 및 예비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 당선작 : 1편(상패 및 상금 500만원과 단행본 출간 및 인세 지급)
- 응모자격 : 내외국인 제한 없음
- 응모분야 : 건축역사, 건축이론, 건축미학, 건축비평 등 건축인문학 분야에 한함 (단, 외국국적 보유자인 경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함)
- 응모작 접수일정
  - 1차 모집: 2010년 8월 1일~9월 10일
  - 2차 모집: 2010년 10월 1일~11월 10일
- 추천작 발표 : 2010년 5월 15일
- 1차 추천작 발표: 2010년 11월 15일(건축 리포트<와이드> 10년 11~12월호 지면)
- 2차 추천작 발표: 2010년 11월 15일(건축 리포트<와이드> 110년 11~12월호 지면)
- 추천제 운영방식
  - 1/2차 추천작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는 소정의 내부 심사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함, 그

자리에 모여 관련분야 강의 경청은 물론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축법, 재개발 및 부동산, 웰빙시대의 건강관리법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분임토의도 진행됐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건축문화 담당자는 “주제별 우수한 분임토의 발표를 한 시군은 건축 행정현실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건축계소식

##### 강성익 회원 '개인전 및 작품집 출간 기념회' 열어



강성익 회원(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이 지난 6월 28일 한전 아트센터 갤러리 1전시관에서 '제3회 개인전 및 건축작품집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건축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강성익 회원의 작품전과 출판기념을 축하했다.

강성익 회원은 한국건축사미술동호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꾸준한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미술대전, 동아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하는 등 화가로서의 재능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작품전은 지난 1996년과 2005년에 이은 세 번째 작품전이며, 20여 년간의 회화작품과 30년간의 건축작품을 수록한 작품집을 함께 출간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7월 6일(화)까지 열렸다.

##### 녹청련 정기총회 개최 및 창간호 '녹청인' 발행



건축 및 도시 환경 관련 순수 시민단체인 「녹청련(綠靑聯, 녹색 건축 청색도시 시민디자인연대의 약칭)」에서는 지난 6월 23일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 2주년을 앞두고 '2010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영수 공동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재선임됐다. 특히 이날 녹청련의 창간회보인 「녹청인」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을 홍보하거나

제안 및 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음카페/녹청인(<http://cafe.daum.net/gabc>)에 글을 게시하면 된다.

- 문의 : 이종호 홍보위원장 010-3210-4783, 정명민 사무국장 010-3431-9119

##### 제3회 심원건축학술상 공모

심원문화사업회(이사장 이태규)가 주최하고 (주)엠에스 오토텍이 후원하는 '심원건축학술상(Simwon Architectural Awards for Academic Researcher)'의 제3회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심원건축학술상은 1년 이내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완성된 연구 성과를로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고(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은 미 발표작으로 간주함)를 응모 받아 그 중 매년 1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하여는 단행본 출간과 저술지원비를 후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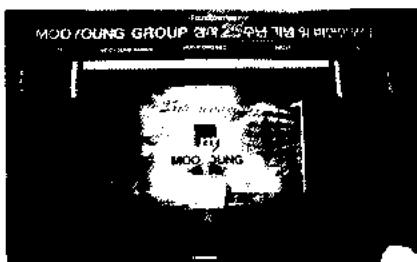
심원문화사업회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 건축사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그의 인연을 회憶하며 건축의 인문적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후원회로서,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 학자 및 예비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 당선작 : 1편(상패 및 상금 500만원과 단행본 출간 및 인세 지급)
- 응모자격 : 내외국인 제한 없음
- 응모분야 : 건축역사, 건축이론, 건축미학, 건축비평 등 건축인문학 분야에 한함 (단, 외국국적 보유자인 경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함)
- 응모작 접수일정
  - 1차 모집: 2010년 8월 1일~9월 10일
  - 2차 모집: 2010년 10월 1일~11월 10일
- 추천작 발표 : 2010년 5월 15일
- 1차 추천작 발표: 2010년 11월 15일(건축 리포트<와이드> 10년 11~12월호 지면)
- 2차 추천작 발표: 2010년 11월 15일(건축 리포트<와이드> 110년 11~12월호 지면)
- 추천제 운영방식
  - 1/2차 추천작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는 소정의 내부 심사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함, 그

가운데 매년 1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시상함. 최종 당선작 심사에서 탈락한 추천작은 추천일로부터 3년간 추천작의 자격이 유지됨.

- 당선작 발표 : 2011년 5월 15일
- 문의 : 심원문화사업회, 02-2235-1960

### 무영건축, 창사25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 개최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회장 안길원)는 지난 7월 1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창사25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해외인사 및 동종건축업계, 학회·교육 분야, 무영의 임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인근 뿐만 아니라 오프닝 축하 공연으로 시작해 파워 넘치는 무영그룹의 이미지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장기근속자 표창과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패 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념패 등이 수여돼 직원 뿐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클라이언트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무영건축 비전선포식에서는 2009/2010년 공채 신입사원들의 평가 넘치는 난타 공연과 함께 진행되어 '2015 Global Top 10'이라는 비전 선포의 이미지에 잘 부합돼内外빈 손님과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안길원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한 소중한 분들의 사랑과 성원 그리고 무영 가족들의 혼신적인 열정이 오늘과 같은 역동적인 순간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치하하며 "無影, 그림자 없는 세상을 꿈꾸며,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전문 회사로 최선을 다하겠다" 각오를 밝혔다.

- 문의 : 무영건축, 02-3011-1400,

[www.mooyoung.com](http://www.mooyoung.com)

### 제9회 정림포럼 개최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7월 1일 연경동 본사 지하 2층 정림홀에서 'Raw & Cooked innovation'을 주제로 '제9회 정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 신 월간디자인 편집장과 손재익 베이스그래픽스 대표, 정림건축의 유종욱 이사와 최해안 부팀장이 강연했다.

정림포럼은 이제까지 학교나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됐던 건축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보다 더 큰 범위에서 디자인 전반의 이야기들을 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1년에 시작돼 2008년에 중단, 3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또한 강연 초반 정림건축 구성원들이 직접 6분 발표의 시간을 가지면서 초청 강연자들의 논의를 함께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으며, 초청 강연자의 작업을 포럼 1개월 전부터 전시함으로써 작업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의 초기의 생각들을 더 심도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 문의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02-708-8500

### KCC, '홈씨씨' 인천점 오픈



KCC는 지난 6월 25일 인천시 서구 월장동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5,000㎡ 규모의 건축·인테리어 자재 전문점인 '홈씨씨(HomeCC)' 2호점(인천점)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홈씨씨는 'Home Creation Center'의 약칭으로 Home-Depot 등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Home center'라

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 인테리어 자재의 초대형 매장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 상동에 3층 규모의 홈씨씨 1호점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거문화 및 소비형태에 맞게 인테리어 및 시공 부문을 강화한 한국형 홈센터인 홈씨씨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관련 상품의 판매에서 시공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쇼핑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속한 상품 도입,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준 높은 안목을 가진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한 최신 트랜드의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홈씨씨 인천점 1층에는 인테리어 마감재 상품을 비롯한 건축자재 매장이, 2층에는 DIY 용품, 인테리어 소품을 포함한 각종 인테리어 관련 생활용품 매장이 위치하고 있다. KCC 제품은 물론 목재, 천장재, 외장재, 패인트 등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상품을 포함한 국내외 3만여 가지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주문상품 구매 및 대량구매가 가능하며 타일, 조명, 욕실자재, 도어락 등의 단품 사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KCC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환경 개선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택 건축연한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증대, 국내 건축 인테리어 자재 유통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홈씨씨가 국내 주택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홈씨씨를 통해 중소형 협력업체 우수 상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품질 보증된 자재의 합리적인 가격과 시스템화된 판매방식으로 가존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C는 홈씨씨 1, 2호점의 성과를 통해 출점을 늘려 전국적으로 25개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KCC 홈씨씨 인천점 032-570-7000

### 〈바로잡습니다〉

본지 2010년 6월호(통권 494호) 100페이지 협회소식란의 '우리 협회 12대 회장 김두섭 고문 별세' 기사 중 학력 '평양공업 전문대학교'를 '평양공업대학교 건축과'로 바로잡습니다.

## 공공 건축물과 시설물 설계자 선정 방식에 대한 미국의 현황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성 건축사 대표 사무실들에게 온 금문교 같은 기회



삼년마다 한번씩 샌프란시스코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건축사 사무소들에게 RFQ(a Request For Qualifications—자격심사요청서)라는 군소 사무소들을 걸러내기 위한 엄격한 시스템을 적용 했었다. 주로 발주하는 일들은 공공주거 시설이나 장애자 시설 개선 등의 프로젝트이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미리 선정된 건축사 사무소들은 모두 여성 건축사들이 대표였다. 이것은 사실 소수민족이나 여성대표사무실 우선권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20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4개의 사무실 모두 합법인 소수 인원 사무실(small firms) 우선권에 해당되는 혜택자들이었다.

샌프란시스코시 건축과의 과장이자 시 소속 건축사인 게리 호이는 “샌프란시스코 시 인권위원회는 시장에서 불리한 약자였던 소수 인원 건축사 사무소들을 공평한 경쟁의 장에 올려놓았다”라고 밝혔다.

4개의 사무소들 중 둘은 독립적 사무소이고 – 플랫 타카르트 건축사 사무소와 해밀トン + 에잇켄 건축사 사무소– 나머지 둘은 작은 사무소들이 이룬 조인트 벤처팀들 – 톰 엘리엇 파쉬 건축사 사무소와 냄 건축사 사무소 팀, 마크 카바네로 건축사 사무소와 캐리 번스 티안 건축사 사무소 팀들이다.

사실 이번 계약은 뉴욕시에서 하고 있는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 (D+CE)” 와는 다르지만 많은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시가 뉴욕시와 같은 방향으로 가주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두 번 연속으로 선정된 건축사 리스트에 올라간 플랫 타카르트 건축사는 “최근 만들어진 발주 분문 선정 건축사 리스트에서 보면 공공 분야에서 그들은 많은 경험보다는 좋은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4백만 달러에 이르는 이 발주계획을 위의 4개 건축사 사무소들과 나누어 계약하기로 했다.

그럼 위의 글에서 언급된 뉴욕시의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 (D+CE)를 살펴 보도록 하자. 왜 우리의 서울시와 비교가 되는지….

### The A-Lists

건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뉴욕시의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 계획은 헛간설계, 오피스 리노베이션 같은 규모에서부터 도서관과 박물관과 같은 스케일 프로젝트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공공 건축물 프로젝트를 위한 조언자가 되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신규 프로젝트는 공공시설 프로젝트에 몰리고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D+CE)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장점이 있음이 입증하면서 공공시설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경쟁이 유래 없이 치열해졌다.



김은미 / Studio M Ap  
by Kim, Eunmee

아래의 글들은 The Architecture Newspaper, <http://archpaper.com>에서 발췌 번역하고 의견을 덧붙인 글입니다.



277 소방서 / STV Architects.  
Photographs-Bernard James/City of New York

2008년도에 완공된 STV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부쉬워크에 위치한 277 소방서이다. 이것은 뉴욕시에서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 Initiative로서 발주한 첫 완공작이다. 이 작품은 Art Commission award 2004를 수상했다.

돈을 벌어들인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생색내기용 프로젝트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브루스 아트뮤지움 / Arquitectonica  
Photographs-Norman McGrath

Arquitectonica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설계된 브루스 아트뮤지움은 2003 Art Commission을 수상하였고, 이 작품은 뉴욕시의 (D+CE) 프로그램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최소한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조류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공 건축물 설계 발주를(거의 1년에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이다) 위해 줄을 늘여선 건축사들이 지난 5년간 두 배로 늘었다.

엄청난 예산을 가졌던 공룡 개발자들이 사라진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공공건축물로 몰려들고 있다.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에게 한동안 걸끄러웠던 부문이었던 Design and Construction Excellence Initiative (DCE)가 제 자리를 잡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은 22회 연례 아트 커미션 어워드에서 8개의 가장 디자인이 훌륭한 시 발주 공공 건축물 – Polshok Partnership: entrance pavilion at the Brooklyn Museum of Art 등 – 을 선정하여 Excellence in Design을 수여하며 2004년도에 처음으로 DCE를 발표했다. 뉴욕시장에 의한 정의에 의하면 이 DCE의 목적은 “우리의 뉴욕시가 가진 탁월한 면을 부각 발

전 시켜 세계의 디자인 수도로 만들자” 라며 시 부처들을 독려했고, “공공건축물들의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훌륭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 연례 아트커미션 어워드에서 심사를 하여 우수작을 수상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DCE가 시 전반에 걸쳐 진행될 무렵, 설계와 건설 부처의 수장인 David J. Burney가 DCE의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그 부서 안에 설계와 건설 부문 프로젝트가 있는 공원 부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 힘든 DCE의 시작의 첫걸음은 디자인 서비스를 수급하는 시의 방법을 개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공공 건축물들에 대한 수주는 하나의 강력한 사실에 의해 결정되었다. 최저가 입찰! 이것은 정치가들에게 본인에게 표를 주는 납세자들에게 겸약한 차적물을 전시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게 검증된 방법이었으나, 하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이런 방법으로는 훌륭한 건축사들을 끌어들일 수 없고 또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DDC는 이러한 가격경쟁 조달 방식을 품질을 기반으로 선정하는 진행방식으로 바꾸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시 당국이 스케줄과 예산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납세자들에게는 품질로 보상이 된다.”라고 David J. Burney가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각 프로젝트 책임자들에게 품질이라는 개념을 재인식 시키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입증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DDC는 두 가지 새로운 조달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RFP 절차를 간소화해 각 프로젝트가 적합한 건축사에게 가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범위와 규모의 사무소들이 공공건축물 발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모든 건축사사무소들이 90페이지가 넘는 현상설계 포맷을 만들 수 있는 마케팅 부서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브루클린 소년원이나 퀸즈에 세워질 신경찰학교와 같은 미화 이천오백만 달러가 넘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두 단계 RFP방식

그녀의 의견은 다소 낙천적인 면이 있다. 사실 몇십 년 동안 공공 건축물 프로젝트들은 대대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RFP(Requests for Proposals-제안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들에게 받았고, 이는 디자인 설계사무실 (Design Oriented Architectural Firm)의 목을 움츠려들게 하여 발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박한 예산과 고대 관료주의적 진행, 조악한 시공의 질, 이런 것들이 공공 범주의 프로젝트들이 관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머물게 만들거나 또는 사설 개발업자로부터 엄청난

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최소한 이번 프로젝트와 상관없는 동료 건축사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그 회사의 협력업체, 프로젝트 팀원들의 경력과 학력, 그리고 설계 결과물을 토대로 응답서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이미 입증된 대형 사무소들은 2단계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조정된다. 두 번째 단계 끝 무렵에 시 당국은 기술적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사무소들과 가격협상을 한다. “DDC 의 새 건축사 선정 방식은 주목받는 단계의 건축을 확립해 줄 것이다.”라고 뉴욕 시에서 무수한 프로젝트를 설계한 Polshek Partnership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의 이사인 Todd Schliemann가 설명했다. “시에서 디자인을 무시하고 현실성만을 주장하던 시절은 옛말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예산이 이천오백만 달러 이하의 프로젝트에서는 뉴욕시에서 선정한 조언자 역할 사무소들로 성장한 사무소들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한다.

첫 번째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 당국은 RFP를 받고 적절한 경력과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가졌다고 자문단에 의해 평가된 사무소들이 이러한 예산 프로젝트에 지원 할 수 있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렇게 조정된 사무소들은 그들 사무소들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안을 제출 할 수 있는 조건(일종의 제한 현상설계)으로 24시간 계약체제를 가지게 된다.

제안 안 제출 진행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들을 대형 사무소와 소수 인원 사무소 카테고리로 나누어 배분하고, 이 카테고리는 더욱 세분화 하여 천만 달러 이하 셋

선과 천만에서 이천오백만 달러 셋선으로 나뉜다. 매해 50개 이상 발주되는 천만 달러 이하 셋선에는 시 당국이 24개의 소수인원 사무소(정확히 열 명이나 그 이하의 인원의 사무소를 말함)를 선정, 리스트에 올린다.

이들 사무소들의 면면을 보면 Andrew Berman Architect 건축사사무소, Lyn Rice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 Toshiko Mori 건축사사무소 등이다. 또한 천만에서 이천오백만 달러 셋선에는 8개의 더 큰 사무소들 Polshek Partnership 건축사사무소, Smith-Miller+Hawkinson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 Grimshaw 건축사사무소 등이 선정되었다.

여기 까지 The Architecture Newspaper에 시간차를 두고 실렸던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하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연방체제로 엮여 있는 국가로서 각 주의 법이나 특색은 가끔은 다른 나라가 아닌 것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르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어쩌면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주의 경우를 대비 살펴보았는데, 공공 건축물을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해답 도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가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여 준 기회 제공 방식과 캐리티 디자인 수급방식은 요사이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일감 없음을 호소하는 여러 실력 있는 건축사들을 떠올리게 했다. 일명 돈 내고 돈 먹기의 텐키나 현상설계 운영방식으로 현상설계나 기회 프로젝트로 빌둥을 하려는 얼마나 많은 신진 건축사들의 꿈이 막히는 걸 알고나 있는지… 이러한 악순

환으로 기회가 없었던 국내 건축사들은 실력을 펼쳐 보이지도 못하고 큰 시장을 결국 외국 스타 건축사들에게 내주고 있는(때로는 심지어 스타도 아닌 외국 건축사들에게) 문화 사대주의를 얼마나 한탄하는지….

국내 건축사들에게 경쟁력이 없음을 질타하고 심지어 시에서 발주하는 텐키나 현상설계에서 외국 건축사와의 협업을 기본 조건으로 내거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 무한한 부러움만 품을 수밖에 없다.

건축설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특히 공공 건축물 발주에서는 공개경쟁 현상설계가 주류를 이루고, 또한 비교적 약자인 젊은 소수 인원 사무실만이 참가할 수 있는 현상설계를 진행하여 그 사무소들의 처음 짓는 프로젝트를 가지게 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설계에서는 제출서류들에 이들 사무소들에게는 엄청난 예산인 CG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게 진행 심사한다.

이렇게 내수시장에서 끊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경제적, 건축사적 힘을 키운 건축사들은 해외에 그들의 디자인을 수출하며 활성화 활동하고 있다.(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스타 건축사라며 엄청난 계획 설계비를 주며 모셔오고…)

지난 4년간 서울시는 어쩌면 뉴욕시와 같은 구호로 디자인 수도를 부르짖으며 엄청난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발주했다. 이 두 시가 채택한 방식은 너무나 달랐다.

우리가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용 건설물을 마구 지어내는 것에 앞서 외국의 이러한 사례를 잘 살펴보아 우리의 건축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